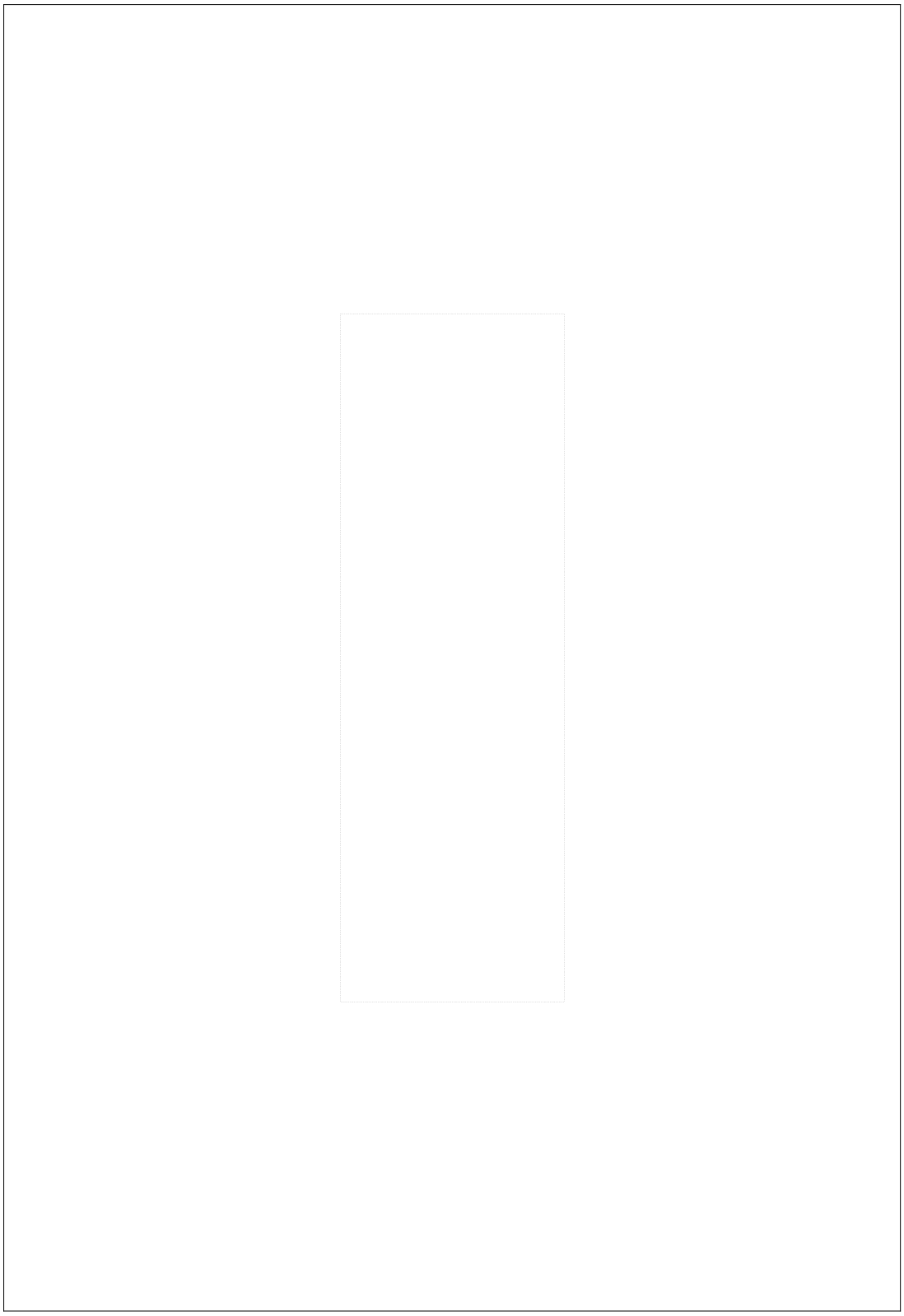


漢拏山頂

序

새로운 발전을 앞둔 우리 문화계는 오늘을 기점으로 한 내일의 설계도를 꾸미고 현실의 상태를 분석 종합하여 어느 원리의 추출을 뜻함이 중요한 과업이기는 하나 이와 병행하여 소멸되어 가는 과거의 문화재의 발굴과 기술은 그 분야의 사적(史的) 고찰에 기반이 될 것으로 또한 중시되어야 하며 어느 나라 어느 학문 분야에서도 거쳐온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주도민요는 후자의 경우에 속하여 우리나라 학계가 온 희망을 걸고 온 터이다. 인문과학에서의 제주도의 위치란 한국 연구에서의 자료의 빈곤을 보충하고 외래문화로 외식(外飾)한 사상(事象) 뒤에 가리워진 한국적인 요소의 발견에 적지 않은 파괴구(破壞口)가 될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제주도민요는 크게 촉망(囑望)되는 바이다.

근자(近者) 제주도의 문화적 개척을 머금고 그 조사를 뜻한 자가 끊임없이 내도(來到)할 것은 물론이나 이러한 조사 연구에는 장기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순여(旬餘)이 단기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연구는 마땅히 본도 출신의 학자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며 또한 그 업적을 신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 홍정표(洪貞杓) 선

생이 본도 민요의 채취를 뜻하여 드디어 본저를 공간(公刊)하게 되었으니 그 노고를 심사(深謝)하여 사계(斯界)에 이바지함이 클 것이라고 하겠다. 씨(氏)는 순수 본도의 특색을 갖춘 민요를 채취하고 육지 민요의 혼입이나 번안(飜案)을 식별 배제하여 자료의 정선(精選)에 엄격하였으며 그 방언에서 오는 난해에 대한 친절한 주석과 가사 자체의 주변 작사(作詞)의 동기(動機) 내용의 해설 등 여지껏 보여준 민요집에 대하여 새로운 시도를 꾀하였다. 이러한 태도가 사계에 끼칠 바 영향이 자못 큼을 믿으며 육지의 학계에 큰 반응을 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간행이 뒤이어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제 제주도민요는 현대화된 육지 민요에 몰리어 소멸의 속도를 더할 것이요 신사조와 세대교체로 연로자의 체감(遞減)은 제주도민요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니 제주도민요의 채집과 기술은 초미의 급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기에 처하여 씨(氏)의 본저 간행의 공적을 필자는 충심(衷心)으로 찬양하여 여기 감히 서를 써 씨의 노고를 사(謝)하는 바이다.

서기 1963년 1월 3일

이 숭 녕

自 序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나 본도는 민요의 보고라고 했었다. 사실 40여 년 전만 하드라도 본도의 어느 가정에서든지 남방애(절구통)를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쌀을 찧는데 으레 노래를 부르며 작업을 했었다. 그러든 것이 지금에 와서는 마을 곳곳마다 문명의 이기인 동력 정미기가 대치되면서 쌀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 기계방아 정미기에 의존하게끔 되면서 「남방애」는 종적을 감추게 되고 그와 함께 부르든 민요도 역시 발붙일 곳을 잃게 되어 차츰 소실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속도로 변천해 가는 세태에선 웬만한 세적(細蹟) 따위의 고사(古事)는 망각과 연감(煙滅)되기 쉬운 일이며 또한 어느 구석에 잔존해 있다손 치더라도 마침내 버리기 쉬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모처럼 우리 조상들이 아껴오던 귀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만 흙에 묻힌 옥이 되기 쉬운 것이다.

다행히 요즘에 와서 우리 고유의 민속을 아끼고 민요를 연구하는 학도들이 이를 다시금 캐어내기에 힘을 아끼지 않고 산재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수집해 놓으면서 그 연구를 쉬지 않고 있음은 지방의 옛 문화를 보호하는 뜻에서 매우 경하하는 바이나 그러나 그 민요의 해석 감상이 구구하고 전래의 민요의 참된 본의를 파악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이한 주관적 견해도 있을

법한 일이면 그를 탓할 것이 아니지마는 불초(不肖) 기왕에 수집한 것 중에서 비교적 새로운 문화에 젖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백여 수를 골라 가능한 한 옳은 해석을 더듬고 올바른 감상을 해보려고 그 동안 수차 탐역(耽域) 일원에 답사를 거듭하면서 어두운 촛불 아래 이름 모르는 노파의 숨김 없는 말과 학에 능한 지방 고사(高士)의 소견을 참작 취사(取捨)하여 그대로 한 조각 한 조각을 한자리에 묶어 꾸며 놓았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민요를 생명이 없는 비어(鄙語) 추요지설(芻蕘之說)로써 해설을 가주(加注)한다는 것은 민요의 본바탕을 망각하는 부질없는 소위(所爲)가 아닌가 사려(思慮)되는 바이며 또 그나마 학자도 문사(文士)도 아닌 천학비재(淺學菲才)의 불초로서 그 해설에 만전을 기할 수 없었음을 내 스스로 민망히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본도 민요를 연구하는 학도 동지의 연구 문제와 자료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에 구태여 이바지하는 바이며 그러기에 널리 판매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이다.

동지제위의 만에 일의 참고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불초로서는 다시없는 생광(生光)이라고 생각하며 내내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우러러 바라는 바이다.

이 소책자를 내놓음에 있어서 홍종언(洪宗彦)씨의 후원과 강성언(姜成彦)씨의 조력(助力) 또는 특별한 지도와 서문마저 써주신 이숭녕(李崇寧) 박사께 심심한 사의(謝意)를 드리는 바이다.

著者 씀

일러두기

1. 청초(淸楚)한 취미(趣味)를 돕기 위하여 면(面)의 여백과 변화 있는 새로운 편찬 체재를 시도한 셈이다.
2. 가급적 우수(偶數)면에 민요를 기수(奇數)면에 해설을 넣고 민요와 더불어 함께 감상(鑑賞)하기에 편의케 했다.
3. 해설에 있어서는 미사려구로 수식하거나 혹은 의견 보설(補說)을 피하고 그 민요 고유 내용만을 해설하기에 노력했다.
4. 민요 점선 밑에 그 원의를 훼손되지 않게 표준어로 옮겨 독해에 편의케 했다.
   표준어로 옮기지 못한 몇 개의 방언은 그대로 적기로 했다.
   예) 배알, 허벅 따위
5. 방언은 음운현실 그대로 적기로 했다.
6. 낱말 풀이는 참고로 적어 두었다.

目　　次

插畵　晩農 洪貞杓

漢拏山頂

序 李崇寧 博士 · 7

自序 · 9

曲 金國培 編曲 · 11

• 오돌또기　• 산천초목　• 봉지가

일러두기 · 14

신국 신산 · 18

늬 귀에 풍경 · 22

아홉 애기 · 25

만리 장성 · 27

달아 달아 · 30

새벽녘 · 34

산천 초목 · 36

봉지가 · 37

질ᄀᆞᆺ간 집이 · 41

앞 집 낭게 · 43

헌 당 수비 · 47

느 인심 · 50

삼월이라 · 53

살챗 보리 · 57

걸두 지컨 · 59

날낭 죽건 · 62

칠월 초ᄒᆞ르 · 65

글을 ᄒᆞ멘 · 58

으렁 좌수 · 70

우리 어멍 · 73

가시 오름 강당장 · 76

ᄌᆞ늬뚤 · 78

밤에 들곡 · 81

칠성 ᄀᆞᆮ이 · 84

간장 썩듯 · 86
원수 님은 · 89
강남 바당 · 91
집 신 넌아 · 94
총각 차라 · 97
저 달 ᄀᆞᆺ치 · 100
지집 애기 · 102
지서멍 · 104
이어도하라 · 107
돌도 지는 지게 · 110
좀을캐 · 112
관장 살이 · 116
강남 서도 · 118
머리 삼갑 · 122
씨아방은 구쟁기 · 125
실픈 일랑 · 128
신 엇임도 · 130
둙이 울멘 · 133
살아서도 · 135
흰 죽 · 138
요새 저새 · 141
원두 살곡 · 143
ᄀᆞ랑 좁쌀 · 147
나주 영산 · 151
초싱 둘 · 154
잘 산덴 ᄒᆞ나 · 156
낙락 장송 · 159
가난 ᄒᆞ곡 · 161
가지 줓고 · 164
누 천 만년 · 167
이어 이어 이어동 · 170
이어사나 · 172
가다 근에 · 176
이어도 방애 · 178
은 가락지 · 180
관노 관속 · 183
지레 가는 청비바리 · 186
천 주언 종 사는 · 189
전 처 소박 · 191
얼굴 좋다 · 193
얻어 먹젠 · 196
어멍 신딜 · 200
헝허야 뒤야 · 202
삼척 동자 · 205
서방 이엔 · 208
어야홍 · 211

어멍 하멍 · 214
양친 부미 · 216
이어 이어 · 218
오돌또기 · 222
몸은 족곡 · 227
물이 엇건 · 230
죽어근에 · 233
집에 반초 · 236
나 놀래 · 238
석상 · 241
낭도 팔재 · 244
있노라고 자세 · 246
전싱 궂게 · 249
저 산 앞에 · 251
물이 엇언 · 253
지장 닷되 · 256
산 앞 각시 · 259
저 산천 · 262
새 노는 딘 · 265
스물세에 세 애기 · 278
오라방 · 270
아전 어른 · 273
저 바당 무의낭 · 276
씨 누이야 · 278
어려 어려 · 282
길주 멩천 · 286
어긴여랑 · 289
뭣을 입엉 · 293
저레 가는 심방 · 295
씨앗 전아 · 300
짚고 넓은 물속 · 302
부르거든 · 304
강남 가도 · 306
어야 뒤야 · 309
방에 지영 · 312
양반 양반 · 315
ᄇᆞ리거든 · 317
바당 절 · 320
뭣인 일 · 323
갓을 쓰난 · 326
살챗 보리 · 329
아들 낳고 · 332
험벅 눈 · 335
밤중만에 · 338
홀어멍의 아들 · 341
구관 · 343

가다 오다 · 346
가랭 ᄒᆞ영 · 352
잠대 · 352
감줄 먹은 시욱 · 354
푸릿 푸릿 · 357
성님 성님 · 360
ᄃᆞ리 송당 · 364
저 산 뒤에 · 373
메누리 · 376
ᄒᆞᆫ ᄆᆞ실에 · 380
자랑 자랑(1) · 383
(2) · 384
(3) · 386
(4) · 388
(5) · 390
제주도 민요 개설 · 395
후기 · 406

신국 신산

신국신산 치둘안보난
늦게갈은 모물과산뒤
선제비연 애둘암서라

옮김

神國神山에 치달려가 보니
늦게야 갈아놓은 메밀과 山稻
선 때 베여 애달파 하더라

- 神國 : 神의 나라
- 神山 : 신선이 놀던 山

신국신산(神國神山)에 치 달려 올라가 보니 늦게야 파종(播種)되었으므로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예취(刈取)된 메밀과 산도(山稻)가 매우 애달파 하고 있다. 본시(本是) 수원(水源)이 부족한 본도(本島)의 지세(地勢)이니만큼 농사 철 제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밭 갈기에 매우 힘드는 땅이요. 모처럼 애쓰고 파종한 종자(種子)조차 제대로 발아(發芽)가 고르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어서 농가(農家)를 애태우다 못하여 발아된 묘종(苗種)은 위조(萎凋)되면서 그만 바싹 말라 버리기도 한다.

한발(旱魃)이 계속(繼續)되면 일거(日去) 월진(月盡) 강우(降雨)하기만 앙천(仰天) 고대(苦待)하다가 초조(焦燥)한 마음 누를 수 없어 마침내 풍우뇌단(風雨雷壇)에 기우제(祈雨祭)니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니 지성(至誠)껏 행제(行祭)를 한다. 그리하여 만시(晩時)의 탄(嘆)이나 구우하서(驅牛荷鋤)하고 유한반종(流汗反種)하게 되면 상강(霜降) 절기(節期)까지 단기간에 수확할만한 종자를 골라 메밀이나 산도(山稻) 따위로 반작(反作)하게 된다. 어차어피(於此於彼) 늦게야 번종(翻種)된 만큼 완숙되지 못할 것이다. 충실치 못할망정 농사라고 그래도 추수기가 되어 만추(晩秋)의 상강(霜降)이 당도하였음에 한심(寒心)을 지어가며

바쁘게 베어내어 밭에 펴서 말리게 된다. 그러면 지면에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펴눕인 메밀과 산도 저들은 서로가 충실치 못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 애달파하면 무엇하고 애소(哀訴)한들 무엇하랴마는 저늘 슬픈 속살거림에 추량일모(秋凉日暮)는 아랑곳 없다.

본시 이 노래는 어린 자식을 둔 연로한 사람에게 애금(哀衿)히 여겨 부른 노래다. 60평생에 자식이 없어서 늘 한탄하다가 회갑이 지났어야 늦게 신불(神佛)의 도움을 받았음인지 비로소 세상에 왔다가는 보람이라고 할까 혈흔(血痕)이라고 자식 남매를 보았다. 세상에 다시 없는 경사가 아닌가! 재롱지장(載弄之璋)이니 재롱지와(載弄之瓦)니 치하(致賀)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연로하여 졌으므로 어찌 자식이 충실할 때까지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식들은 언제 성공하고 입신양명을 바라리…….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늦게야 농사를 지었으니…. 해는 이미 저물었는데 언제 결실을 보겠는가 허! 이것 내가 노쇠했으니 말이지! 자식들도 원울(怨鬱)하겠고 사람들까지도 늦게야 농사를 지었다고 순설(脣舌)에 오르지 않을 것인가?

늬귀에 풍경

늬귀에 풍경든 집은 씨와앗아도
애긴 엇이난에 은당펭을 둥기리난
펭모개기만 되와지더라
비자리 초막살이 가난흔 집엔
애기새끼봔 웃임이더라

옮김

네귀에 風磬을 단 집은 써앉아도
아기가 없어서 銀唐甁을 굴리니
병목만 떨어져 나가더라
一間斗屋 草家살이 가난한 집에는
어린에를 두어서 우슴이더라

- 은당펭 : 은당병(銀唐甁) 銀地에 金따위로 七寶를 올린 短小한 甁
- 비자리초막(痺席草幕) : 土壁과 싸리나무와 띠로 만들어 房에는 뒷자리를 깐 一間斗屋의 貧家
- 애기새끼 : 어린애

어버이는 자식에 의하여 생활의 편의를 얻을 뿐아니라 또 위안을 얻는 데서 낙이 있고 행복이라고 느낀다. 만일 자식이 없는 경우엔 어떠할 것인가? 개와(蓋瓦) 대가(大家)에서 능라금수(綾羅錦繡)로 몸을 둘러싸고 고량진미(高粱珍味)로 포식난의(飽食暖衣)하여 생활에 아무런 부족이 없고 걱정거리가 하나없는 부호의 집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없고 보면 그 얼마나 쓸쓸하고 홀가분할 것인가. 또 여자의 남몰래 상심과 애수(哀愁) 비탄이 나올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실가지낙(室家之樂)이란 무엇보다도 첫째 아식(兒息)들이 있어서 그 양육하는 데서 그 희락(喜樂)을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네 귀에 풍경(風磬)까지 단 와가거옥(瓦家巨屋)을 둘러쓰고 금은으로 장식한 가구가 즐비하게 차려놓은 방안에 부부가 마주앉았어도 무언가 쓸쓸한 분위기가 돈다. 두말없이 자식이 없어 홀가분한 느낌이 있다. 무엇하나 즐길 낙이 될 것이 없고 무얼 웃음거리조차 없으니 위안될 것이 있을 리 없다. 하도 적적한 심정 끝에 우연히 손에 잡힌다는 것이 머리맡에 있는 단소한 은당병(銀唐甁)이었다. 위로랄까 부부 둘이서 은당병을 굴렸다. 스스로 위안을 얻고 시간을 보내자는 뜻에서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는 자식이 없음을 항상 마음 속에서 우울 한탄하던 때라 그 심리적 반응이 지나쳤던지 세게 굴리는 바람에 은당병은 방바닥에 부디쳐 그만 병목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 뒷집 가난한 종 다래기만한 일간두옥(一間斗屋) 초가집 방에는 장지(壯紙)도 드리지 못하고 비자리를 깔고 기거하는 궁한 살림에서 매우 곤란을 받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자식을 두어서 때때로 아희(兒戱)의 재롱으로 웃음이 터져나와 화기(和氣)가 넘쳐흐르고 매우 단란(團欒)하다. 말 그대로 이곧 고중생낙지(苦中生樂地)인 것이다.

이 상반되는 한 쌍의 가정의 비풍(悲風)과 감우(甘雨)야말로 「자식복」「돈복」 무엇으로 비환(悲歡)을 가릴 것인가?

대관절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으로써 의미할 것이며 근본 요소는 또한 무엇으로써 족함을 느낄 것인가?

아홉애기

아홉 애기 열 애기 난
문선왕도 소낭곽이여
애기싯젠 은곽에가랴
애기싯젠 금곽에가랴

옮김

아홉 子息 열 子息 낳으신
文宣王도 소나무 槨이다
子息있다고 銀槨에 가며
子息있다고 金槨에 가랴

- 文宣王 : 大聖至聖文宣王(孔子)

자식을 아홉이나 열이나 두신 문선왕(文宣王)도 돌아가시니 소나무 판자로 만든 곽 속에 담아 넣어 갔었다더라. 자식을 많이 두었다고 금으로 만든 곽이나 은곽 속에 담아 넣고 갈 것이더냐. 자식이 많았다고 죽은 뒤에 별다른 호강이나 있을 것이냐! 그래 자식이 많았다는 문선왕같은 성인도 나무 판자곽인데 하물며 날같은 것 쯤이야 자식이 많다한들 금은곽에 담아 갈 생각이나 할 것이냐? 엄도 뜨지 않을 생각이지. 내리사랑은 있고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다시피 품안에 안겼을 때만이 귀여운 자식이더라. 자식이 많으면 되려 걱정 근심거리만 더하더라.

만리장성

만리장성 잣 안 둘은 때
님이 가나 내가나 흔덜
만리장성 잣 둘은 후젠
님이 가덜 내 어디가랴
내가 간덜 님 어디가랴

옮김

萬里長城 잣 쌓기 前에는
임이 가든 내가 가든 間에
萬里長城 잣 둘러 쌓은 뒤엔
임이 간들 내 어디 가며
내가 간들 임이 어디가랴

- 잣 : 城

굳게 맺어진 부부애의 노래다. 만리장성(萬里長城)이란 진(秦)나라 시황(始皇)이 6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한손에 넣게 되자 북호(北胡)의 침공을 저어하여 춘추시대부터 있었던 성벽을 이용하여 소위 만리장성을 쌓아 놓았다. 아방궁(阿房宮)에서 불로불사(不老不死)의 꿈을 꾸며 연영호화(燕榮豪華)로운 생애를 누렸던 것이다. 이 만리장성!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워낙 큰 역사(役事)라 장정(壯丁)들을 징발(徵發)하면 늙어 죽는 날까지 부역(賦役)에 종사하였음에 민중에게는 난중난(難中難)이며 대사중(大事中) 대사라 아니할 수 없는 큰 고역(苦役)이었다. 그러나 왼 천하 장정들의 일이라 쌓아놓은 잣(城)이니만큼 금성철벽(金城鐵壁)인 굳은 성축(城築)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찌 붕괴(崩壞)될 염려인들 있으랴. 공든 탑이 무너질 리 없다. 이제 그 견고한 만리장성과도 같이 길이길이 서로 굳게 사랑을 약속한다 맹서(盟誓)한다는 용어로 혹은 결혼한다는 말로 형용하는 말인 것이다. 하룻밤을 자고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은 틀림 없이 둘이 굳게 부부의 맹서를 했다는 과정을 뜻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이 노래 역시 부부가 되었음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살기 전에야 님이

가든 내가 가든 그야말로 자의(恣意)로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 잣(城)을 둘러 쌓아놓아 행복한 가정, 부부생활을 하는 이상 설혹 천부당(千不當) 님이 나를 버리고 딴데로 간다칠손 내마저 우리 님을 떠나 딴 데로 갈일이 만무하며 만부당 내가 님을 버리고 먼 데로 간다기로 우리 님이야 날을 두고 먼데로 가실 일이 있으랴. 이만큼 단단히 맺어진 우리 부부는 백년해로 동혈(同穴)할 것임에 그야말로 만리장성이 붕추(崩墜)됨이 없을 것과 같이 우리의 굳게 맺어진 사이에 어찌 파경(破鏡)이 될가보냐.

돌아 돌아(달아 달아)

돌아 돌아 대보름 돌아
높이 들엉 총맹히 비추라
제석궁이 달귀 간 부미
진딜 보멍 여울로 오게

옮김

달아 달아 대보름 달아
높이 들고서 밝게 비추어라
제석궁의 부역 간 부모
진 데 보면서 여울로 오시게

- 제석궁 : 帝釋宮.
- 달귀 : 달구(집터를 단단히 다리는 일). 달귀간다면 으레 賦役(出役)간다는 말로 解釋함.
- 여울 : 물 위로 군데 군데 나타난 바윗돌. 바닷물이 써면 얕은 海面에 여울(灘)이 생김과같이 땅에도 물이 빠지는 무렵엔 군데군데 돌이니 땅이니 우뚝 우뚝 水面에 솟은 곳이 생긴다. 이 水中의 높은 곳을 바다에 생기는 여울과 같이 表現한 것은 참 興味가 있다.
- 부미 : 부모

한번 출역(出役)하게 되면 해를 지나도 귀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원(元)이 이 섬나라를 장악했을 때에도 수많은 민중을 징발 출역시켰으며 또 이조에 들었어도 그리 하였었던 것이다. 큰 궁궐을 영조(營造)할려면 각처에서 백성들을 징집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단 징발하게 되면 나가는 장정은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나위조차 없었다 한다. 지방마다 잡역의 역부로 많은 장정을 징발하여 공사의 하나인 달구질 역사에 부역하게 된다. 그러므로 달구간다면 으레 부역간다는 말로 옮겨진 것도 사실 이런데서 말한 상싶다. 달구질도 이만저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과 같이 힘을 내어 선소리에 맞춰가며 달굿대에 매달린 바를 잡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살이 타고 목이 막힐만한 내리쪼이는 폭양(暴陽) 혹은 뼈를 에이는 듯한 엄한(嚴寒)에 손발이 얼어터지기도 하는 일이었다. 아무리 나라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고통을 겪는 아버지의 안부가 날이 가고 달이 지날수록 더욱 걱정이 되며 일시(一時)라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어느 때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덧 3년이 지나 집에 남아 있는 어린 것들은 손꼽아

날을 세어가며 출역한 아버지를 무척 기다린다. 어느 사이 지루하던 장림(長霖)도 걷어 땅에는 물이 군데 군데 고여 있었다. 인제는 구름도 걷고 맑게 개인 드높은 하늘엔 보름달이 둥그렇게 솟아오른다. 앞마루에 앉아있던 여식은 달을 쳐다보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달아 달아 대보름 달아 공중에 높이 솟아올라 샐틈 없이 휘엉하게 밝게 비쳐다오. 출역하여 고생하시던 우리 아버지 돌아올 때 고인 물에 빠지지 않게 곧진 데 살펴보시면서 여울을 밟으시며 불편하지 않게 오시게.

이 민요는 저 유일무이의 귀중한 백제가요인 정읍사(井邑詞)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흥미가 있다.

돌하 노피곰도ᄃᆞ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全져재녀러 신고요 어귀야 즌ᄃᆡ를 드듸욜셰라
어느이다 노코시다 어귀야 내가논ᄃᆡ 졈그를세라

이 정읍사에서 기다려지는 사람은 행상(行商)나간 남편이요 노래한 사람은 그의 처인데 본 민요에서 기다려지는 사람은 부역나간 부모인데 노래한 사람은 그의 자녀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먼저 「달이여 높이 더 올라라」 한 것은 양자(兩者)가 같으며 오시는 길을 염려하여 「땅이 질어 불편할 터이니 그것을 밝혀다오」한 점 등(等)이 동철(同轍)이라 하겠다.

새벽녁

새벽녁히 글소리 난건
문선왕의 집이로구나

옮김

새벽녘에 글소리는
文宣王의 집이로구나

이른 새벽부터 글 읽는 소리가 유창하게 들리는데는 문선왕 공자님의 집인가 보다.

으례 동창이 밝아지면 동서재(東西齋)에서 기동(起動)한 유생들은 단정하게 차려 명륜당에 모여서 경서(經書)의 강독제술(講讀製述) 서도(書道)에 힘을 쓰며 공맹(孔孟)의 명륜(明倫)을 연구함에 여념이 없다.

이 섬에서도 이태조(李太祖)가 즉위하면서 향교를 세운 뒤로부터는 향학열이 자못 높아지고 도덕적 예양(禮讓) 민간(民間) 향풍(鄕風)의 순화(醇化)에 힘을 썼던 것이다.

향교에 출입하는 선비의 언행이 점잖으므로 일반은 모두 추앙하고 선비 양반을 동경했던 것이다.

산천 초목(一名 오방산)

산천초목 속닢이 나는데
구경가기 반갑도다
에-에 날오라 흔다
산꼴 처ᄌᆞ가 날오라 흔다

옮김

山川草木 속잎이 나는데
求景가기 반갑도다
에-에 날 오라고 한다
山골處子가 날오라고 한다

- 처ᄌᆞ : 처녀(處女)
- 속닢 : 새싹

봉지가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봄철이 남에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산천 초목에 봉지가 진다

옮김

봉오리가 맺는다 봉오리가 맺는다
봄철이 나서 봉오리가 맺는다
봉오리가 맺는다 봉오리가 맺는다
山川 草木에 봉오리가 맺는다

- 봉지 : 봉오리(蕾).
- 진다 : 맺는다.

이 봉지가나 산천초목이나 봄철 노래이므로 편의상 한데 묶어 보았다.

삼동(三冬)에 쪼그라지던 산천초목은 이제 화신(花信)을 실은 춘풍난양(春風暖陽)의 빛을 받아 지지맹동(枝枝萌動)하여 뽀룽뽀룽 꽃봉오리가 맺는다. 제비가 세류(細柳)사이로 날아 들어올 때이면 초목의 봉오리는 제비 입주둥이 모양 나풀나풀 새싹이 트고 기화요초(琪花瑤草)는 만자천홍(萬紫千紅)의 자태의 경염(競艶)으로 하여금 마치 청춘을 손짓하여 부르는냥 만산(滿山)에 홍록(紅綠)은 재빨리 춘색을 자랑한다. 만물이 소생한듯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인 이 봄 천리의 강산에 봄의 경개(景槪)를 자랑하면 지척의 천초만화는 난만(爛漫)한 가운데 봉접(蜂蝶)은 이에 얼러 춤추고 흐르는 계곡의 수류간(垂柳間)에는 춘앵(春鶯)은 노래로 조화한다. 산천이 봄이면 초목도 봄이라. 봉접도 봄 제조(啼鳥)도 봄 만물이 다 봄인데 어찌 청춘의 가슴 속엔들 무르익는 봄이 찾아들지 아니할 리가 있으랴. 산으로 들로 처녀들이 삼삼 오오 오락가락 봄을 구가(謳歌)하여 즐기는 이 경개 어찌 감상할만 아니하랴. 무삼 내홀로 울울(鬱鬱)한 방구석에서 정좌독서란 될 말인가. 시호

시호(時乎時乎)는 부재래(不再來)일진데 이 봄이 가기전 만끽춘향(滿喫春香)하리라. 싸리문을 박차고 산곡(山谷)에서 처녀가 부르는 곳으로 어서 바삐 뛰어나가지 아니할소냐.

이 봉지가나 산천초목가나 함께 50년전만 하더라도 부녀들이 곧잘 불렀던 가요인 것이니, 다른 민요는 노역과 더불어 불러 신고(辛苦)한 맛을 느끼게 하나 이 두 수의 노래는 「오돌또기」와 함께 앵무(鸚鵡)새가 서로 환우(喚友)하듯 부녀들의 사이에 은근히 정서를 주고 받으면서 모든 근심걱정을 다 버리고 만화(萬花)의 향기가 미풍(微風)에 흐늘거리는 녹음방초(綠蔭芳草) 우거진 밑에서 하루 놀이를 마련하여 서로가 위로하고 유연(遊宴)하면서 불렀던 것이다. 3,4인씩 나서서 둥실둥실 춤추며 유창하고 깨끗한 맑은 음성으로 느리게 내뽑는 가락에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이나 무아몽중(無我夢中) 어느 사이에 스스로 창공으로 훨훨 우화등선(羽化登仙)하리만큼 한유(閑有)한 노래다.

「오돌또기」는 세계 명곡중의 명곡(筆者獨評)이므로 내 감히 더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이 가요는 남국(南國)의 점잖은 여성의 정서에 맞고 그 시대의 지방색을 띄운 명랑성(明朗性)이 있는 율조(律調)이며 흥(興)이 아니면서 짙은 흥(興)이고 비(比)

이면서 농(濃)한 비가 아니며 애(哀)이면서 심한 애가 아니고 쾌(快)하지 아니하면서 명쾌하고 그야말로 깊은 맛을 담긴 율조인 것이다. 음치(音痴)인 필자는 무엇이라고 평을 가할 수 없음을 민망스럽게 여기나 여기 소개해둘 바는 대원군(大院君)이 경복궁(景福宮)을 중수(重修)할 때 특별부과(賦課) 외에 전국에 부역을 명하여 노역을 시켰었다. 심한 고역이라 출역자들은 그 괴로움을 덜기 위하여 흥을 돋우기 위하여 각 지방별로 향가민요(鄕歌民謠) 등을 불렀었다. 그때 본도 출신(失名) 중에서도 나아가 이 산천초목을 청아한 목청으로 한유하고도 모유연하고 흥미진진하게 가락을 내뽑아 불렀음에 현장역군은 물론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연 도취케 하였으며 서울 장안의 인기는 한몸에 집중되고 우뢰같은 찬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민요의 멜로디가 아닌가!

질ᄀᆞᆺ집이(길갓집에)

질ᄀᆞᆺ집이 도실낭 싱건
씬냐 든냐 맛볼인서도
지녕살인 ᄒᆞ나 엇고나

옮김

길갓집에 桃實나무 심어서
쓰냐 다냐 맛보는 이는 있어도
지니고 살 이는 하나도 없네

- 씨다 : 쓰다(苦)
- 든다 : 달다(甘)

남편이 없는 창부(娼婦)의 신세를 부른 노래라 하겠다. 노변(路邊) 가까이 있는 집뜰에 있는 복숭아나무 그것은 길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터이요 들어서서 따서 맛보기 쉬운 것이니 이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맞아드릴 수 있는 유녀(遊女)의 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처럼 길가 집에 있는 복숭아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내밀고 순간의 환락(歡樂)에는 취할 수 있으나 영원히 데리고 살아줄 어느 일정한 남자는 없더라는 것이니 그 비유가 참으로 적절하여 짧고 평범한 것같은 사구(詞句)이면서 애련(哀憐)한 창부들의 생활감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은 노변의 도실나무 신세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인가?

주주야야(晝晝夜夜) 싫든 좋든 이 사람 저 사람 맞아들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유일한 생활방편인 것이 아닌가.

앞 집 낭게

앞 집 낭게 앚안
우녀는 가마귄
누겔 가랜 울엄시니
우리 매누리나 ᄃᆞ랑가라

앞 집 낭게 앚안
우녀는 가마귄
누겔 가랜 울엄시니
옛 매누리 ᄎᆞ례로 가라

옮김

앞집 나무에 앉아서
우는 까마귀는
누굴 가라고 우는거냐
우리 며느리나 다려가려므나

앞집 나무에 앉아서
우는 까마귀는
누굴 가라고 우는거냐
옛 며느리 차례로 다려가오

남편의 장사를 끝마친 그 날밤 망부(亡夫)의 명복을 기원하는 푸닥거리에 더욱 서러워 청상과부의 신세가 된 처는 사실 눈물이 샘솟는 가운데 이튿날 새벽에 유복자인 옥동자를 분만했다. 님이 죽기 전에 낳았드라면 고인이 그 얼마나 기뻤겠는가?

흐느껴 우는 산모에게 삼신할망(産神할머니)은 이 아기를 위하여서라도 진정하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 과부는 선부(先夫)의 전무후무인 독남무녀(獨男無女)의 이 외아들 하나를 옥지금지(玉之金之)하여 모든 것을 다 체념해버리고 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고 할 일이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 아이는 벌써 이팔청춘의 씩씩한 성인이 되었다. 제법 철이 들었음인지 날마다 어머니에게 신부를 고르도록 졸랐다.

그러나 어머니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은 하늘같이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자식 결혼하면 제 아비마냥 일찍 불행이나 있지 않을가 모든 염려가 앞선다. 그러나 당가(當家)할 때인 성인이 되었으니 하고 이웃마을 어느 집의 규수를 골라 결혼을 시켰다. 누구나 다 그러한가 하겠지마는 이 자식들은 비할데 없이 도란도란 사랑을 속삭이고 속삭인다. 새벽 일찍 일어나 산으로 들로 밭으로 일을 곧잘하던 자식은 결혼

하고 나니 모든 집안 일은 그만 잊어버린듯 그저 늦잠자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으며 따라서 며느리마저 그렇고 보니 시어머니 딱하지 않겠는가.

농촌 부녀들은 의례히 어둑 새벽에 일어나 아침 먹기 전에 집안 일을 다소간 정리하고 들로 혹은 밭으로 가는 상례인데도 이 며느리는 제 방에서 해가 뜬 후까지도 냉큼 나오기가 어려웠다. 남편이 없는 단 하나의 아들에 단 며느리니만큼 시비곡절이 있을 리 없겠지만 하루는 며느리 보고 "애야 너 누구 닮어서 그리 요망(妖妄)을 잘 떠느냐"고 한즉 "뭐 누굴 닮았겠습니까? 어머니(媤母) 닮아서 그러외다"고 태연하게 대답하니 시모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떤 날 어둑 새벽에 자식의 침방 머리맡 툇마루 앞에 절구통을 끌어 옮겨다 놓고 부서져라고 쿵쿵쿵쿵 보리를 찧는 것이 아닌가. 자정이 지나 늦게야 잠든 젊은 것 둘이서 한참 단잠을 자다 갑자기 방아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아차 늦었구나 부랴부랴 일어나서 물허벅을 지고 샘터에 가서 물을 길어 정살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자 앞집에 서있는 나무가지에서 까마귀가 까아욱 까아욱 짖어 운다. 옛날부터 까마귀가 정문앞 나무 가지에서 험

상궂게 울 때이면 그 앞집에 혹은 동내에 불길의 징조라 하고 매우 꺼리는 관습이 있다.

며느리는 까마귀 소리에 공연히 설레는 가슴을 안고 마당에 막 들어서니 시어머니의 방아노래가 이렇다. 「앞집낭에 앉안 우녀는 가마귄 누겔 가랜 울엄시니 우리 며누리나 ᄃᆞ랑 가라」. 이 노래를 들은 그 며느리는 조용히 물구덕을 물팡(물구덕을 올려놓는 대)에 부려 얹어놓고 어머니가 찧어놓은 보리를 「채」로 치면서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왕 며느리를 데려 갈려거든(명부(冥府)로) 인생에 노약유서(老若有序)하다 하니 옛 며느리(시어머니) 차례로 데려갈 것이 序列로 보아 타당한 일이 아닌가. 시어머니의 노래에 며누리는 다음과 같은 풍자(諷刺)한 대요(對謠)를 불렀다. 「앞집 낭게 앉안 우녀는 가마귄 누겔 가랭 울엄시니 옛 매누리 ᄎᆞ례로 가라」.

지난날 시모도 이집 옛 새며느리가 아니였던가.

헌당수비

헌당 수비 ᄒᆞ시는 목이
헌절 수비 ᄒᆞ시는 목이
객사 부역 ᄒᆞ시는 목이
굶고 벗은 날 구대ᄒᆞ라
너 ᄌᆞ손에 공덕이 간다

옮김

헌 堂집 修理하시는 몫으로
헌 절집 修理하시는 몫으로
客舍賦役 하시는 몫으로
굶고 헐벗은 날 救濟하소
너의 子孫에 功德이 간다

- 헌 : 낡아 허물어진.

원님은 새로 도임했으면 우선 관내 민정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관풍(觀風) 찰속(察俗)하여 지방실정을 세세히 순시하여 그 정책과 방침 아울러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빈민의 구제도 긴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며 모름지기 궁민을 적극적 애무(愛撫)해야만 선정의 일책(一策)도 되는 것이 아닌가. 목민지관(牧民之官)으로 응당 해야 할 직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당(堂)과 다 헐어빠진 절(寺刹)을 수리하면서 또한 객사의 보수에 부역마저 시키면서도 빈민을 돌아보지 못한 원님에 대한 서민의 원성은 어떠했으랴. 당집이니 절간집이니 수리하는 그러한 몫으로서 빈민을 구해주었으면 오죽이나 선한 정책이랴. 게다가 헐벗고 주리는 불쌍한 궁민에게 부역마저 시키니 될 말인가. 이러한 불우한 서민들을 돌봐주지 못할망정 굶주려 허리마저 펴지 못하는 백성에게 부역마저 시킴은 타당한 정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적선지관(積善之官) 필유여덕(必有余德)이면 국태민안(國泰民安)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써야할 돈이거든 무엇보다 시급을 요하는 굶고 헐벗은 백성들부터 구제해놓고 시기를 얻는 것도 또한 양책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된 백성은 돌아보지 않고 당이니 사찰이니 객사니 많은

돈을 드리며 수리하는 것은 목민지관으로서 빈민에 대하여 그 잔인함과 무자비한 공사라 아니할 수 없다. 원님이 정사를 바로잡을려거든 민중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고 치정의 경중과 완급에 패사(悖事)됨을 빈민들이 부른 노래인 것이다. 본도에 한때 당오백(堂五百) 절 오백을 산(算)하던 때가 있었다.

ᄂᆞ 인심

ᄂᆞ 인심이 ᄂᆞ 얼만 ᄒᆞ민
유월 방이 ᄂᆞ 혼제 지리

옮김

너 인심이 너 얼마나 하였으면
유월 방아를 너 혼자서 찧겠느냐

• ᄂᆞ : 너

인간관계란 것은 사회생활하는 데서만 깊은 연관성이 있을 법한 일이다. 이웃과 이웃 사람은 친척은 아니나 옛날부터 이르기를 이웃 사촌이라고 한다. 그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연인상조(憐人相助)하는 데서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경조상문(慶弔相問)은 물론 동고공락(同苦共樂)하다시피 상호간 친밀하게 지난다는 말인 것이다. 서로가 인심이 좋은 까닭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웃이 산다고 다 이웃 사촌이라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해도 이웃끼리 돌아보지 아니하기로 인심이 좋지 못한 까닭인 때이다. 동내에서 앞집이니 뒷집이니 하여 이웃에 살았어도 아무런 통함이 없고 상문함이 없고 오고 가는 말이 없고 보면 인심이 있을 까닭이 없으리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정이 있다. 큰일이 났어도 아랑곳할 사람인들 있을까? 이 노래가 말하는 바와 같이 네 인심이 얼마만 하였기로 6월 방아를 너 혼자서 찧느냐? 네 인심이나 좋았으면 이런 삼복더위 중이라도 방아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6월이라면 삼복중인 연중 제일 더운 때인 것이다. 그러한 6월 물보리 방아를 찧는 일은 참 힘든 일이다. 어둑 새벽

에 보리를 물에 담그고 얼마 정도 부풀어 오르면 몇 말(斗)이고 일일이 조리(手苳)로 일면서 건저내어 물을 빼고 연자방아(물방애)에서 찧게 된다. 그럴때면 말(馬)과 사람으로 찧어내어도 힘이 들며 인마 함께 유한(流汗) 동고(同苦)하게 된다. 그러나 혼자서 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야에 내일 아침 말방아를 찧겠으니 품앗이(수눌어) 해달라고 이웃에 예약하여 익조(翌朝)이 조력을 얻는다. 그러나 인심이 없는 사람인 경우엔 누가 이 6월 불더위에 무엇하러 고생을 사서 남의 괴로운 일을 해줄 이가 있을까. 인심이 좋으면 이럴 때 동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삼월이라

삼월이라 삼진날엔
만리강남 제비새라
오노랭 문안ᄒᆞ고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랭 하직ᄒᆞᆫ다
구월이라 구일에는
소상강 기러기는
오노랭 문안 ᄒᆞ고
만리강남 제비는
가노랭 하직ᄒᆞᆫ다

옮김

三月이라 삼짇날엔
萬里江南 제비는
오느라고 問安하고
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고 下直하네
九月이라 九日에는

瀟湘江 기러기는
오느라고 問安하고
萬里江南 제비는
가노라고 下直하네

그래도 서로 언제 만나자고 단단히 기약을 하고도 뜻하지 않는 우연한 상치(相値)로 말미암아 그만 틈이 생겨버리면 상면치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기회의 상치로 말미암아 제비와 기러기가 상봉치 못함과 같이 님과 나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게끔 된 얄궂은 숙명을 노래한 것이다.

제비는 만리길 강남서 화창한 따스한 봄바람에 몸을 싣고 날아오는 때에는 기러기는 서늘한 바람을 타서 소소(蕭蕭)히 날아가 버린다. 또 소상강(瀟湘江) 기러기가 추풍에 밝은 달 아래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때이면 제비는 가벼운 따뜻한 바람을 찾아 강남으로 날아가 버린다.

자! 이러고 보면 기러기와 제비는 서로 만날 기회가 스스로 없으니 참 사연추홍지탄(社燕秋鴻之嘆)이 아니고 무엇일까. 님이 오기를 나날이 학수고대 눈이 빠지고 몸에 살이 여위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해 할 수 없이 기다리는 마음을 남겨두고 내가 딴 곳으로 가버렸더니 만리길을 헤치고 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하여 왔다. 하도 반가워서 소상애혼(瀟湘哀魂)이든 나는 다시 그리운 님을 찾아 왔더니 그만 그때에는 다시 님은 또 어데론지 가버리고 말았더라. 얼마나 원망하고 갔으

랴. 참 오장이 뒤집혀질 지경이다. 눈이 캄캄해진다.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쩌면 님이 다시 떠나고 말었던고 일이 이쯤 된 바에야 님을 탓할 것이냐? 님의 탓도 아닌 것 같다. 내의 잘못이더냐? 나의 그른 것도 아닐 것이다. 제비인들 제 가고파 갔으랴. 기러긴들 제 오고파 왔으랴.

이 모두가 시절이 탓일진데 님과 나 역시 제비와 기러기처럼 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구나! 숙명이란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순(舜) 임금이 동으로 행차하다가 창오강(蒼梧江)에서 그만 빠져죽었다. 사랑하는 황후(皇后) 아황(娥皇) 여영(女英) 이 두 분은 애통하던 나머지 님을 따라 혼으로 가서 우리님께 뵈오리 소상강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아무리 님을 찾았으나 도무지 보이질 않았다. 비 나리는 깊은 밤에는 이 아황 여영은 둘이서 비파(琵琶)를 뜯으면서 섧게 울며 님을 찾아 부른다. 죽어서마저 애혼이 된 상영(湘靈)의 주인공 아황 여영이 숙명이

나 제비와 기러기의 숙명과도 같이
나와 우리 님 사이에 상봉치 못한 얄
궂은 숙명, 누구를 탓할 것인가.

살챗보리

살챗 보리를 치맷자락이
전주리 나게 지어 먹은들
어느 괸당이 삼서듯 웨리

옮김

것보리를 치마자락이
누덕이 나게 찧어 먹은들
어느 親戚이 삼서듯 위하랴

- 전주리 : 옷 따위가 다헤진 누더기.
- 웨(위, 爲) : 구조, 도움.

사고무친(四顧無親)한 빈한(貧寒)한 여자의 노래다.

아무런 의지할 곳 없고 위탁할 사람도 없다. 게다가 빈한하기 짝이 없어 의식(衣食)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남의 방아나 찧어주고서 겨우 호구(糊口)하고 있다. 단 한 벌밖에 없는 치마마저 방아를 찧어주노라고 이제는 다 헤어졌으나 어느 친척이 있어서 구조해주랴. 삼(麻)이 벌려 서 있듯이 많은 친척이 있다면 그에 부협(扶夾)하고 호옹(護擁)이 될 것이지만 나에게는 일가친척도 없어 비호(庇護)와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봉생마중(蓬生麻中)에 불부이직(不扶而直)이란 말이 있음과 같이 친척이나 그 삼 서듯 나립(羅立)하고 있으면 그 덕분으로나 내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겠고 따라서 살 힘이 나지마는 또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힘이 날 것이 아닌가.

걸 두지컨

걸두 지컨 양반 걸지라
걸두 지언 양반의 걸은
질에 팽풍 둘은 간ᄒᆞ다
걸두 지언 쌍놈의 걸은
소앙가시 볼는 간ᄒᆞ다

옮김

因緣을 맺건 兩班과 맺어라
因緣을 맺어 兩班의 因緣은
길에 屛風 둘은 듯 한대요
因緣을 맺어 상놈과 맺으면
엉겅퀴를 밟은 듯 한대요

- 걸 : 서방, 남편(인연) 관계.
  예) 저 사람 새 걸이나 얻어서?, 아니 그저 그 걸에 앉아있주.

이왕 서방을 얻을려거든 양반(兩班)의 서방을 얻으라는 곧 양반을 동경하여 부른 노래다.

사실 50년전만 하더라도 이 섬에서도 양반과 상민과의 계급 차별이 우심(尤甚)하여 상민(常民)은 양반 앞에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상민 이하의 사람이 양반집에 갔을 때에는 집 댓(台)돌 아래서 엎드려 문안을 드리고 절을 하였으되 그 무슨 상민지도(常民之道)를 꾸준히 이행하는 법칙과도 같은 것이었다. 양반의 집 나이가 어린 도령님은 늙은 상민에게도 언사까지 하대(下待)하였던 것이며 늙은 상민은 자칭 소인이라거나 늙었어도 어린 것이라고 하였다. 이만큼 상민에 대한 양반 특수계급의 존귀 위엄 위의(威儀) 권세가 매우 도도하였다. 상민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동경하면서 자기의 상전과도 같이 존대하였고 양반을 위함이 지극하였다. 그러기에 될 수만 있으면 양반과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친근하려고 바랐고, 어떠한 인연을 맺어 양반의 여음(餘蔭)이라도 자기에게 미치게 될 것을 바랐다. 그러므로 이왕 결연을 맺을려거든 양반과 맺을 것이 아닌가. 결연을 맺되 양반과의 결연은 마치 자기 뒤에 병풍을 두른 것 같이 위의가 있고 도도한 느낌을 일으킬 것이다. 소

위 양반이라는 배경을 지고 그 권세에 의존할려는 곧 호가호위(狐假虎威)라 할까. 반혼(班婚)을 마음 깊히 바라마지 않았음은 당시의 사상인 것이었다. 만일 상민과 결연을 지어놓으면 자기마저 그만 위신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길에 엉겅퀴를 밟은 것과 같이 불안감이 생기고 마음에 무엇인지 깨름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서방을 얻을려거든 양반 서방을 얻어야 길에 나서도 나의 위신이 서고 상민의 서방을 얻으면 마음이 깨름할 것이 아닌가.

날랑 죽건

날랑 죽건 듹 밭디 묻엉
나 우이랑 종이듹 낳라
그 듹으로 종이랑 맨들건
삼천선비 글발에나 놀게
날랑 죽건 펄에나 묻엉
숭어 생성 몸에나 강
서울 양반 반상에 올랑
무낭 저로 갈늬나 보게

옮김

내가 죽거든 닥나무 밭에 묻어서
내 무덤 우엔 닥이 나거라
그 닥으로 종이를 만들거든
三千선비의 글월에 놀게
내가 죽거든 펄에나 묻어서
숭어 生鮮의 몸에나 들어가서
서울 양반의 밥상에 차려 올려놓고
花柳著로 갈려나 보게

- 듹 : 楮(닥나무)
- 펄 : 개흑이있는 海邊
- 무낭(海松) : 화류(黑檀)

애당초 그대로 혼자서 살 일이지. 어쩌다 외숙(外叔)의 권(勸)에 못이겨 님을 정하여 살림을 차려 님의 대종(待從)을 하면서 오래도록 잘 살려고 했었다. 그러나 몇 해도 못가서 님은 그만 서울로 돌아갔다. 아무리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 죽어서라도 님에게 가고 싶다.

내가 죽거든 닥나무 밭에 묻으면 나의 무덤 위에는 닥나무가 날 것이니 그 닥나무는 내 몸이 녹아서 거름이 되어 자라난 것이고 보면 그 닥으로 종이를 만들어내어 선비들이 그 종이에 글씨를 쓰게 될 것이다. 닥 밭에 묻지 못하거든 펄에나 묻어주면 내 몸이 다 녹아 빠져 숭어 생선 몸에 들어갈 것이니 그 숭어는 서울 양반의 밥상에 찬거리로 올려놓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나무 젓가락에 짚혀 먹게 되면 그 분의 몸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러한 번뇌가 많은 세상에서 님 그려 혼자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어서 죽어서 종이라도 되고 숭어라도 되어 그 님의 몸에 가고 싶다.

사랑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을 또 사후의 육신까지도 바치고 싶어하는 감정이야말로 오죽이나 주야로 연모(戀慕)치 아니하였으랴. 서울 양반이란 정배(定配)왔던 삼천선비의 한 분

이요 곧 내 님이었던 것이요. 그 내 님은 문필이 탁월하여 일상 종이를 애용하였고 명물 화류저(花柳箸)를 사용하여 숭어 생선을 즐겨먹었던 것이다. 고래로 정배지였던 제주 땅이었기 이러한 유의 민요가 있음은 쉬이 수긍되는 터이다.

칠월이여 초ᄒᆞ르(초하루)

칠월이여 초ᄒᆞ를 날은
잉금대왕 붕ᄒᆞ신 날이여
ᄀᆞ믈당도 비오람서라

옮김

七月이여 초하루 날은
임금大王 崩하신 날이여
가물다가도 비가 오더라

- ᄀᆞ믈다 : 가물다(旱魃)

가물다가도 반드시 7월 초하룻 날에는 비가 오고야 만다는 것이 마치 신의 조화가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일이다.

광해군(光海君)은 5대 사고(史庫)를 만들고 선조실록(宣朝實錄)을 편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출판 군사(軍事)를 장려하여 국경 방비와 외교 등등의 치적도 많이 남겼으나, 선조 때의 4대당을 비롯하여 광해군조에 벌어진 파당이 10여 5, 6 대소 당쟁이 극심하여 그중 대북(大北)들이 정권을 잡고서 왕으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고 대모를 폐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신을 유배 혹은 살해하였었다. 또 여러 차례의 옥사를 일으켜 정치가 탁난(濁亂)하여짐에 따라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능양군(陵陽君)의 군사로 하여금 광해군을 폐하게 되어 강화에 배치했다가 다시 제주도로 방치(放置)하게 되었었다. 한편 서궁(西宮)에 유폐(幽閉)되었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명령으로 능양군을 추대하니 곧 인조이며 광해군은 이곳 제주 땅에서 단기 3974년 7월 초하룻날에 죽었다. 그후부터 기약이나 한 것처럼 7월 1일이 되면 으례히 심한 한발이 계속하다가도 반드시 비가 내리므로 한많은 임금 대왕께서 붕(崩)하신 날인 까닭이라 신이 슬퍼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한 신앙심에서

나온 노래인 것이다.

혹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의아를 가지겠으나 사실 매년 이날이 되면 최소한 가랑비 그렇지 않으면 일적(一滴)일망정 꼭 오고야 만다는 것이다.

글을 ᄒᆞ멘(글을 하면)

글을 ᄒᆞ멘 글천년 살멍
활을 ᄒᆞ멘 활천년 살랴
나 오라방 쫄으던 멩에
활두 글두 말테민 ᄒᆞ라

옮김

글 배우면 글로 千年이나 살며
활 배우면 활로 千年이나 살랴
내 오빠 짧으신 壽命에
활도 글도 다 말었더라면!

- 활 : 弓.
- 오라방 : 오빠.

우리 오빠 글을 배워서 文官이 되고 활(弓)을 배우면 문무쌍전(文武雙全)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 100년이나 잘 살 것 같이 육지니 서울이니 떠돌아다니든 우리 오빠가 아니였든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금의환향하고 부모님께 효성봉양하리라든 우리 오빠 야속도 하지. 어쩌면 그다지도 수명이 짧으시던고. 글이니 활이니 아예 아니하였던들 일찍 죽지나 아니하였을 것이 아니였던가. 어렸을 때부터 맹자니 논어니 시경(詩經)이니 사서 삼경을 다 아다시피 하였고 글씨도 잘 썼으므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 하였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서울 가서 글을 하면 밥상에 밥그릇을 둘씩이나 차려놓고 먹겠느냐, 서울가서 활을 배우면 한번에 신을 두 켤레씩이나 신고 다닐 것이더냐. 아예 떠나지 말라고 애별이고(愛別離苦) 금할 수 없었다. 오빠는 3년 동안만 슬하를 하직하옵고 성공하고 돌아오겠다 하고 떠났던 우리 오빠 3년이 채 못되어 그만 병으로 죽고 말다니!

글이니 활이니 하지나 않았더라면
사별이나 아니하였을걸! 그것 때문에
우리 오빠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고 만 것이로구나!

으렁좌수

으렁좌수 첩 들지말앙
산매목지 밋으로 들라

옮김

權勢있는 座首의 妾으로 들지말고
山馬牧子의 妻로 들어라

- 산매목지(山馬牧子) : 牧場에서 牛馬를 管理하는 산지기.
- 밋 : 本妻

첩(妾)으로 든다는 것은 여자로서 일생을 두고 다시 없는 치명상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으젓하게 본처로 있다가 사주(四柱)가 세어 남편과 이별하거나 홀로 생계무책(生計無策)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첩살이로 아니 갈 수 없다. 그러나 초혼인 때에 알고서 남의 첩으로 드는 일이란 희유(稀有)한 일일 것이다. 여자의 경우와 남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본처가 죽은 사람의 후처로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여자의 절개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권력 있고 돈 많은 서방을 얻어 살겠다는 자설적(自說的) 여성도 있으나 이 노래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권력이니 금전이니 떠나 가정의 순결을 보유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권세 도도한 양반의 첩살이로 들지 말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일망정 밑(本妻)으로 드는 것이 여자의 지상영예인 것이 아닌가. 세력이 있어 위세를 피우고 으르렁대는 양반좌수(坐首)의 첩으로 들지 말고 차라리 목장에서 우마나 먹이는 천한 산직(山直)이 목자일망정 그 본처로 들어가는 것만이 마땅히 여자로서 떳떳한 강륜(綱倫)이 아니겠느냐. 하는 수 없이 본의 아니면서 남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도 칭원(稱寃)하겠거늘 왜 스스로 사서 첩으로 들어갈려

는 까닭이 무엇일까. 비록 지벌(地閥)이 낮고 지체없는 산마목자인들 어떠냐. 떳떳하고 으젓하게 본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팔자 소관 운위하는 것도 처첩을 두고 하는 말이고 본처로서 일부종사하는데서 여자의 윤리라 믿는 까닭이다.

우리 어멍

우리어멍 가는디랑
물멩지로 ᄃᆞ릴놉서
다심어멍 가는디랑
씰꼬리낭 ᄃᆞ릴놉서

옮김

우리 어머니 가는 길엔
고은 明紬로 다리를 놓고요
繼母가 가는 길엔
실거리나무 다리를 넣어주세요

- 디심어멍 : 繼母, 庶母

계모에 대한 원심을 가진 소녀의 노래다. 어찌 계모의 학대가 가혹했든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초를 당했었다. 피눈물이 떨어진다. 온 집안 일을 이 어린 소녀에게만 시키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계절 따라 의복조차 갈아입지도 못하면서 산에 가서 땔나무도 해와야 한다. 부엌에선 밥이 빨리 끓지 않는다고 부지깽이로 후리는가 하면 방아간에선 힘있게 밀지 않는다고 빗자루로 후려치기, 냇가에선 빨래가 잘 안되었다고 방맹이로 쥐어박기. 이리하여 온 몸둥아리는 꺼뭇꺼뭇 상흔이 만신(滿身)하여 목불인견이 되고 말았다. 나무를 해올 때면 「하루 종일 살고도 겨우 요 것 뿐이냐」고 실거리나무로 후려갈기니 온 몸엔 피투성이가 된다. 자릿 자릿 쓰리고 아픔을 참지 못하고 견디다 못하여 울음이 터지면 갖은 악담 지거리, 커다란 년이 울긴 왜 우냐고 또 매질을 한다. 이와같이 계모의 학대가 심할 때마다 죽은 생모의 그리움이 용솟음친다. 이런 악모에 대한 원심과 두려움보다 무섭기 짝이 없고 비참한 날을 아니 보낼 수 없다. 그러다가 계모는 우연히 급환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 사람이 죽고 나면 슬피 우는 것이 여자의 상정(常情)이겠지만 이 처녀의 경우는 달리

지난 날의 자기의 고초를 생각하면서 이런 악독스런 계모도 죽는 날이 있었더냐, 복받쳐 오르는 원통함을 누를 수 없어 이런 노래로 넋두리를 하면서 신에 비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 가시는 삼도(三途)의 강에랑 곱게 다듬은 물결 같이 연한 명주로 다리를 넣어 조금도 고생함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지나가도록 해줍소서. 계모가 가는 저승길인 삼도의 강에랑 그 지긋 지긋한 몸서리나는 실거리나무로 다리를 넣어 줍소서. 그러하면 한 발 옮기고 두 발 옮겨놓을 때마다 저도 아픔을 당해 볼 것이 아닌가요. 그럴 때면 아무리 악독스런 계모일망정 그럴싸하고 생각이 날 것이 아닌가요. 죽은 뒤에 원한의 보학(報虐)을 이러한 노래로 저주하는 것이었다.

가시오름 강당장

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시쿨방애 새 글럼서라
전싱 궂인 이 내몸 가난
다숫 쿨로 새 맞첨서라

옮김

加時里 강堂長宅에
세꼴 방아 사이가 틀리더라
前生 궂은 이 내몸 가서는
다섯 꼴로 사이를 맞히더라

- 가시오름 : 地名.
- 당장 : 書院에 딸린 下隷.
- 전싱 : 전생, 출생전의 세상.

전생 궂은 이 내 몸인 까닭에 이 생에도 무슨 놈의 팔자가 험하여서 첫 살림을 오붓이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동지서지(東之西之) 남의 방아나 찧어 주면서 코밑에 구멍이 원수라 죽지 못해 살아 왔다. 그러던 차에 어떠한 기연(奇緣)으로 가시리(加時里)에 있는 강당장집까지 굴러와보니 세꼴방아를 찧는 소리가 제대로 맞지 않고 사이 사이 걸러서 틀렸더라. 전생부터 팔자 궂은 이 내몸 방아나 찧어 얻어 먹으라고 타고난 팔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들어서니 세꼴은커녕 다섯 꼴로 찧어도 방아 조절이 잘되더라.

세꼴방아라면 세 사람이 각자 절구공이를 들고 순차(順次)로 간단없이 3박자의 리듬으로 찧는데 그중 한 사람이라도 서툴어 박자에 어긋지면 그만 시간과 공간 기술의 조화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은 한 순회(順回) 사이를 걸러야 한다. 그러나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나간에 그중 한 사람만이라도 기술이 능한 사람이 끼어있으면 동작과 박자의 율(律)을 제대로 잘 조화시키면서 찧어낸다.

다섯꼴 방아라면 다섯 사람이 절구통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공이를 높이 치올리면서 찧는다. 매우 어렵다. 한 사람이라도 그만 박자가 틀리게 되는 때면 홈에 두 공이가 함께 들기가 쉽고 부상하기도 한다.

ᄌᆞ늬 ᄯᆞᆯ(자녀 딸)

ᄌᆞ늬 ᄯᆞᆯ은 호서도 호서
단 치매에 단 두르더라
뭣인 단을 둘러니 ᄒᆞ건
대궁대단 문 두르더라

옮김

恣女딸은 豪奢도 豪奢
單치마에 단을 두르더라
무슨 단을 두르더냐 하거든
대궁大緞 무늬를 두르더라

- ᄌᆞ늬 : 자녀(恣女), 娼婦.
- 대궁대단 : 명주실로 짠 비단의 하나.
- 문 : 무늬(紋)

잘 산다는 집의 부녀(婦女)들마저 필요 이상의 의상을 두어 몸을 치장하는 이 극히 희소(稀少)하다. 그러나 집안에서도 여자로서는 최소한 몸을 가릴 치마는 한 벌쯤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기껏 한 벌만 가졌어도 마음 속에서 매우 비할 데 없을 만큼 희희작약(喜喜雀躍)하여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흙에 파묻혀 사는 농촌부녀로서는 사실 치마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착용할 시간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고 감물(柿汁) 드린 갈중이면 족하다. 간혹 치마를 입고 나서면 「이거 호사(豪奢)했구나」 하는 동네 같은 부인끼리 욕조(辱嘲)도 나오리만큼 치마를 입을 기회마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환경과 하는 일거리에 따라 의복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 착용함도 다른 것이요, 철에 따라서 옷을 바꾸어 갈아입기도 할 것이 아닌가. 더구나 창부(娼婦)라면 사실 깨끗이 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호사라기보다 으레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릴 것 없이 의복차에 유난히 유의하는 공통적인 흘러 내려오는 전통성이라 할까. 매양 의복과 침구 기타 등등으로 응분의 사치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넉넉하지 못한 창녀(娼女)가 매우 호사함을 좋아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한마을에 사는 부녀들이 저 자녀(姿女)는 참 호사도 호사지. 아니 글쎄 단 한 벌밖에 없는 치마에다 단마저 두르고, 그것도 대단(大緞)으로 무늬를 놓고 입는 것이 아니냐 하고 동네 순박한 농부들이 창녀의 지나치게 호사함을 조롱하여 부른 노래다.

밤에 들곡

밤에 들곡 밤에난 님아
어느 고을 뉘란둥 알리
정살밖에 청버들 낭게
이름성명이나 즉아두엉 가라

옮김

밤에 들고 밤에 간 님아
어느 고을 누구라고 알리
대문(大門)밖에 청(靑)버들 나무에
성명이나 적어두고 가오

- 정살문 : 대문(大門). 제대로 된 대문(大門)이 아니라 정낭(橫木) 2, 3本을 얹어 놓은 정도로서 牛馬의 禁線이다. 낮에는 사람이 不在中이라는 標識임.

밤중에 어느 중산촌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나그네가 있었다. 더듬더듬 불빛이 새는 촌락을 찾아 어떠한 집 한 채를 발견했다. 몸도 지쳤고 야밤이라 더 갈래야 갈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염치도 차릴 사이 없이 정살문을 넘어들어 앞마루 문을 두들겼다.「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더 갈 수 없으니 하룻밤 유숙할 수 없느냐」청했었다. 한참 말이 없고 우스스 찬바람이 냉한 땀 묻은 등을 스친다. 방 안에는 중년 과부 홀로서 독숙공방에 적막과 홑어진 공상과 수심에 잠을 못 이루는 판이라 또 사막에서 물을 그리듯이 몹시 사람을 그리던 때가 아니었던가. 별안간 난데없는 한 줄기의 찬바람과 함께 소낙비가 사정없이 퍼 뿌려든다. 비 내리는 이 어두운 밤중에 거절하기에는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이 아닌가. 그 나그네의 청을 순간적으로 무심히 아니 받을 수 없었을 것이었다. 그보다도 과부의 가슴 속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애수가 은근히 움직였던 것이다. 얼른 지게문을 열었다. 외로운 과부와 알지 못하는 그 나그네 둘은 한 들보 밑에서 소낙비와 어두운 밤은 때를 같이 하여 조용히 지났던 것이다.

닭이 울고 동이 밝아온다.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될 나그네의

사정 또 나홀로 산다고 하여 그 나그네를 붙잡을 수도 없는 과부의 처지. 밤에 들고 밤에 가는 님 어느 고을 누구인지? 알길이 없다. 단 하룻밤이라도 그러한 기연(奇緣)으로 한 방안에서 지낸 바에야 누구인줄이나 알고자 했을 것임은 틀림없는 정회(情懷)가 아닌가. 어떻든 나가는 님아 정살문 밖에 서 있는 버드나무에 성명 석 자만이라도 적어두고 가오.

칠성ᄀᆞᆺ이(칠성같이)

칠성ᄀᆞᆺ이 벌어진 괸당
담ᄆᆞᆯᄀᆞᆺ이 흔골에 뫼영
푸내 좋멘 우애나 좃나
낭한디엔 그늘이 좃나
외낭게의 돔박낭 ᄀᆞᆺ이
외로난 일이 설워라 흔다

옮김

七星같이 벌려져 있는 眷黨
澹月별 같이 한고을에 모이여
家統이 좋으면 友愛가 좋다오
나무가 盛한 덴 그늘이 좋건만
홀로 서 있는 柊栢나무 같이
외로 낳은 내 身勢 설어워한다

- 괸당 : 一家眷屬.
- 담ᄆᆞᆯ : 澹月, 겨울 별자리의 하나.
- 푸내 : 家風家統.

북두칠성이 벌려 있음과 같이 드믄 드믄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권당(眷黨)이라 한들 친밀하지 못하리라. 이 내 몸도 동촌에 하나 서촌에 하나 가믐이 콩나물인양 한 권당이 떨어져 있으니 왕래가 드물고 자주 상종인들 하랴. 외롭기 짝이 없다. 그렇지 말고 담월(澹月)별과 같이 한고랑에 모여 있으면 상연상부(相憐相扶) 서로 의지하여 지날 수 없을까. 남과 남 사이에도 그러하겠지마는 경조상문(慶弔相問)은 더 할 말 없고 고락을 같이 할 것이 권당으로서 의당 할 일이 아닌가. 가통이며 가풍이 좋은 집 사람들은 정의(情誼)와 의리가 두터워서 매우 우애가 깊다는 것이지마는 뿔뿔이 헤어져 있으면 아무런 우의(友誼)도 없을 것이고 더 소원(疎遠)해지고 아무런 우애도 있을 리 없다. 또 고독해져서 권당이라 하여 아무런 힘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한 곳에 집단해 있으면 그 그늘을 믿고 서로 비호(庇護)하고 상부상조 융합결속이 되면 서로 그 그늘을 믿으며 어떠한 외환에도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이 아닌가. 수목도 기엽(技葉)이 무성하면 그 그늘이 좋다는 것이다. 외로이 선 동백(柊栢)나무처럼 내 홀로 태어난 아무런 의거(依據)할 그늘이 없으니 만큼 설어워하지 않겠는가. 고안(孤雁)이 독비격(獨飛格)으로 동지독(東之獨)이요 서지독(西之獨)이니 유독 처세할려니 외롭지 아니하랴.

간장썩듯

간장썩듯 술 썩엄시민
이자린덜 내 잊아지랴
고비고비 어느 말고비
간장만이 썩은 말시리

옮김

간장썩듯 살을 썩혀 있으랴면
이 자리인들 내가 앉아질 것이더냐
고비고비 말고비 끝마다
간장만큼 썩은 말 있으랴

- 간장 : 肝臟.
- 술 : 살(膚).
- 이 자리 : 이 집.
- 고비 : 말(言)하는 기회.

속을 썩히다 못해 겉 살마저 썩히니 더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며느리의 애탄(哀嘆)을 부른 노래다.

내 간장(肝臟) 어지간이 오랫 동안 묶혀 썩혔다. 이제는 오장을 태우고 썩히다 나머지 살(膚)마저 썩히고 보니 내가 더 살아 있을 수 있겠느냐. 속을 태우다가 이제는 겉마저 썩힐 지경이 초발부복(焦髮腐腹)이라더니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원 집안 사람들이 말 마디마다, 말끝마다 말고비마다 악담과 욕설이 그만 골수에 박혀 썩다 못하여 이제는 살에까지 번져 썩는구나. 안방에선 저녁이나 굶은 듯이 시모는 오물거리는 입술로 악담과 망담(妄談), 건너방에선 시누이가 참새마냥 뾰쪽한 입부리로 횡담(橫談)과 험담 맹세지거리로 탕탕 욕설을 퍼붓고 게다가 사랑방에선 웬걸 님마저 허담짓거리로 긴 호령 짧은 호령으로 야단을 친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있는 일이다마는 이건 몇 해를 두고 날마다 성화이니 간장은 이미 썩어빠지고 이제 남은 살마저 썩히지 않으랴. 그래도 속에 들어 있는 간장은 얼마든지 썩히다 터져나가도 남이 알 바가 아니였다. 그러나 이제는 밖이 남아 있는 살마저 썩히자니 더 참을 힘이나 있겠느냐. 차라리 이 자리(이집)

를 떠나 님하고 갈릴지언정 더 앉자 백일 수 없다. 부수지소(膚受之愬)란 말이 있더라마는 이젠 더 썩힐 살조차 없고 보니 어찌 한단 말이냐.

원수님은

원수님은 외낭긔ᄃᆞ리
ᄃᆞ린무사 ᄒᆞ나이던고
원수손아 질막두말라
ᄎᆞ승 원수다 난 아니노라

옮김

원수님은 외나무 다리에
다리는 왜 하나이던고
원수야 길을 막질 말어라
차승 원수지 저승 원수는 아닐다

- ᄎᆞ승 : 이셍(此生).

부부 사이에 사랑하면서 의좋게 지나다가도 일조(一朝)에 어긋지어 그만 서로가 갈리게 되면 남(他人)이 되고 마는 일이 있다. 원수가 된 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도 하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었던고.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참 얄궂기 한이 없는 노릇이다. 그 원수님을 피하고 다니다가 하필이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줄이야 생각이나 했던가. 이것 참 딱한 일이 생겼구나.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되었구나. 그러나 원수님아 내가 가는 길이나 막지 말아다오. 그 뭐 살부지원수(殺父之怨讐)가 아니거든 지난 날 지은 원수는 어떨 값에 또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 이상 더 원수야 맺을 것이 무엇이더냐. 이 생엣 원수나 되고 말지, 저승까지 끌며 또 삼생원수(三生怨讐)야 될 게 무엇이냐. 원수님아 나의 하는 일에 나의 앞으로 나가는 모든 범사에 대하여 방해를 하지 말아라. 또 간섭도 말어라. 일체 아는 체도 할 필요도 없지 않으냐.

강남바당

강남 바당 비지여 오건
제주 바당 배놓지 말라
멩지 바당 씰ᄇᆞ름 불엉
넋이 부미 돌아나 오게

옮김

江南바다에 비가올 듯 하건
濟州바다에 배 띠우지 말라
명주바다에 실바람 불어서
넋이 부모 돌아 오시게

- 부미 : 부모(父母).
- 멩지 : 명주(明紬).
- 씰ᄇᆞ름 : 실바람(細風).

남녘 강남쪽 하늘에 새까만 구름이 끼어 비를 몰아올려 거든 아예 제주 바다에 배를 띄우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도 강남으로 가는 해남(海南)항로에 있는 이어도(離於島)에선 황파(荒波)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난파를 당하여 해중고혼(海中孤魂)이 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노래의 주인공의 아버지도 불귀의 객이 되었으므로 날마다 애한(哀恨)으로 날을 보내며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남쪽 하늘을 바라보곤 장한(長恨)의 비탄을 하고 있는 터이다. 아버지는 강남장사로 일행과 더불어 떠났었다. 바람이 자고 잔잔한 물결 바닷가엔 아버지를 띄워보낸 처자들은 멀리 날리는 칠색기치(七色旗幟)가 안 보일 때까지 바라다보며 석별의 정의 눈물을 먹음기도 한다.

이듬해 봄 딴 일행이 돌아온 편에 소식을 듣자니 폭풍우로 인하여 그 항해잡관(雜關)인 이어도에서 난파가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 깊은 원한에 잠긴 처자들은 남천(南天)의 검은 구름을 바라다보곤 한없이 비탄을 하는 터인지라 하물며 날씨가 좋아도 제주바다는 물결이 세다는데 더욱 이 강남 하늘이 우기(雨氣)가 끼었으면 자못 물결이 거친 것이니 배를 띄우지 말라는 것이다. 저와 같이 우기가 끼일 적엔 자못 거친 물결이

일어날 것임에 그럴 때면 어찌 우리 아버지 영혼인들 고이 돌아올 수 있으랴. 명주결과도 같은 온유한 잔잔한 바다에 미풍이나 불거든 우리 아버지 영혼이라도 그 실바람을 타고 돌아오시게. 사면환해(四面環海)인 제주에서 특히 어촌의 생활이란 그날 그날의 천기가 어민 생활 감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예를 이 노래에서 볼 수 있지 않으랴.

집 신 년아

집 신 년아 집 자랑 말라
밭 신 년아 밭 자랑 말라
어욱 닷뭇 새닷뭇 드련
짓언 보난 삼칸일러라

옮김

집 있는 년아 집 자랑 말아라
밭 있는 년아 밭 자랑 말아라
억새 닷 뭇 띠 닷 뭇 드려서
지어서 보니 三間집이더라

- 집 : 家
- 밭 : 田

집 있는

넌아 집이 있다고 자랑 말며 밭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뭐더냐.

집 없는 설움이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설음을 짐작조차 못하리라. 매우 빈한(貧寒)하여 남의 집 방을 얻어서 근근히 품팔이하면서 지내오는 동안 집주인 여편네가 자주 「집 없는 주제」라고 빈정대고 나무람을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 때마다 칭원(稱寃)한 심정은 누를 수 없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에 땀을 쥐고 어떻게든지 오막사리 집일망정 한채 마련할 작정으로 단단히 마음 속에 맹세해 본다. 그래서 성문 밖에 빈터를 얻어 놓고 부부 둘이서 며칠을 두고 산고지(山高地)에 가서 부지런히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을 세우고 서리를 얹어놓고 억새와 띠(茅)를 베어다가 지붕을 덮고 흙으로 벽을 칠하고 비와 바람을 막고나니 훌륭한 집이 되었다. 당당한 초가삼간이다. 비록 삼간두옥(三間斗屋)일망정 떳떳한 내 집이다. 남에게서 아니꼬운 소리 원통한 말을 들을 필요조차 이제는 없어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붓한 안도감이 난 것이다. 이제는 자유의 휴식처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남의 집 겹방살이에 늘 상심을 하다가 이제는 제법 집을 가지게 된 것

이다. 그래서 집을 가져 자랑하고 구박하던 그 여자에게 대하여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총각차라

총각 차라 물에나 들게
양석 싸라 섬에나 가게
회미 죄라 물에 들게
비창 죄라 점복 떼게

옮김

總角을 맺어라 물에 들자구나
糧食을 싸라 섬에 가자구나
호미를 쥐어라 물에 들자구나
匕鎗을 쥐어라 全鰒을 따잔다

- 총각 : 總角.
- 차라 : 結髮하라.
- 비창 : 全鰒같은 것을 따는데 쓰는 칼같은 器具.
- 회미 : 낫, 미역을 캐는데 쓴다.

해녀들은 물에 들어가서 잠수작업을 할려면 우선 간편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두발조치에 특히 유의하게 된다. 수중에서 종일토록 잠하부상(潛下浮上) 도입직출지속지서(倒入直出之東之西) 임의로 물을 저으며 빠른 동작으로 작업을 하게 되므로 머리가락이 풀어지지 않게 미리 후두부에 안전하게 쪽져 결발(結髮)시켜야만 한다.

어기가 한창인 때에는 본도 외의 소속 도서에까지 2, 3주간 혹은 타지방 육지에까지 멀리 출가하게 되면 2,3개월은 걸릴 때도 있어 식량을 부대 등에 싸넣고 도구를 정비한다.

넓은 바다 깊은 물 속의 주인공인 해녀는 서슴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해중의 모든 신비를 색출해낸다. 그러나 제아무리 깊고 넓은 바다를 요람으로 하고 그 포옹(抱擁) 속에서 자라났다손치더라도 깊고 험한 물 속에서 채취작업을 할 때면 숨을 죽여가며 재빨리 일을 해야한다. 손과 발로 휘적거리며 강한 수압을 헤치며 날쌔게 생복(生鰒)을 따고 미역을 캐내어 물 위로 떠올라야 한다. 해녀의 심해중에서의 묵묵한 고투(苦鬪)는 해녀 그 자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창연(愴然)! 수중에서 몸부림치면서 숨을 죽여 조릴대로 조

리든 허파는 물 위에 솟아 오르는 순간 한꺼번에 급히 숨을 돌려쉬게 되면 지친 소리와 함께 강한 휘파람소리로 변한다. 그 휘파람 소리는 오직 비창(悲愴)한 소린지 처량한 소린지 비원(悲願)의 호소성(呼訴聲)인지 알 수 없는 표현이 아닌가. 획득했다는 환호성으로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더욱 허공에 남기는 음향이야말로 신이 인생에게 준 마지막의 슬픔의 멜로디인양 수음(愁音)은 하늘 높이 떠오르고 사라진다.

이슬과도 같은 짧은 인생에 긴 슬픈 녹음 미완성의 인생탄향곡(人生嘆響曲)인가. 살을 에이는 삭풍의 겨울바다 물 속에서도 목숨을 물 위에 띄워 놓고 삶을 위한 해녀의 창파(蒼波)와의 고투는 쉽게 헤아릴 수 없다.

저 ᄃᆞᆯ ᄀᆞᆺ치(저달같이)

저ᄃᆞᆯ ᄀᆞᆺ이 광멩ᄒᆞᆫ 손이
누룩 닮앙 거령풍 말라

옮김

저 달같이 光明한 이가
누룩 닮아서 허풍 치지 마오

- 광멩 : 광명(光明).
- 누룩 : 麴.
- 거령풍 : 허풍(噓風).

신의가 없고 진실하지 못하고 실없이 호언장담만 치는 남자에게 호소하고 훈계하는 뜻으로 부른 노래다. 용모나 풍채나 된 품이 달(滿月)처럼 뚜렷하고 환한 이가 왜 저리 허풍이 많으냐. 외모가 남자답게 잘 생기고 뚜렷할 바에야 그 마음 역시 응당 변함 없는 지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참되고 명대(明大)하련마는 저리 허풍만 피우고 보니 그 실속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가슴 속에 누룩같은 것이 들어있는 게지. 누룩은 술을 빚어내는 원료인 것임에 술 잘 먹는 사람일수록 진정 진실치 못하고 허풍이 센 것이다. 그러나 이 남자는 술을 안 먹었어도 허풍이 세고 보니 필시 저 뱃속에 누룩이 들어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예 누룩 닮아서 허풍 떨지 말아라. 남아일언(男兒一言)이 중천금(重千金)이 아니겠느냐. 순 팔풍이 같은 이로구나.

지집애기

지집애기 낳은 이들아
먼디씨집 보내지 말라
갈땐보난 영화로 가고
올땐보난 우넘굿이러라
화단뒤에 ᄇᆞ레여 보난
청너울광 흙너울 새에
흐르는건 눈물이러라
설운애기 솜솜ᄒᆞᆫ 얼굴
눈에솜솜 열위염서라

옮김

계집아이 낳은 이들아
먼 데 시집 보내지마오
갈 때보니 榮華로 갔어도
올 때 보니 울음굿이더라
화단뒤를 바라 보니
청너울과 흙너울 사이에
흐르는건 눈물이더라
설운애기의 얼굴이 삼삼하다
눈에 삼삼하여 맴돌더라

- 화단 : 花壇(喪輿). • 너울 : 麻布로 맨든 女子喪服의 하나.
- 솜솜 : 삼삼(눈에 선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손녀가 시집갈 때 보니 화기찬란(華綺燦爛)하게 장식하여 그야말로 응장성식(凝粧盛飾)이랄까. 참 호화롭게 잘 차려서 가더라마는 올 때에 보니 울음의 굿이 되었더니라. 상여 뒤에는 청너울을 쓴 젊은 부인 흙너을을 쓴 중년부인들 한없이 슬퍼 눈물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있더라. 얌전하고 착실하여 언행이 단정할 뿐 아니라 마음씨나 용모까지 어여쁨으로 훌륭한 규수라고 소문이 자자 하거늘 시내 어떠한 부귀한 집에 정혼이 되어 만단(萬端) 준비를 하고 호화로운 잔치를 차려 출가시켜서 앞날에 행복 있기를 마음 속에서 빌어 마지 않았었다.

어쩌다가 병이 나서 백약도 효험이 없이 손녀는 그만 죽고 말았다. 시집이 멀기 때문에 할머니는 자주 찾아가 보지 못했으므로 죽었어야 원통함을 더욱 느낀 것이다. 그래서 딸 자식을 둔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를 불렀다. 시집을 보낼려거든 먼 데 보내지 말라. 장사날이야 가 보았더니 울음굿이 되었구나. 죽은 손녀의 이쁜 얼굴 다정한 그 마음씨 이모저모 생생하여, 눈 앞에 삼삼하여 맴돌고 있어 도무지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구나.

우리 귀여운 애가 그리 쉽게 죽을줄이야! 꿈만 같구나. 무상(無常)한 세사(世事) 생무전변(生無轉變)이 덧없이 헛되다 한들 참 일조(一朝)에 영락(榮落)이 이와같단 말이냐.

지서멍

지서멍강 오름옛 돌은
둥글당도 살을매 난다
놈의첩광 소낭긔 ᄇᆞ름
소린나도 살을매 엇다

옮김

지어미와 山에 있는 돌은
딩굴다가도 살맛이 난다더라만
남의 妾과 소나무의 바람은
소리는 나도 살맛이 없다더라

- 지서멍 : 지어미(賢淑婦人, 賢母良妻, 主婦).
- 살을매 : 살힘, 살맛, 살道理.

첩으로 들어간 여자가 탄식하여 부른 노래다. 내가 첩으로 들어오자 본처는 학대를 받다가 마침내 그 친정으로 굴러가 버리니 눈시울에 달린 혹 땐 것 마냥 시원하기 짝이 없고 마음을 턱 놓았다. 그러나 1년이 채 못 되어 님은 나를 박대하기 시작하더니 요새 와서는 못 살게 들볶는구나. 그러자 어느 사이에 본처를 되맞아들였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이란 말도 헛말이면서 보본반시(報本反始)란 말이 있는게로구나. 아니꼬운 심사와 칭원(稱寃)함을 누를 수 없고 참기가 막힐 일이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아무럴 값에 지서멍은 되돌아 들고 산에서 구르던 무용지물로 알고 귀찮은 돌맹이도 용차(用次)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마는 참 그렇구나. 그러나 남의 첩은 소나무 가지를 울려서 울고 있는 바람과 같이 굉장히 소리는 나나 그 실은 아무런 쓸데 없는 것이로구나. 누구는 아무게의 몇 째 첩으로 들어갔느니 요 아랫마을 아무게는 어느 동네 부자집 첩으로 갔느니 하고 일시에 소문이 자자해서 온 마을에 파다하게 소문만 퍼진다. 이러한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살림도 그대로 잘 되었어야 할 터인데 첩살이 살림 그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놈의 꼴이란 말이냐. 첩살이는 한결같이 안도감이 없고 안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른 년이지 무엇에 미쳐서 첩으로 들어왔단 말인고. 패입패출(悖入悖出)이란 말이 있다더라마는 님이 아니면 왜 첩으로 들어온단 말인가, 후회막급이로구나.

이어도ᄒᆞ라

이어도 ᄒᆞ라 이어도 ᄒᆞ라
이어 이어 이어도 ᄒᆞ라
이어ᄒᆞ멘 나눈물 난다
이어말은 마랑근 가라
강남을 가는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해라

옮김

이어도여 이어도여
이어 이어 이어島여
이어하는 소리만 들어도 나 눈물 난다
이어도 말은 말고서 가라
江南가는 海南길로 보면
이어島가 切半이라더라

- 이어도(離於島, 離虛島) : 濟州島의 西南海中에 있다는 섬.
- 강남 : 江南(中國).

섬나라이니만큼 도민은 해상생활을 하지 아니치 못했으리라. 바다를 떠나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곤란했으리라고는 속단할 수 없으나 좌우간 그 근거를 바다에 두고, 무역은 해양을 통하므로서만이 이루어지는 절해고도가 아닌가. 섬에서 낳으면 요람은 바다가 될 것이며 파도치는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자라난 도민은 바다를 떠나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고 바다밖에 바다를 또는 대륙을 동경함도 무리가 아니었으리라 장성하면 넓은 해양을 활무대(活舞臺)로 삼아 해외로 진출하고 발전을 기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섬의 문화는 해양을 타서 유입되었던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해외무역상들이 내왕의 빈도가 많아지면 따라서 도민 중에도 역시 무역하기에 해외로 왕래하는 상인들이 없지 않고, 멀리 교역시장을 구했을 것이다. 오리(五里) 보고 십리(十里) 간다는 상인의 충고라면 거리(巨利)를 앞에 두고 일시적인 이별쯤야 예상사가 아닌가. 이별이라는 안타까운 정에 이끌러 중리(重利)를 경시할 수는 없는 일일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처자와 이별하여 멀리 시장을 찾아 강남인 중국 지방을 멀다 아니하고 자주 왕래함이 그때의 상인의 일상생활인 것 같이 여겼다. 돛대를 높게 울긋불긋한 칠색기치(七色旗幟)로 만식(滿飾)한 무

역선은 왕래 무양(無恙)하기를 기도하여 해신과 성황(城隍)(배지키는 신)에게 엄숙하게 분향하고 제를 올린다. 치는 북소리와 부는 적(笛)소리로 음악을 올리며 각기 선중에선 합장배례를 하며 정중하게 파제(罷祭)한 뒤에는 닻(錨)을 올려 서서히 남해 바다로 뱃머리를 돌려 몇 주야 혹은 몇 삭(朔) 동안 끝이 없는 만경창파(萬頃蒼波)에 배는 떠흘러 간다. 한편 남아 있는 처자는 뒤뜰 깨끗한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왕래 무사하기를 백배 기원한다. 시일이 지나면 출항한 배는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배는 열 척이면 2, 3척에 지나지 않는다. 그 귀환한 배 편에 소식을 들으며 남은 7, 8척은 강남 가는 해남 항로의 절반 길인 이어도(離虛島)라는 섬에서 그만 난파되고 말았다는 이 한없는 슬픈 소식이 아닌가. 이 애통한 소식 남은 처자들은 그만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처자들은 불귀의 객 해중고혼(海中孤魂)이 된 님을 추모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으며 황파(荒波)에 쌓인 절해고도에서 남편을 해중으로 띄어 보내 놓고서 돌이키지 못할 한에 속 아퍼하는 청상과부의 애타는 심회(心懷)를 되풀이 하기에는 너무도 심수(心邃)하여 헤아리지 못할 것이 아닌가.

돌도 지는 지게

돌도 지는 지게가 셩
낭도 지는 지게여 마는
우리어멍 날지운 지게
놈이 ᄇᆞ린 뒤 지게러라

옮김

돌도 지는 지게가 있고
나무도 지는 지게이지마는
우리 어머니 내게 지운 지게는
남이 쓰다 버린 헌 지게더라

* 셩 : 있어서.

돌을 지는 지게가 있고 나무를 지는 지게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돌을 지는 지게로 나무를 질 수는 있을 법도 한 일이다마는 우리 어머니는 남이 지다가 버린 헌 지게를 나에게 지운 것이다. 하필이면 남이 지다가 버린 헌 지게를 내게 지게 할 것이 무슨 까닭인가. 어쩌면 우리 어머니도 야속도 하지. 이왕 지게를 지우려거든 돌 지는 지게건 나무를 지는 지게건 간에 골라서 새 지게를 장만해줄 일이지. 무슨 까닭인지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다.

세상에는 허구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필이면 늙은이를 골라서 남편으로 정해 줄게 뭐냐 말이다. 젊은 여자로서 응당 남에게는 이야기 못 할 내심 불만이 있음직도 한 일이고, 늙은 남편을 정해준 어머니를 원망함도 무리가 아닐 것이 아닌가.

줌을캐(잠을캐)

줌물캐간 줌을자곡
비양도간 빙들어당
죽성오랑 죽어지엉
곽지에강 곽을차곡
쇠돈에강 쇠를잡앙
송당에강 송장묻곡
소섬오랑 소상ᄒᆞ곡
대정에강 대상ᄒᆞ곡
다위오랑 담제ᄒᆞ라

옮김

잡을 캐 가서 잠을 자고
비양도 가서 병을 들고서
죽성에 와서 죽거든
곽지에 가서 곽을 싸고
쇠돈에 가서 쇠를 잡아다가
송당에 가서 송장을 묻고
소섬에 와서 소상을 하고

대정에 가서 대상을 하고
다위에 와서 담제를 하라

- 즘물캐, 비양도, 죽성, 곽지, 쇠돈, 송당, 소섬, 대정, 다위 : 地名.
- 빙 : 병(病).
- 곽 : 槨.

마을 이름과 사람의 생사(生死) 초종제(初終祭)를 유사음(類似音)으로 결부시킨 일종의 희요(戱謠)인 것이다. 20여 년이나 지났어도 본처에는 소생이라고 하나 없다. 처는 한탄으로 날을 보내다 못하여 사찰에서 백일재계(百日齋戒)까지 하여 불공을 들여도 정성이 부족인지 복을 받지 못했는지 무슨 까닭인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당을 불러다 굿도 해보았다. 복가(卜家)에서 묻기도 했다. 자식을 못 볼 팔자라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풍문에 남편은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자식을 두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처는 그만 치밀어오르는 분함과 화를 누를 길이 없었다. 님은 장사합네 하고 1년을 처 놓고서 집에서 자는 날이 적다. 몇 해 동안이나 그러하였다. 오늘은 장사에서 돌아온다는 일자인 것이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내는 저녁 무렵이 되어 님이 들어오자 마자 멱사리를 잡고 「이놈아」 하고 늘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은 비양도에 갔다가 병을 앓고 오는 길이었다. 처의 입에서 이런 노래로 원저(怨詛)한다. 이럴 때면 노래라기보다 「이놈아」 전주(前奏)를 넣어가면서 악담과 맹세지거리로 변해버린다. 내게 아기가 있을만 한 때면 집에서 잠자지 않고 네가 장사한답시고 촌으로

돌아다니며 외박을 하니 내게 아이가 있을 리가 있겠느냐「이놈아」. 네가 장사한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시피 죽어 귀신이 된 후에도 한 집에서 얻어먹지 못하고 이복자식이 아홉이나 산재하고 있으니 동서남북 귀(鬼)가 되어 각처로 떠돌아다니면서 얻어 먹으라고 이런 노래로 저주하였다.

관장살이

관장살이 놈의집 살이
괴던방도 두어근 간다
죽엉가멘 썩어갈 괴기
산제기영 놈이나 괴라

옮김

官長살이나 남의 겹방 살이로
아껴쓰던 房도 두고서 간다
죽고나면 썩어버릴 肉身
산 때 기어서 남이나 求愛하라

- 괴던방 : 恒常 아껴 使用하던 房.
- 기영 : 기어서(活動), 몸을 움직여서, 일하여.

관장살이나 남의 집살이란 모두 잠정적인 생활터전일 것이다. 이 말은 인생이란 역여과객(逆旅過客)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즉 인생이란 어찌 보면 오랜 길을 가던 나그네가 잠깐 동안 들러 머물은 여숙(旅宿)집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인생은 어데론가 가야 하는 것이고 얼마 후에는 죽어서 썩어버릴 육신인데 죽기 전에 부지런히 노력하여 일하고 타인을 위하여서 보람있는 일을 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으로서는 보람있는 일이 아니냐는 소박한 도민의 인생관을 노래한 민요인 것이다.

귀한 몸인 관장님도 재임하다가 떠나가실 때면 일상 애용하던 방을 두고서 간다. 지어(至於) 남의 겹방살이하던 사람까지도 떠날 때에는 그 사용하던 방을 남겨두고 간다더라.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길 죽고 나면 썩어버릴 육신이 아니냐. 살아있을 동안 그 몸을 움직이고 일이나 하여 곧 활동하여서 남이나 구애(救愛)해 주려므나.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좀체로 근로하지 않고서 그와같이 몸을 아껴 지중(至重)히 여긴들 죽을 때면 너는 죽고 그 몸덩어리는 세상에 남겨둘 것이더냐. 인생은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데서 세상에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니 네가 할 일이 없거든 남이나 위하여서라도 일해주어 남이나 구애할 줄 알려므나.

강남서도

강남서도 드러온 새야
일본서도 드러온 새야
오늘가저 낼가저 ᄒᆞ는
청대섶에 이실이 지언
놀개젖언 못놀암서라

옮김

江南서도 들어온 새야
日本서도 들어온 새야
오늘 간다 내일 간다더니
청대잎에 찬 이슬이 내려서
날개가 젖어서 못 날더라

- 청대섭 : 青竹葉.
- 놀개 : 날개(羽).

강남서도 들어오고 일본서도 들어온 새가 오늘 간다 내일 간다고 하면서도 필경은 청대숲(藪)에 이슬이 내려서 날개가 젖어 못 날고 있더라.

몇 세기를 거슬러 오르고 보면 본도의 주민의 조상 가운데는 기허(幾許)는 강남(中國)이나 혹은 일본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마지 못하여 토착해버린 이도 있다는 것이다. 유구도(琉球島)와 본도와의 관계가 있던 사실(史實), 벽랑국(碧浪國 : 일본)의 사자가 본도 열운리(閱雲里) 연혼포(延婚浦)에 내박(來泊)한 이래 그네들의 통래(通來)라든가 또 원시대 몽고군이 장기간에 걸쳐 주둔함으로써 그 내왕 또한 원의 지배적 세력에서 수많은 대소관(大小官) 등속(等屬)의 수행(隨行), 목장 설치(設置)로 인한 관리인과 목자의 내왕 혹은 남방 중국에서의 내왕이 빈번하였음은 사실일진데, 몽(蒙)·왜(倭)의 언어 풍습 주택 양식 등 오늘날까지 다분히 산재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옛날에 해외에서 자주 내왕했던 것은 틀림없고 개중에는 귀환하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라 한다. 강남서 일본서 들어온 사람이 고국에 돌아갈 작정으로 오늘 간다 하더니 떠나지 못하고 또 내일이면 떠난다고 하고도 다시 그대로 주저

앉아 떠나지 못했으리라. 풍랑이 심하게 되거나 혹은 짙은 안개가 오랫 동안 끼거나 모진 바람이 불거나 하면 하는 수 없이 지연이 되고 또 연기되면서 물결치는 바다를 원탄(怨歎)하면서 바라보곤 고국에 남겨둔 처자의 그리운 꿈인들 파도치는 소리에 어찌 깨어지지 않으랴! 연기되는 장시일에는 또한 누를 수 없는 현실 사정에 끌려 떠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때를 같이 하거나 연유가 같거나 다르거나 좌우간 내도(來到)한 그네들은 고국에 가지 못함을 생각함에 향수와 같은 심회(心懷)가 미상불 없지도 아니 하련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사정에 얽매어져 있는 것이다. 청대숲에 이슬이 내려 날개가 젖어서 못 날게 되고 만 것이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심려야말로 어찌 아니 동정할소냐마는 현실 사정에 얽매인 그 정경(情景) 심회가 더욱 안타까울 것이 아닐까. 곧 나를 진정으로 정성껏 객고(客苦)를 위로해주며 어느 때나 곁에서 도란도란 말해주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고 어느덧 10년 깃드린 단란한 가정과도 같이 그 사이에는 자녀마저 몇 남매 낳아 귀엽게 자라난다. 아빠 아빠하며 재롱도 부리며 사뭇 따른다. 그만 애정이 푹 쏟아지지 아니할 리가 있겠는가. 내 골육을 나눈 인륜인

것이다. 또한 집안에서 이것 저것 살림살이를 하느니 하다가 덧없는 세월은 흘러가고서 세월은 다시 겹처옴에 그만 희미하게 된 고국은 깨어진 춘몽과도 같이 어느덧 사라진 지 이미 오래 되고 말았다. 뉘라서 얼핏 어델 떠날 생각조차 날 것이며 용기인들 있을 것이냐. 강남 수성에 생을 받아 어쩌다가 외로운 이성(異城) 탐라에 흘러와 버릴 수 없는 현실 사정에 끌려 여기서 제 여생을 아니 보낼 수 없는 몸이 되고야 말았던 것인가.

머리 삼갑

머리삼갑 등에 논적인
부미동싱 잇어라마는
삼갑머릴 육갑에 닿난
부미동싱 허세라 흔다

옮김

머리삼단 등에 흘린 때엔
부모형제가 있더라마는
삼단머리를 六단에 땋으니
부모형제도 허세란다

동기간(同氣間)은 나면서부터 결혼할 때까지는 한 집안에서 부모 슬하에서 그야말로 다정하고 화락(和樂)하게 자라난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겠지마는 여식들은 출가외인이란 말이 있다시피 혈연적으로는 내 언니요 내 동생이지마는 하루 아침에 머리를 얹고 결혼해 가버리면 사실상 남의 집의 사람과 다름이 없이 되고 만다. 일이나 있을 때면 1년에 한두 번 오거나 말거나 하게 되면 차차 정이 소원해지고 인제는 제법 흉을 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게 된다.

결혼하기 전에야 내 것이네 네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가리지 않고 부모의 사랑도 골고루 받아가며 비할 곳이 없을 만큼 다정하고 지극한 우애로서 지내왔다. 그러나 일단 시집을 간 후에는 부모의 힘도 입을 수 없고 동기간의 사랑도 입을 수 없게 멀어진다. 먼저 낳고 나중에 낳았을 따름이니 그 실은 참 같은 뼈이며 같은 피가 아닌가. 동기 연지(連枝)란 말도 시집가기 전에 할 말이지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이 아닐까?

처녀 때 삼단으로 땋아 등에 흘려 놓았던 머리를 풀어 양쪽 삼단씩 두 갈래로 나누어 육단으로 땋아 둥근(圓者)머리로 올

려서 결혼하게 된다.

「삼단에 땋았던 머리 육단에 땋았다」는 대유(代喩)는 묘미(妙味)있는 표현인 것이다.

씨아방은 구쟁기

씨아방은 구쟁기 넋이
나를보멘 새들컥 흔다
씨어멍은 점복의 넋이
나를보멘 오지직 흔다
씨누이는 코생이 넋이
나를보멘 호로록 흔다
서방님은 문개의 넋이
나를보멘 엉쿠정 흔다

옮김

시아버지는 소라의 넋
나를보면 새뜻한다
시어머니는 全鰒의 넋
나를보면 실룩거린다
시누이는 고맹이 넋
나를보면 홀랑거린다

서방님은 文魚의 넋
나를보면 엉겁질한다

- 넋이 : 넋, 얼, 魂, 精神.
- 새들컥 : 새뜻(점잖은 태도).
- 오지직 : 실룩실룩(얼굴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뜻)
- 호로록 : 홀랑홀랑, 홀랑거림.
- 엉쿠정 : 엉겁질, 능청맞게, 끈적끈적 달라붙는 모양.

해녀의 며느린가 보다. 시가(媤家)의 인물들의 성격을 어개(魚介)의 습성에 비유하여 부른 노래라 하겠다.

온 집안 인물의 마음씨나 언사나 그 행동 태도가 모다 내가 일상 보는 어개에도 비슷하고나.

시아버님은 소라의 후신(後身)인지 그 넋이는 소라와도 같아 그 태도가 새뜻하여 엄중하게 점잖음을 보이며. 시어머니는 전복같이 공연히 실룩거리며. 시누이는 나만 보면 홀랑거리는 고맹이 넋이인지 매우 경거(輕擧)하고 언행 태도가 자못 경솔하다. 게다가 서방님은 문어와도 같이 엉큼 엉큼 여덟발을 펴고 엉킬려고 드는 것 같다. 온 집안에 이러한 인물들의 넋이가 이렇고 보니 이러한 환경 속에 끼어 살자니 어찌 잠시 사이인들 편안할 것이냐.

실픈일랑

실픈 일랑 기린 듯 ᄒᆞ라
성도 언만 가시어 시리
ᄒᆞ당 말멘 놈이나 웃나
양귀 잡앙 채친 듯 ᄒᆞ라
보리 방애 전ᄀᆞ득 놓안
매눌애기 지드렴서라
씬감 든감 먹을 때 셈엔
매눌애기 엇이믄 혼다

옮김

하기 싫은 일이거든 그리운 듯 하라
성가시게 얼마만큼 괴로웠더냐
하다가 두면 남이 웃지 않겠나
양끝을 잡아서 힘내어 시원하게 하라
방아에 보리를 판 가득히 놓고서
며느리만 기다리고 있더라
쓴감 단감 먹을 때엣 셈에는
며느리가 없었으면 하더라

• 전 : 방아밑판, 언저리.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있겠지마는 연자방아를 찧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면서 고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기야 누구든지 힘들고 고된 일은 저 혼자서 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하기 힘든 일이라고 싫어 말고 오히려 그리워 좋아하듯이 시원스럽게 해치우면 성가시고 괴로울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해야할 일이니 이왕이면 힘을 내어 휘어잡고서 시원스럽게 해치울 것이 아닌가. 제 힘에 맞지도 않게 방아판에 가득 보리를 넣고서 며느리 오기만 벌벌 기다리지마는 쓰건 달건간에 감을 먹을 때 속셈에는 그 며느리가 없었으면 하는 시어머니가 아닌가.

아무리 일을 부려먹기 위한 며느리기로서니 힘든 일 괴로운 일은 며느리에게만 시키면서도 맛있는 것은 내 혼자만 먹을려는 매몰스럽고 오랑캐같은 시어머니의 심사가 아닌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필요한 때는 실컷 부려먹다가 다 부려먹고 나면 아랑곳 할 필요도 없고 돌아보지 않는 야박한 인정을 풍자(諷刺)한데 묘미가 있는 노래다.

물(말)방애(연자방아) 찧기는 혼자서는 안 된다. 마소의 힘으로 찧어냄으로 물방애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만도 찧어내나 적어도 3, 4인의 힘을 얻어야 한다.

신엇임도

신엇임도 하도나 설완
ᄀᆞᆺ수물에 ᄋᆞ든님 거난
두불 시불 물덜은 밥을
씹어도랜 앙업일러라

옮김

신 없음도 하도 설어워서
갓 스물에 八十老人과 맺으니
두 불 세 불 물들어 익은 밥을
씹어달라고 앙읍이더라

- 앙업 : 앙읍(怏悒), 不滿.

인간생활에 있어서 아주 만족스런 상태란 있을 수 없는 것을 은근히 노래한 것이다. 곧 하나가 만족하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하여 욕구에 충족이란 바랄 수 없다는 가난한 젊은 여자의 안타까운 심정의 노래다.

짚신! 기껏 잘 신어야 일순(一旬). 그러다가 밑바닥이 다 헤지면 신날이 떨어지기 전에 뒤집어서 신을 만큼 여자에게는 헤어지기 전에 제때 제때 얻어신기 어려운 필수품인 것이므로 여자에게는 큰 걱정거리의 한 가지인 것이다. 일부 여층(女層)에서는 갓신(장신) 혹은 수혜(繡鞋) 따위의 마른 신을 사용하긴 하나 이것은 극히 드물고 으레히 초혜(草鞋) 사용이 보통인 것이다. 이 구차한 젊은 여자 신발이 없음이 하도 답답하던 끝에 슬퍼하다 못하여 에라 이왕이면 신발이나 제때에 잘 얻어 신을 작정으로 짚신을 잘 삼는다는 나이 팔십이나 되는 노유(老臾)를 남편으로 혼정(婚定)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일가 보냐. 꽃다운 이팔청춘에 팔순노백(老白) 그 원수의 것, 신이 없어서 날마다 슬퍼하다가 이제부터는 그 걱정거리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으리라 긴 한심(寒心)과 더불어 마음을 턱 놓았다. 어딘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제 안도감이 생겼다. 그러나

웬걸 식사 때마다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던 것이니 이것은 망령이라기보다 기괴망측한 일이 아닌가. 여러 차례나 뜸을 드리고 질게 익혀 놓은 밥을 이 노인 남편은 쌀이 익지 않어 딱딱하다 하여 씹을 수가 없다느니 이가 없어서 도무지 먹을 수 없으니 마누라가 잘 씹어서 먹여 달라고 불만 앙앙(怏怏)하는 것이 아닌가. 아뿔싸 이 일을 어찌한담.

둙이 울멘(닭이 울면)

둙이 울멘 날이나 샌다
내사 울멘 어느날 새리
내사 설완 울어라 마는
어늬 어멍 날 울멘 ᄒᆞ리

옮김

닭이 울면 날이나 새지만
내사 울어서 어느날 새나
내야 설어워서 울지마는
어느 어머니가 날 울라고 하였으리

닭은 울면 날이 샌다고 하지마는 내야 아무리 울던 간에 어찌 날이 샐 리가 있을라구. 내야 부모도 없고 동기간도 없고 친척도 없고 님도 없는 몸이니 게다가 즐길만한 아무런 재미(滋味)는 커녕 희망도 없는 몸이니 무슨 세상을 살 맛이나 있으랴. 쓸쓸하기 짝이 없구나. 고독한 몸이니 스스로 적막해지고 이럴 때에 정답고 친한 벗도 없으니 더욱 남 몰래 혼자서 슬퍼지는 것이며 이 슬픔이란 네게만 있어야할 것이며 울고 살라는 것은 내게만 주어진 구실이더냐. 이러한 나의 서러운 사정이 아니 우는 날이 없을 만큼 치마폭이 눈물로 마를 새가 없구나. 어머니나 있으면 왜 울 까닭이나 있으랴 어머니가 있었으면 혹이나 슬픈 일이 생겼어도 애소(哀訴)하고 나면 시원해질 것이지마는! 그렇다고 어느 어머니가 있어서 울라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조차 없고 보니 더욱 내스스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닌가. 울음이 내 친한 벗이고 울음이 내 사랑인양, 전생에 우리 어머니 울면서 나를 낳았는지 눈물로 세상을 보내라는 팔자인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살아서도

살아서도 살을매 엇엉
어서죽엉 혼으로 가서
혼이몸이나 기근간들
어너어멍 연반상 꾸명
저승문을 을아나 주리

옮김

살아서도 살 힘이 없어서
어서 죽어 魂으로 가서
혼의 몸이나 기껏 간들
어느 어머니가 延飯牀을 꾸며
저승門을 열어주랴

- 살을매 : 살아나갈 힘, 살 도리, 살 맛.
- 기근 : 기끈, 기껏, 힘을 다하여.
- 연반상(延飯牀) : 채짓상(差使牀).
- 저승門 : 冥府門.

고독함을 고독함을 부른 노래다.

내가 죽지 못하여 살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무슨 힘으로 더 살리 있겠으며 또 살 맛이 없고 보니 어서 죽어야만 하겠구나. 내가 산다 하기로서니 한 세상을 두고 무슨 보람이라도 있을까 그렇다고 가 얼른 죽는다손 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길 사람이나 부지깽이 하나 있을 것이더냐. 죽고 나서 기껏 혼으로나 저승에 간들 느 어머니가 있어서 저승에 들어가는데 채싯상(差使牀)을 차려 놓고 굳게 잠긴 저승門인들 얼른 열어줄 것인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병을 고치러 간다고 떠난 뒤에는 종무소식이었다 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먼 곳으로 재가해 가서 어느 마을에 살고 있다는 말은 희미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이러고 보니 어머니마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죽어 저승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마지막 상을 차려놓고 반겨서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나 어데 있단 말인가. 누구든지 사람은 죽으면 으레히 저승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 몸 죽은 뒤에도 맞아(迎)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보니 가야할 저승마저

갈 수 없고나. 이것 참 고단도 고단하지. 죽은 귀신이 된 후까지도 또 외로운 신세 될 것을 생각하니 진퇴양난이고 심산 유곡이로구나. 살든 죽든 길에서 방황할 것이니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이런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라고.

흰죽

흰 죽 쑤엉 대왈에 들언
간장이나 썩이멍 들라

옮김

흰 죽을 쑤어 대접에 들고
속마음을 썩히면서 들라

- 대왈 : 대접(大接).
- 간장 : 마음속(肝臟).

님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한 분이였다.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마는 님은 몸을 움직여 하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구태여 일거리라면 겨우 공부를 합네 하고 책상을 받아 앉아 독서하는 것만이 다시 없는 큰 일일게다.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밖에 나가서 무얼 활동하는 일이 없고 그저 어둠침침한 방안 구석에 틀어박혀 앉아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날을 보낸다. 시아버님은 우리의 결혼하기 전에 죽었고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있을 따름이나 두 분은 매우 부지런하여 밭에 나가는 날이 많고 집에 들면 방아찧기와 채마도 가꾼다. 단촐한 가정이다. 님은 내가 들어온 후부터 점점 몸이 약해지기만 하고 차차 여위기 시작하였다. 그럴수록 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한시라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밖에 일도 제대로 볼 수 없으리만큼 곁에 있어야만 했다. 물론 밤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다가 약한 몸에 병이나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 며느리는 님에게 입버릇마냥 말하는 것이다.

과연 님은 여월대로 여위어 안색마저 노랗게 되면서 자주 자리에 눕게 되었다. 보다못해 시할머니는 손자 며느리 보고 딴 방을 차려서 자라고 몇 번이나 타일러 주었다. 「얘야 네

시부(媤父)도 일찍 죽고 종가(宗家)의 집에서 제마저 까딱 실수하면 우리 집안은 그만 망할 수밖에 없고 넨들 팔자가 좋을 것이냐」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님의 병세가 점점 악화함에 따라 마음을 조리고 속을 태우며 간장마저 썩히고 있는 터인데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어지간히 그 괴로움과 부심(腐心)이 가실 수 없다. 또한 남의 말하기 좋다고 동네 부녀(婦女)들은 그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그 신랑은 병이 생겼느니 병으로 죽게 되었느니 3년 동안이나 흰 죽을 쑤노라고 얼마나 속을 썩혔을까 하는 것이다. 죽을 쑤어 대접에 담아 들고 님의 병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마저 위다안소(危多安少)랄까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그저 속을 썩히지 아니하랴.

요새 저새

요새 저새 은양 말라
츰새도사 제 은 깐에
아이맺인 구물에 들엉
발을 매연 도눌암서라

옮김

요 새야 저 새야 약은양 말어라
참새야말로 제 약은 깐에도
아이가 맺은 그물에 들고서
발을 맺어 되날고 있더라

- 다 : 약다(역다).

이 새니 저 새니 새들 가운데에도 제 몸에 비하여 제빠르고 제일 약다하는 참새깐에도 어린애가 맺아놓은 그물에 들고서 날개와 발이 결박이 되고 빠져 나올 수 없게 되어 그물 속에서 되날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제만 약다손 치더라도 방심 부주의하다가는 제보다 약지 못한 어린 사람에게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세상에는 저만 약은 사람일거니 자부하다가도 저 이상에 약은 사람이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로운 때에는 재빨리 덤벼드는 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리하게 될 때엔 재빠르게 혼자서 빠져 그에 무관한 것처럼 수수방관하는 약은 사람도 있으나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발을 빼지 못하여 우려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음직한 일이다. 제깐에는 날만큼 뛰는 놈이 있으랴! 하지만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 바에야!

원두살곡

원두 살곡 신사랑간다
요원ᄀᆞᆺ이도 소리도나리야

옮김

元님도 살고 臣도 살다가 간다
요 元님만큼 말썽이 많으랴

여러 차례 많은 원(元)님들이 살다가 가고 또 많은 신(臣)도 아무런 말썽이 없이 지내다가 가곤 했었다. 그러나 원님치고 요 원님만큼 웬걸 말썽이 많아 민중 사이에 소리가 자자하느냐 말이다.

공사(公事)는 공사 대로 내버리면서 날마다 사인교(四人轎)를 타서 많은 관기(官妓)를 데리고서 관속(官屬)들을 따르게 하고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대로 사시(四時)를 두고 그저 외유(外遊)를 일삼는가 하면 농사철 한창인데도 무슨 놈의 부역이라 하여 출역시키니 그렇지 않아도 손이 모자란 농번기인데 딱하지 아니하랴. 그런가 하면 죄없는 양민을 붙들어다가 주뇌(周牢)를 틀고 억지로 없는 죄명을 씌워가며 벌조(罰條)를 징수한다. 민정(民情)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지나친 부세(賦稅)와 월권(越權)이 자행된다. 민중은 원님에 대한 치닥거리만 하다 보면 이만저만한 폐가 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므로 민중은 누구랄 것 없이 이구동음(異口同音)으로 자못 원님에 대하여 원성이 높게 되고 그만 원님은 민중에게 어지간히 신임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 많은 사람이 원님으로 살다가 갔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관속(各官屬)으로 살다가 갔지마는 그

리 말썽이 없었다마는 어찌 요 원님같이도 소리가 많은가 말이다.

이 노래는 민중이 관원에 대한 해학적인 원의(怨誼)의 민요인 것이다.

※

民謠中(前妻疏薄. 밤에들곡. 원누살곡)

이 3수의 민요를 불렀다가 득죄(得罪)한 부인이 있었다. 헌종4년 이원달(李源達) 목사 때 마항동(馬巷洞)에 거주하는 오진사의 부인이 하절석양(夏節夕陽)에 이웃 부인들과 같이 납량차(納涼次) 앞뜰에 평상(平床)을 깔고 모여앉아 이 노래 저 노래 골라 서로 가요를 부르며 진사부인도 전부터 익숙히 알고 있는 전기 민요3수를 불러 좌중이 모인 부인들과 함께 해학적인 세사(世事)로 하여금 한 때를 즐겼던 일이 있었다. 그 며칠이 못 되어 이 소문이 전해지고 정보를 접한 이원달 목사는 노발대발하여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당장에 오진사의 부인을 붙들어다가 문초를 했다. 「네 이년 그런 노래를 불렀다 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첫째 양반의 가문을 더럽힌 요망

한 계집이요. 둘째 부녀의 윤리 도덕상 풍기를 더럽힐만한 노래니 망칙함이 비할 데 없고, 셋째 관원에 대한 방자스런 무엄함과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진사의 부인으로서 어찌 감히 입을 벌려 그따위 노래를 불렀던고」. 필경은 네 년이 노래와 같은 소행임이 틀림이 없다 하여 그만 일조(一朝)에 상민(常民)에 항등(降等)시켜 관비벌정(官婢罰定)을 당했다는 사실이 있다.

ᄀᆞ랑좁쏠(가랑좁쌀)

이어 이어 이어동 ᄒᆞ라
ᄀᆞ랑 좁쏠 늬엇이 먹엉
놈의 어멍 말엇이 살라
말을 ᄀᆞ랑 우심을 흔들
속광 셈사 어디사 가리
좁쏠 만이 살을매 시민
놈의 집도 사름이 살랴
ᄀᆞᆯ아 입을 옷이나 시민
놈의 집도 사름이 살랴
낭지레가도 청포대 치매
물지레가도 청포대 치매
ᄀᆞᆯ아 입을 옷이나 시민
놈의 집도 사름이 살랴

옮김

어이 이어 이어도여
가랑좁쌀 뉘없이 먹고서
남의 어머니 말없이 살려므나

말을 하여 웃음을 한들
속과 셈이야 어디 갈거냐
좁쌀만큼 살 집이 있으면
남의 집도 사람이 살겠느냐
갈이 입을 옷이 있으면
남의 집도 사람이 살랴
땔 나무 지러가도 靑袍치마
물 길러 가도 靑袍치마
갈아 입을 옷이 있으면
남의 집도 사람이 살겠느냐

- 늬 : 뉘, 죽대기, 피.
- 속 : 마음.
- 셈 :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실.
- 살을매 : 살 힘(道理).

남의 집 살이하는 극히 빈한(貧寒)한 소녀의 노래다. 서속을 상식(常食)으로 하는 본도에선 서속 등의 조제(稠製)는 뉘니 모래 알이니 교잡물(交雜物)이 들지 않게 깨끗하게 장만한다. 그 뉘 없는 깨끗한 좁쌀을 먹고 사는 남의 어머니가 말하기 좋다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그 뉘 없는 좁쌀과 같이 깨끗하여라. 남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디잔 좁쌀을 먹고 산다기로서니 왜 그리 좁쌀과 같이 잔 말이 많으냐. 하기 좋다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해놓고는 나만 보면 시침이 딱 떼고 아니한척 되레 나를 웃음으로 대하나 너의 마음속이야 어데 갈 것이냐. 양심이 있거든 너의 가슴 속에 들어 있는 속과 셈이 입증할 것이 아니냐. 네 속이야 뻔하지 않으냐. 뉘 없는 밥을 먹었어도 네 마음 속에는 커다란 뉘가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네가 시비를 하다시피 나는 좁쌀 알갱이만치라도 살 힘이 있다면 사람으로서 무엇하려 구차스럽게 남의 집 살기를 좋아서 하겠느냐. 갈아 입을 옷이 있다면야 내 스스로 즐겨 남의 집 살이를 좋아서 하겠느냐. 땔나무를 하러가도 또는 물길러 갈 때에도 그저 청포치마 단 한 벌밖에 없구나. 이 구복(口腹)이 원수라 아니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호구(糊口)할

려니 속상하고 별 아니꼬운 말 다 듣는구나.

남이야 어떨 값에 잘하든 못하든 남의 집 살이하든 말든 청포대치마든 주단치마든 네게 무슨 상관이나 있더냐.

나주영산

나주영산 휘양ᄒᆞᆫ 쏠에
제주일산 붉은 픗에
저바당이 북조기 생성
빙든 부미 소심ᄒᆞ더라

옮김

羅州 榮山 輝煌한 쌀에
濟州一産 붉은 팥에
저 바다의 붉은 조기 생선
병든 부모께 효심하더라

- 휘양 : 휘황(輝煌).
- 북조기 : 붉은 조기.
- 생성 : 생선(生鮮).
- 부미 : 부모(父母).
- 소심 : 효심(孝心).

부모장병(父母長病)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더구나 구차한 집에선 더욱 그러하리라. 병든 부모의 의약(醫藥)은 두말 할 것 없고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때에 공양해 드리기에는 빈한한 살림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가운 심정이 없지도 않을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토박(土薄)한 본도에는 논(畓)이라곤 없을 만큼 적으므로 전작(田作)인 보리나 좁쌀로 상식(常食)을 하게 되며 관혼상제(冠婚喪祭) 명절이나 백반(白飯)을 보게 된다. 이 백미(白米)마저 전라도 방면에서 유입해 들이므로 귀하고 고가(高價)이므로 얼른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앓아 누운 부모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랄 값에 집안 온 식구에게는 예대로 서속(黍粟)을 먹으나 병든 부모에게는 감지봉양(甘旨奉養)해야 할 자식의 도리로서 기름지고 빛고운 나주(羅州)와 영산포(榮山浦)에서 산출하는 쌀로 본토의 명산인 빨간 팥을 넣어 팥밥을 지어놓고 저 바다에서 나는 붉은 조기 생선으로 국을 끓여서 구미있게 하여 병든 부모님께 공대(供待)한다. 이 부모는 팥 넣은 쌀밥에 붉조기 생선국을 좋아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날마다 봉양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효심이 지극하다고 칭송이 자자한 것이다. 산저육(山猪肉)을 먹고

싶다는 어머니 혹은 산계(山雞)를 찾아 혹은 이어(鯉魚)를 구할려고 산에서 빙강(氷江)에서 하루 종일 헤매는 자식의 효성도 갸륵하겠지마는 그 옛날 본도에서의 쌀밥으로 부모에게 봉양했다는 것은 좀체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닌만큼 이는 효심이 지극하다 아니하랴.

초싱둘(초생달)

초싱둘은 반둘이라도
팔만국을 저우렝뵌다
이내몸은 온몸이라도
팔만국을 저우레지랴
님이신디 내모를레라

옮김

初生달은 半달이라도
八萬國을 기우려본다
이내몸은 온몸이지만
八萬國을 기우려 볼 수 있으랴
님이 계신 곳 내가 모르겠네

님이 출타한 지도 이미 오래 되지만 가신 곳조차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날이 가고 달이 돌아온다. 시시각각으로 님 생각이 간절하여 가슴 속에서 좀체로 사라지지 않는다.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오늘도 초생달이 서천(西天)에 떴다. 초생달만 보아도 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걷잡을 수 없다. 그러나 저 초생달 눈섭만한 반달 조각달이지마는 온 천하민국(天下萬國)을 샅샅이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이 내몸은 저 달저럼 반달이 아니라 곧 완전하고 무결한 전신이면서도 천하만국을 왜 훑어 볼 수 없을가? 차라리 내 몸이 저 초생달이나 되어서 온 천하를 내려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님이 계신 곳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지마는, 아참 속이 뒤집어지고 괴롭구나. 저 조각달만도 못한 신세로구나.

잘 산덴 ᄒᆞ나(잘 산덴하나)

잘산덴 ᄒᆞ나 못산덴 ᄒᆞ나
붉은 양지 지미나 보라

옮김

잘산다고 하나 못산다고 하나
고운 얼굴에 기미나 보라

- 양지 : 얼굴.
- 지미 : 기미(甚한 괴로움 때문에 얼굴에 생기는 얼룩진 기운).

사람은 의식주가 족하면 아무런 근심과 괴로움이 생길 일이 없고 기름진 음식과 의복을 차리고 큰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안거하면서 호화롭게 잘 살 때에는 살결이 곱고 광택이 나고 얼굴빛이 붉고 화색이 난다. 이럴 때면 누구든지 참 그 집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잘 지낸다고 말들을 한다. 혹은 아마 그 집은 식구도 많고 먹는것조차 형편이 아니래! 바꿔 입을 옷이 없어서 그 모양인가 보다 등등으로 잘 산다느니 못 산다느니 세상 사람들은 괜히 남의 시시비비를 곧 잘 한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시비하는 사람의 덕에 잘 잘못 사는 것이 아니지마는 여하간 빈부를 두고 남의 말을 좋아한다.

그 얼마나 살림에 시달렸던지 이쁘고 아름답던 그 얼굴에 기미마저 끼었다. 그 사람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얼굴에 끼인 기미를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아니냐. 얼마나 괴로운 살림이었던가를! 그 기미가 생긴 것을 보면 빤한 일이 아니냐 말이다. 사실 가세가 빈곤해지면 괴로운 사정만이 곧잘 생긴다. 이러한 때면 가장 상심과 고통을 겪는 것은 주부일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억지로 참고 견디려는 괴로움의 매듭이 얼굴에 기미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 마

음 속에 남몰래 병이 생기다 못해서 얼굴에 마저 기미가 나타
나게 되는 것이로구나!

낙낙장송

낙락장송 느려진 가지에
홀로 아자 우녀는 새야
날만 보멘 시시로 울어
우리님 죽은 영혼인가 흔다

옮김

落落長松 느려진 가지에
홀로 앉아 우는 새야
날만 보면 볼 때마다 울어
우리님 죽은 靈魂인가보다

우리 나라에선 새가 사람의 영혼으로 여기는 민속이 많다. 새와 인간과의 관계를 맺음이 많아 특히 오작(烏鵲)이라든가 원앙(鴛鴦)이라든가 두견 비둘기 같은 새는 여러 가지의 설화중에 등장한다.

슬퍼우는 새를 보고 내 님의 죽은 영혼인가 하여 자기의 비애를 거기 묶어 놓은 노래다.

축축 늘어진 소나무 가지에 제 홀로 앉아 나만 보면 슬퍼우는 저 새 왜 저렇게 처량하게 울어 나의 속을 더 쉽게 구는거냐. 필경은 우리 님의 죽은 영혼이 아닌가. 님은 죽어 저승에 있고 나만 이생에 살아 있으니 죽은 님인들 날 생각 아니할까. 새인들 짝이 없을소냐. 저 새도 날 못 잊어 다른 사람보고야 어이울긴들 하랴. 이생과 저승이 다르니 짝 잃어 너도 홀로 나도 홀로 님 그리워 아니하랴.

가난ᄒᆞ곡(가난하고)

가난ᄒᆞ곡 서난ᄒᆞᆫ 집이
병이드난 더 서난ᄒᆞᆫ다
가난ᄒᆞ도 서난도 말앙
지장샘이 물만이 살라

옮김

가난하고 빈한한 집에
병이 들면 더 설어워진다
가난하지도 섧지도 말고서
지장샘의 물만큼 살어라

- 서난 : 貧寒하여 설다.
- 빙 : 병(病).
- 지장샘 : 地藏泉. ① 濟州市內 금산물 앞에 있었던 샘(今埋立)
  ② 西歸浦市 西洪洞에도 있으나 이 민요대의로 보아 시내의 지장샘을 말함.

가난하여 살림살이에 급급하게 되면 쓸쓸한 찬 기운만 온 집안에 감돌고 수심을 펴지 못하여 마음 어느 구석이 허수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설상가상인 격으로 불행히 병마까지 숨어 들게 되면 저대로 의약도 그리 쉽게 얻지 못하게 되며 더욱 군새(窘塞)해지고 어딘가 초라해지며 비애에 잠겨 그 원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돈을 원망하게 되고 불공평하다고 사회를 저주하거나 울답(鬱沓)한 마음으로 나종엔 염세증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생활난으로 아무리 원통하다기로 그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이제 걱정없이 잘 사는 호화로운 백만장자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누가 내 스스로 사서 빈한함을 택한 것이었더냐. 아예 금의(錦衣)에 옥식(玉食)을 하는 부자도 원하지 말고 또 악의(惡衣)에 악식(惡食)하는 빈궁한 살림도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힘써서 성의껏 노력한다면 의식에 걱정없이 살아 나갈 것이 아닌가.

마치 지장샘이 물마냥 폭우가 쏟아지거나 한발이 계속되거나간에 물이 불거나 마르거나 할 때 없이 언제든지 쉬지 않고 흘러 그치지 않아 비록 큰 물은 되지 못할망정 옛날에나 이제

나 한결같이 흘러내려 샘으로서의 내 할 바를 다하고 있지 않으냐. 그 샘물과도 같이 사람의 살림살이도 과부급(過不及)이 없이 곧 빈부의 극단을 취할 것이 아니라 중용을 택할 것이 아닌가.

근근득생(僅僅得生)하면 가난이니 서난이니 비애를 느낀 것도 없지 않으냐! 좌우간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남용하고 낭비하거니 호랑이처럼 먹이가 생겼다고 한꺼번에 먹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담. 가난하다고 체념해버리고 아예 굶어야 할 도리가 있을 것인가. 아마도 먹지 않고 산다는 생리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가난한 집일수록 매양 병이란 놈이 찾아들기 쉬운 것이니 그럴 때면 가난함도 설워라커늘 더욱 비애를 통감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평소에 근권자자(勤勸孜孜) 한결같이 노력하고 절도 있는 살림을 한다면 아무런 설어워할 일이 없을 것이 아닌가. 자강불식(自彊不息)이란 말이 여기 있고 중용지도(中庸之道)란 여기서도 음미할 수 있지 않은가.

가지줒고(가지 잦고)

가지줒고 잎줒인 낭게
으름이나 두물게 을라
을아서도 못먹을 으름

옮김

가지잦고 잎잦은 나무에
열매나 드믈게 열지
열어서도 못먹을 열매

- 줒인 : 잦은, 많은(多).
- 으름 : 열매(實).

지엽(枝葉)이 무성한 나무에 열매나 드믈게 열지, 많이 열었댓자 먹지 못 할 열매이니 무슨 소용이 있담. 먹지 못할 탱자라더니 참 그렇구나. 가지가지에 빈틈없이 빽빽하게 많이 열어 가지가 축 늘어지다 못해 꺾어질 만큼 주렁주렁 매달렸다. 그러나 이것은 먹을 수 없는 탱자 열매가 아닌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귤 열매라면 사람마다 좋아할 것이지마는 먹지 못할 열매라면서 또 저렇게 많이 열게 뭔가. 드물게나 열어 가지나 좀 가볍게 굴지….

세상에는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사실 빈한한 가정일수록 웬걸 자식은 많이 먹을 것 입힐 것에 걱정, 삶에 급급한데다가 골육을 나눈 자식이지마는 귀치 않게 여기는 때가 있어서 자식을 두고 무슨 원수같이 민망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자식들이 보람이 있을만한 자식이거나 쓸만한 자식이라면 빈한한 살림 가운데서도 장래를 바라보며 고생일지라도 만에 하나의 낙(樂)을 얻어 행복을 가져 올로고나 하지마는 자식들이 하나하나 변변한 놈이 없고 모두 이 모양 이 꼴이고 지지리 못 난 것들 뿐이고 보니 어찌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자식이 많은들 무엇에 일

루(一縷)의 희망인들 있을 것인가. 참 세상에 다남다복(多男多福)이라 하나 아예 내게는 천만부당한 말이고 무익와력(無益瓦礫)이고 보니 무용지물이 아닌가 참 의가반낭(衣架飯囊)이란 말이 여게 있구나.

누천만년

누천만년 정배 죄인도
풀려갈 날 있어라마는
황천질은 조반날 질이라도
가난 다시 온줄 몰라라

옮김

累千萬年 定配罪人도
풀리고 갈 날 있으련마는
黃泉길은 하로 아침 길이면서
가서는 다시 올 줄을 모르더라

- 조반날(須臾) : 하루 아침 사이.

여고금슬(如鼓琴瑟)의 낙(樂)으로 의가 매우 좋던 부부가 하루 아침 사이에 그만 님과 사별한 노래다. 본도는 이조 오백 년간에 걸쳐 많은 분들의 정배왔던 곳이다. 이 어른들이 당조(當朝)의 역신(逆臣)이 되거나 충신이 되거나 간에 역인(逆鱗)에 저촉이 되는 날에는 그만 당장에 죽여 없애거나 그렇지 않으면 먼 곳으로 유형(流刑)을 받았던 것이다. 본도는 수륙 이천리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유형(流刑)으로서 찬배처소(竄配處所)로 적선(適宜)한 곳인가 보다. 장기간을 두고 정배왔던 죄인들도 때가 되면 다 풀려 돌아가건만 우리 님의 가신 길 황천은 하루 아침 사이에 수유(須臾)의 어간(於間)에 갔어도 한 번 가니 다시는 어이 못 오시는고. 가기는 잠간 사이의 시간인데도 영영 돌아오지 못 하는 길을 떠나고 말았구나. 인생이 여조로(如朝露)라더니 참 우리 님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부유일기(蜉蝣一期)란 짧은 인간 살림에 있어서 부부 생활처럼 달콤한 것이 다시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렇기에 길이길이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보자던 부부가 아니었던가. 님이 죽고 남아 있는 나의 심뇌(心惱)야말로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리라. 더욱 부부의 귀함을 알진데 다시

없는 부부의 애정을 더욱 느낀 것이 아닌가. 그 애정을 알기에 부부의 삶이라는 윤(倫)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루 아침에 우리 님이 돌아오지 못할 황천객이 되었으니 내 님의 기추지처(箕箒之妻)가 될 팔자가 아니었던가 보다. 이제부터 누구를 위하여 건즐(巾櫛)을 잡는단 말가.

이어 이어 이어동

이어 이어 이어동 ᄒᆞ라
물도 싸난 여이가 나고
이내 몸은 여이멍 살랴
어멍 신디 날가랭 ᄒᆞ민
앚진 삳디 밥이여 마는
물도 아니 줏인대 가라

옮김

이어 이어 이어도여
물도 써면 여울이 나타나고
이내 몸은 여위면서 살랴
어머니에게 날 가라고 하면
솥에 밥을 끓리고 있지마는
밥물도 잦기전에 갈라네

- 여이 : 여울(灘).
- 여이멍 : 몸에 살이 빠지면서.

바다물도 써면 여울이 나타나고 이내 몸도 그 거센 파도에 시치던 여울과도 같이 괴로운 시집살이로 인하여 몸에 살이 빠지고 바다 여울마냥 앙상한 뼈만 남았구나. 시집살이 괴롭다더니 참 몸이 여윌만큼 괴로운 것이구나. 무던히 참고 참아서 오늘까지 아무런 말없이 견디어 지내왔더니 바다의 여울이 나타나듯 뼈만 나타나는구나. 어디다 이런 사정을 호소하리? 이럴 때면 언제나 친정 어머니가 아니 그리워질소냐. 가고파 하는 안타까운 심정 샘물 솟듯 걷잡을 수 없다. 이럴 때 어머니에게라도 가라면 지체함이 없이 경각(頃刻)을 두랴. 날개라도 있으면 곧 펄렁 펄렁 날아가고 싶다. 이제 막 밥솥에 쌀을 담그고 잠간 사이면 곧 익을 밥이니 끓여두고라도 여여히 갈 수 있겠지마는, 어찌 누를 수 없이 하도 가고파 하는 심정이고 보니 밥이 끓기 전이라도 날아가겠다. 괴로운 시집 살이에서 그 얼마나 친정 어머니를 그리웠던고!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요네 상창 부러진덜
요내 홀목 부러지랴
한라산에 곧은 낭기
엇일말가 이어사나
우리선앙 가는디랑
매역 좋은 여끗으로
놈의선앙 가는디랑
감태좋은 엉덩개로
이어사나 이어사나

옮김

이어사나 이어사나
요내 櫓야 부러진들
요내 손목이야 부러질소냐
한라산에 곧은 나무가
없을 말가 이어사나
우리 배가 가는 곳에는

미역 좋은 여울 끝으로
남의 배가 가는 곳에는
감태 좋은 언덕 끝으로
이어사나 이어도 사나

- 상창 : 櫓의 윗부분 곧 손잡이.
- 하창 : 아랫부분(수중으로 들어가는 부분).
- 선낭 : 배 선낭 할망이라고도 함(船王)(城隍, 女神).

한겨울 동안 채취를 금하고 양식시켜 두었던 미역(甘藿)은 입춘으로 헤아려 90일이 되면 채취 시작이 된다. 처음 한 차례 따낸 미역을 초곽(初藿)이라 하여 매우 품질이 좋고 맛이 있다. 삼월 보름 물찌라 하여 이때에 비로소 채취 해금이 된다. 간조의 시간이 길고 물썬 강지가 매우 넓게 되므로 먼 바다까지 채취하게 된다.

해녀들은 앞을 다투어가며 해안선으로부터 차츰 채취하기 시작하게 되면 먼 바다로 배를 띄어 나가게 된다. 분승(分乘)하고 한참 조선(漕船)하여 적의(適宜)한 거점에서 투묘(投錨)하고 해중으로 뛰어 들어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럴 때면 몇 척의 배에 나누어 탄 해녀들은 노래를 부르며 있는 힘을 다하여 힘차게 저으므로 노(櫓)가 부러질만큼 세차게 조종하게 된다. 이러한 단단한 노가 부러질망정 보다 더 완강한 내 손목이야 부러질 리가 있을까보냐. 힘을 내어 어서 저어 가자, 이어사나 이어사나. 만일에 노가 부러진들 한라산에 노를 만들 나무가 없을 소냐. 부러질 염려말고 어서 저어가자. 해녀들은 한 노에 2,3인씩 매달려 이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저아간다.

우리 선낭(배)은 선하고 덕이 많으므로 미역이 무성한 여울

로 가게 해 줍소서. 남(他)이 탄 모질고 덕이 없는 선낭할멈 배는 짖궂어 심사를 부리고 고약하므로 감태만 무성한 바위 언덕으로 가도록 하라고 딴 배에 탄 해녀 동료간에 악의없는 야유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노를 저어가는 것이다.

가다근에

가당근에 낭게나 걸리라
오당근에 돌이나 걸리라
정망ᄒᆞ고 실퍼나 지라
뉘게 빌은 덕이엔 ᄒᆞ건
젱게 빌은 덕으로 알라

옮김

가다가는 나무에나 걸려 치어라
오다가는 돌에나 걸려 치어라
情忘하고 슬퍼나 지려므나
누구에게서 얻은 탓인가 하거든
제게서 얻은 탓으로 알어라

- 빌은 : 빌어온, 얻은.
- 덕 : 까닭, 탓.

밤이면 밤마다 외출이 잦은 님의 소행이 어찌나 얄미웠던지 그것을 원저(怨詛)하여 부른 노래다. 오늘도 님은 저녁 식사가 바쁘게 먹는둥 마는둥 부산스럽게 외출한다. 무슨 긴요한 일이나 있어서 나가는 바에야 내가 왜 님을 못 믿는단 말인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사는 부부 사이라면 님을 못 믿을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할 일 없이 밤낮 외출이 잦으니 집에 있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요즘 몇 달을 두고 님은 환장이나 한 사람처럼 틀림없이 바람이 난 것이 아닌가? 흥! 오늘 밤은 어느 년의 집엘 가는 것일까. 그저 가다가 길에서 나무에나 걷어치어 넘어져 버려라. 오다가는 돌뿌리에나 걷어치어 넘어져라. 또 그 년의 집에 가서는 그만 정망실의(情忘失意)해지려므나. 그때엔 이것이 누구의 탓인가 무슨 까닭인가 하고 생각이 나거든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니라 네 스스로 사서 당하는 짓으로 알려므나. 그래서 앓아 드러누워 출입이나 못하게끔 되면 넌놈 둘이서 애쓰고 안달하는 꼴이나 좀 보았으면 고소하겠다마는! 내 홀로서 긴 밤을 새자니 서운하다기보다 무슨 놈의 죄가 있어 공연히 마음이 설레는구나. 님의 뒤를 좇아 따라가 볼 수도 없고 혼자서 입술만 깨물고 마음속 깊이 님에 대한 원심이 불꽃처럼 오를 뿐이로구나.

이어도 방애

이어도 방애 고들배 지엉
ᄌᆞ냑이나 붉은제 ᄒᆞ라
본디 ᄌᆞ냑 어두군 집이
오늘이엥 붉은제 ᄒᆞ랴

옮김

이어도 방아 부지런히 찧어서
저녁 밥이나 밝은 때 하라
본시 저녁이 어두운 집에
오늘이라고 밝은 때 하랴

- 고들배 : 連달아, 繼統, 쉬지 않고, 부지런히.

늘 남의 일을 해주어 그 품삯으로 쌀을 얻어가지고 와서야 비로소 저녁 밥을 지어 먹는 가난한 집이 있다. 그러므로 일이 많을 때에는 자연히 저녁 식사 마련이 늦게 되어 매양 달뜬 후에야 밥을 짓게 되면 어린 것들은 보채기도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품팔이로 남의 방아를 찧어 주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쉴 사이 없이 연달아 찧어내여 저녁 식사나 해 지기 전에 일찍 해 먹자고 불렀다. 마주 서서 방아를 찧던 사람의 받는 노래가 본시 저녁이 밤중에야 제사 밥 먹듯 하는 집에 웬걸 오늘은 무슨 날이기에 밝은 때에 식사를 한단 말가.

은가락지

은가락지 새묽은 몸이
어두군디 들일이 설다

옮김

銀가락지 같이 깨끗한 몸이
어두운데 들일이 설고나

밝고 환한 세상인데도 사람들은 왜 이처럼 너무 지나치게 어두운 길을 구태여 택하고 행하는 것인가.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따라 덕이 있어야겠거늘 무엇을 두고 밝은 세상이라고 할 것인가. 인(仁)한 말이 없으니 인한 소리가 없고 질서를 가리지 못하니 상하가 난(亂)하여 세사(世事)가 혼탁이 되었으므로 그만 부패되고 만다. 왜 이 세상이 무도하고 추악한가. 그뿐이랴. 험하고 오(汚)하고 비(卑)하고 우(愚)하고 매(昧)하고 열(劣)한가. 또 왜(歪)하고 사(邪)한가. 아침에 웃음으로 맞으면 저녁엔 원수로 대하여 반목이요 악담이요 상박(相撲)이요 상박과 상투(相鬪)를 일삼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암투(暗鬪)요 중상(中傷)이요 모함 이간 아부 수회(收賄) 시기(猜忌) 불신(不信) 암취(暗取) 도박(賭博) 사기(詐欺)는 상례(常例)요 파괴(破壞) 절도(窃盜) 강도(强盜) 강탈(强奪) 강간(强姦) 겁탈(怯奪) 방화(放火) 살인(殺人) 등등의 광적(狂的) 야차(夜叉)인 양상으로 세상은 마치 생지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악덕배(惡德輩)로 충만해 있으니 도무지 무에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니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이러한 굴 속에서 사람의 명륜(明倫)을 어디다 찾을 것인가. 銀가락지와도 같고 빙

정옥결(氷貞玉潔)인 깨끗한 이 내 몸 이러한 어두운 세상풍조에 휩쓸어들기가 무섭지 않으랴. 공포심부터 생기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구나. 인간은 왜 정함을 모르고 인(仁)과 선(善)과 관(寬)을 모르며 인간과 인간은 왜 인화(人和)를 모르는가. 천시(天時)는 지이(地利)에 같지 뭇하고 지이는 인화에 같지 못하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새롭구나.

관노관속

관노 관속은 관헌의 위에
놈의 종은 상전의 위에
유세엇인 나몸이러라
나몸지체 어딜강 ᄒᆞ리
미녕 사라 배사라 ᄒᆞᆫ들
이몸사랭 어딜강 ᄒᆞ리

옮김

官奴 官屬은 官憲의 威勢
남의 從은 上典의 威勢
威勢없는 내 몸이로구나
이 내몸 지체 어디가 하랴
미명사려 배사려 한들
이 몸 사라고는 어디가서 하랴

- 지체 : 대대로 전하여 내려온 분한이 본뜻이나 여기서는 몸둘 곳 혹은 처지를 말한다.

아무런 명색(名色)이 없는 이 내몸 지체가 없고 위세마저 없는 고독한 신세를 한탄하여 부른 노래다.

물론 관속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 관헌의 권력에서 지배적 위치에서 위세를 부리고 그에 따르는 천한 관노마저 기관헌(其官憲)의 여세(余勢)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어(至於) 남의 집 머슴살이 종까지 세력 있는 상전에 의세(依勢)하여 활개를 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지할 곳마저 없는 나의 처지인 홀몸은 아무런 세력이 없으니 명색이나 있을 것이냐. 내몸 지체를 어딜가서 하랴. 미명이나 배같은 것이라면 들고 나서서 미명사려! 배사려! 하며 거리거리로 다니면서 외치기나 해보련마는 차마 어찌 이 내몸사려! 하고 할 수나 있는 짓일까. 그럴 수도 없다. 옛날에나 이제나 권려이나 있는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치고 그 배경을 아니 삼는 사람이 없고 공사(公事)에야 떳떳한 행사(行使)를 해야겠지마는 사사(私事)에까지 그 배경을 지고 나서 우세를 부린다는 것보다 지나치게 행패를 부려 민중으로 하여금 한심(寒心)을 짜아내곤 했다. 이러한 권력과 위세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내 어이 뚫고 살아갈 수나 있겠는가. 이렇다면 세상에서 천한 관노와 남의 종비(從婢)만

도 못 한 더 지천(至賤)한 위치와 분한(分限)이 되었음을 볼 때 더욱 슬픔을 누를 수 없구나.

저래가는 청비바리

저래가는 청비발애기
이내방이 도애여 도라
혼노래나 더배왕 가라
홑일곱에 부르던 노래
아홉상지 반이여 마는
혼상지나 더배왕 가리

옮김

저기 가는 저 處女야
이 내 방아 도와다구
한노래나 더 배워서 가려므나
단 일곱 살적에 부르던 노래가
아홉상자 半이 된다마는
한 상자만 더 배워서 가려므나

- 혼상지 : 한 상자, 한 曲.

노동요 방아 찧는 노래의 하나다.

이웃에 살던 처녀야, 내 방아가 무거우니 이리와서 방아를 도와주면 노래를 부를 터이니 이 노래를 듣고 가라는 것이다.

이 물(馬)방아라면 육지 농촌에서도 가끔 보이던 연자방아다.

이 연자방앗 돌을 굴리는 데는 으레 말이나 소를 부림으로 말방아라고 하지마는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만도 굴려 찧기도 하나 매우 무거워서 힘이 든다. 그러므로 사람이 길 가다가도 서로 아는 사람끼리라면 들어서서 같이 힘을 내어 찧어주고 가곤 하는 일이 이웃간에는 흔히 보인다.

이 노래에서 보면 방아를 찧는데 힘이 좀 모자라 무거운데다 마치 이웃에 살던 처녀가 지나가고 있음에 얘 처녀야 좀 와서 방아를 도와주면 노래를 불러 들려주겠다는 것이니 이 처녀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서 소꿉장난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같이 놀던 예쁜 처녀인 것이다. 그때를 생각만해도 어쩐지 다스한 정이 내키지 않을 것이냐. 그리 외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리 와서 나의 방아를 같이 찧면서 한 노래만 더 배워서 가려므나.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아홉 상자 반이나 되지마는 그때 부르지 못 했던 새로운 노래가 한 상자가 남아

있으니 이 노래를 불러 네게 꼭 들려주고 싶다. 어서 싫어 말고 듣고서 가지 않겠느냐.

젊은 청춘의 정열에 가득찬 가슴 속에 열화같이 타오르는 나의 노래를!

단심(丹心)에서 불같이 토하는 새빨갛게 끓는 사랑의 노래를!

노래의 수량을 상자의 단위로 표시함은 참 흥미있는 표현이라 하겠다.

천주언 종사는

천을 주언 종사는 뜻은
아장 놀잰 짓이로구나
돈을 주언 논사는 뜻은
미팝먹젠 짓이로구나

옮김

돈을 주어서 종을 사는 뜻은
앉아 노자는 짓이고요
돈을 주어 논을 사는 뜻은
미밥 먹자는 짓이라네

- 천(錢) : 많은 돈.
- 미팝 : 쌀밥.

옛날부터 어느 나라에서든지 인신 노예매매는 간혹 행하여졌던 것이다. 귀인(貴人)집 상전들은 삼복(三伏) 성하(盛夏)시에도 솜버선을 신고 사랑(舍廊)에서 한가히 시음(詩吟) 혹은 위기(圍棋) 또는 가요나 읊으면서도 앞뜰에 잡초가 짐승의 새끼를 칠만큼 무성하여도 손수 호미자루를 드는 것이 그 무슨 수치로 알거나 방에 먼지가 쌓였어도 비자루를 드는 것이 그 무슨 욕(辱)이나 당하는 것 같이 알았으므로 몸을 움직이는 일을 매우 싫어하였던 양반들의 유례와 습성이었다. 그러기에 장남이니 하님(下女)을 둘씩이나 두어 농사는 물론 온 집안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천(돈)을 주어서 종을 데리는 것은 편히 놀며 호강하려는 뜻이요 또 많은 돈을 주어 논밭을 사는 것은 백반(白飯)을 먹으려는 생각이로구나. 본도는 답(沓)이 매우 귀한 물건(物件)인 것이므로 많은 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빈한한 사람이 부귀영화 사치안일(奢侈安逸)의 생활을 동경하여 부른 노래다.

전처소박

전처소박 양첩ᄒᆞᆫ놈아
대천바당 가운디들엉
치를잃엉 ᄃᆞᆯ진밤새라

옮김

前妻를 疏薄하고 良妾한 놈아
큰 바다의 한 복판에 들고서
키를 잃고 달 진 밤 새어라

- 양첩(良妾) : 여기서는 兩妾을 말한다.
- 치 : 키(舵), 배의 방향을 돌리는 船具.

첩을 얻은 남편에 대한 원저(怨詛)의 노래다. 새움과 함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른 아내 부드러운 말이 있을 리 없고 고운 말소리가 나올 리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난한 때 지게미아 계를 먹으며 같이 고생하다시피 하던 처를 헌 신짝처럼 차버리고 부자집 첩을 얻음에 있어서랴.

요 포악한 놈아, 어쩌자구 나를 이와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부자집 첩을 얻는단 말이냐. 흥 네가 호강하고 잘 살아지겠느냐 말이다. 생각해봐라 그 고생을 하면서 적수공거(赤手空擧)로 내 내조의 덕으로 이만큼 이르켜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했더니 웬걸 첩을 얻고 나앉아!! 네 들어봐라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박대하고 양첩한 놈은 밤에 배를 못 탄다는 말은 너도 잘 알고 있으리라. 네가 배를 타고 큰 바다 한 복판에 들거든 키를 잃고 달 지어 컴컴한 밤에 배질할 수 없이 밤 새도록 헤매어 보아라. 그럴 때엔 내 속도 아프리라. 네가 나를 버린 후에는 낸들 어찌 살 길이 있겠느냐. 컴컴한 어두운 밤에 키를 잃은 배처럼 내 가슴이 어둡고 답답하지 않을 것 같으냐. 네가 반드시 네 스스로 난(難)을 사서 받을 것은 빤한 일이니 어디 두고 보아라. 오월에 서리를 맞을 놈 같으니. 一婦含怨 五月飛霜

얼굴좋다

얼굴 좋다 지니지 말라
놈의 간장 쌕이레 든다
소리 좋아 지니지 말라
제도 간장 쌕이는 소리

옮김

얼굴 이쁘다 기리지 말어라
남의 속을 썩이려고 든다
소리 좋다고 기리지 말어라
저도 간장을 썩히는 소리

- 간장 : 속(肝腸).
- 지닌다 : 기린다(讚揚).

미모의 여자는 이성인 남자로 하여금 연연초려(戀戀焦慮)하게 하고마는 것일까?

맑은 하늘에 초생달 같은 그 눈섭에 곱게 겹쳐진 눈시울 속에 포도알 같은 까맣게 맑은 동자(瞳子) 자연스럽게 곧게 내린 재치있는 코 앵도(櫻桃)알 같은 빨간 입술 보드럽게 붙친 귀뿔 흉없이 균형이 잡힌 하얗고 갸름한 뺨엔 미소를 띄울 때마다 우물보조개가 생기고 게다가 칠(漆)같은 새까만 숱 많은 머리를 곱게 따아 하얀 목덜미 뒤로 흘러 내리고 세류(細柳)같은 몸매에 섬섬한 옥수(玉手) 점잖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자태야말로 젊은이들의 숨막힐 듯한 감정을 일으키고야 만다. 절세 미인 양귀비 같다든가 클레오파트라가 저만 했을까. 그 화용(花容)을 극구 찬양하여 젊은이들의 침을 흘리는 진설(唇舌)에서 떠날 때가 없는 것이다. 참 그 여자 말할 수 없이 예쁘더라 화용월태(花容月態)라더니 참말 그렇구나. 미목여화(眉目如畵)라더니 그 여자 참 미목 청수(淸秀)하여 마치 그림같더라. 한 번 이야기라도 건너볼까. 그만 두어 남의 간장(肝腸) 타는 줄 모르고. 그래 타다가도 간장(肝臟)마저 썩을 정도야 애! 아서라 미인박명(美人薄命)이란다. 아따 별걱정 다하

네그려. 이리하여 그 미모의 여자를 두고 젊은 것들은 누구나 이체동심(異體同心)으로 몹시 마음을 썩혀 태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모의 여자로 하여금 어여쁘다고 기리지 말어라. 남의 간장(肝腸)만 태우게 되는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낭랑(琅琅)하고 청아한 좋은 목청으로 소리를 잘 한다고도 기리지 말어라. 용가봉생(龍歌鳳生)이라 명창가수(名唱歌手)라고 기리지도 말아라. 여자나 남자나간에 소리 좋은 사람치고 팔자좋은 사람이 없더라. 소릴하여 참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를 만큼 칭송이 자자하지마는 소리 부르는 제마저 제 간장을 태우는 소리가 아니랴. 참 그 수심가(愁心歌) 잘 부른다고 사람마다 칭찬하지마는 제게 간장 태우는 애수(哀愁)가 그 가슴에 잠겨 있고 그 참 육자배기 잘 부르네 하고 사람마다 칭찬하나 제 간장 태우는 신세타령일 것이고 비련의 노래 사친(思親)의 노래 이별의 노래 등등 부르는 노래마다 자기의 비애의 경우와 애수의 환경 한탄의 처지의 몸부림치고 애타는 소리인 것이 아닌가.

얻어 먹젠

얻어먹젠 어린빗 가난
빌어먹젠 비런비 가난
도라사는 도노미러라
서도노미 강좌수 집에
우방애뀌 아홉이러라
상아들에 매누리 들엉
가시전택 난아니 준들
방잇비사 날아니 주랴
아적ᄌᆞ냑 물방애 지언
가믜시에 죽이랑 쑤난
젭시셋이 모지래더라
어느제랑 강도령 오건
설운ᄉᆞ담 다ᄀᆞᆯ아 두엉
백탄불에 어름이 녹듯
ᄉᆞ르르기 지녹아 가저
ᄉᆞ르르기 못녹아 지건
나온질로 도라근 가저

옮김

얻어 먹을려고 어린빗 가고서
빌어 먹을려고 비련비 가고서
돌아올 때에는 도노미라네
서도노미 강座首 집에
좋은 절구꽁이 아홉이나 되더라
큰 아들의 며누리로 들고
집이니 田畓이나 내게는 아니 준들
방아 비자락이야 나에게 아니주랴
아침저녁 물방아 찧어서
가마솟 셋에 죽을 쑤었어도
접시 셋에도 차지 않더라
어느 때에나 강도령 오시거든
설운 事談 다 일러두고서
白炭불에 얼음이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련다
사르르 못 녹아지거든
내가 온 길로 돌아가련다

- 어린빗 : 버린비, 도노미, 지명.
- 가시전택(家世田宅) : 집이니 밭이니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남편은 출타하고 혼자서 시집살이를 할려니 한집의 동서들의 구박에 못이겨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

끼니밥도 제대로 얻어 먹지 못하고 사방으로 떠다니다시피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시집 강좌수택(座首宅)은 서(西)도 노미에 있다. 이집 저집 방아나 찧어 주고 얻어 먹다가 돌아올 때는 그래도 시집이라고 그리로 발을 옮기게 된다. 우리 시집은 부자집이다. 가장 좋은 방아공이가 아홉이나 되더라. 그네들은 큰 며누리로 들어왔으니 가산(家産)을 나누워 줄 때는 응당 가택(家宅) 전지(田地)를 많이 줄 터이지마는 나는 죄없이 사면초가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어디 내 차례야 올 리가 있을라구. 기껏해야 쓰다남은 모지락 빗자루나 내 차례가 될가 몰라. 큰 가마솥 셋에 가득히 많은 죽을 쑤었으나 내게는 세 접시에도 모자라는 죽을 먹으라고 주니 이걸 먹고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된 방아를 찧는데는 밥을 먹었어도 힘이 모자라겠는데 기껏 세 접시도 안되는 것을 먹고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느 때에나 우리님(강도령)이 오면 이 설움을 만단 설화하고 원정들어 쌓였던 이 한을 풀어 볼 것인가. 그 때면 나의 장한(長恨)도 센 백탄(白

炭)불에 얼음 녹듯 사르르 녹으련만 그러나 님마저 돌아와서 내 속을 몰라 준다면 이 속이 어찌 풀릴 수 있으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 온 길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까지 사고팔고(四苦八苦) 혼자서 당하고 사는 것도 강도령 때문인데 그 님조차 내 속을 몰라 준다면 죽어서 혼이라도 내 따뜻한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툇마루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때 멀리서 불여귀(不如歸) 불여귀 두견(杜鵑)이 우는 소리마저 구슬프고 기우는 그믐달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비친다.

어멍 신딜

어멍 신딜 날 가랜 ᄒᆞ민
청대ᄀᆞ대 엇비인 질에
신을 벗엉 새ᄂᆞᆯ 듯 ᄒᆞᆫ다

옮김

어머니 계신 데 날 가라고 하면
청대 갈대 엇베인 길이라도
신을 벗고서도 새 날듯 가겠다

시집살이 괴롭다는 말은 아마도 어느 나라보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겠고 또 유독 제주도에서 더욱 심한 상싶다. 오늘에 와서도 일부에서는 결혼하는 즉시로 시택(媤宅)과 별거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양자간의 합의 밑에 결혼한다는 예도 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결혼시켜 놓으면 으레히 별거생활을 한다. 이 노래 역시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말하는 노래인 것이다.

친정에 곧 어머니 계신 데에 나더러 가라고 하면 날아 가고 싶다. 걷잡을 수 없이 가고파 하면 일상 품은 정회(情懷)가 아니었던가. 청죽(靑竹)과 호죽(芦竹)을 엇비뚜름하게 베여놓은 길 아닌 죽림(竹林)길 곧 날카로운 많은 죽쟁(竹鎗)을 깎아 꽂아놓고 수없는 칼을 꽂아 놓은 것 같은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신발 벗은 채 맨발로라도 마치 새가 훨훨 날아 가듯이 서슴지 않고 뛰어 가겠다. 시집살이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친정 어머니에게 가고파 한 며누리의 누를 수 없는 심회를 말한다.

헝 허야 뒤야

헝허야 뒤야로다
ᄉᆞ랑ᄒᆞ는 부미성제는
ᄒᆞᆫ븐가멘 올 줄 몰라도
낫물들의 풀닢새들은
해넌마다 다시 오더라
어서 짓엉 물질을 ᄒᆞ영
부미성제 봉양을 ᄒᆞ저
팔재 좋앙 남ᄌᆞ로 낳멘
책상이나 내받을 건디
미신팔재 여ᄌᆞ로 낳서
해천물질 ᄒᆞᄌᆞ는 구나

옮김

어기여차 뒤여로다
사랑하는 父母兄弟는
한번 죽으면 올 줄 몰라도
白草들의 풀잎사귀는
해해마다 다시 돌아오더라
어서 櫓를 저어 잠수질하여
父母兄弟 奉養을 하자구나
八字가 좋아 男子로 낳았으면
冊床이나 내가 받았을 것을
무슨 八字길래 女子로 태어나
終日토록 潛水질 하자는 건가

- 부미 : 부모(父母).
- 닫물 : 百草(百卉).

인생의 무상과 여자로 태어난 비애. 그러한 속에서도 부모 봉양에 대한 지성이 담긴 노래다.

사람은 왜 죽는단 말인가. 또 한 번 죽고나면 도시(都是) 돌아오지 못한다. 전생부터 주어진 얼마마한 시간의 예약된 목숨이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 봤어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진시황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였기에 불노 불사약을 구하다 못하여 그만 죽고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인간이기에 우리 부모형제도 한 번 죽고나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백훼(百卉) 천초(千草)들은 해해마다 봄이 돌아오면 다시 생생하게 소생하더라마는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어기여차 노를 저어라. 쉴 새없이 어서 저어가서 잠수질을 하여 돈을 벌어다가 죽으면 못 돌아올 우리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살아있는 동안에 정성드려 봉양을 하잣구나. 죽으면 봉양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어기여차 팔자가 좋으면 남자로 나서 책상이나 받아 앉아 공부를 하여 선비가 되고 호강을 할 것인데 이것 무슨 놈의 팔자길래 여자로 태어나 날이 다하도록 잠수질을 하라는 것인가. 어기여차.

삼척동자

삼척동ᄌᆞ야 나구 보라
삼태성이 터 오느냐
삼태성은 아니트고
조모성만 터옵내다
삼태성이 터오시멘
님에게서 기벨온다
삼태성이 안터오멘
님이정녕 간디엇다

옮김

三尺童子야 나가 보아라
三台星이 떠 오느냐
三台星은 아니 뜨고
朝暮星만 떠 옵니다
三台星이 떠 오시면
님에게서 기별 온다는데
三台星이 안 떠오면
님이 叮嚀 간 곳 없구나

- 三台星 : 길조를 상징하는 별.
- 朝暮星 : 參星과 商星, 이별을 상징하는 별.

님이 출타한 지도 어언 삼년이로구나.

돌아올 때도 벌써 지났건마는 아무런 기별을 얻어 듣지 못한 안타까운 심회 오매불망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쳤으나 오늘도 행여나 하고 어둡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떠 오르는 별을 보고자 하는 사행심에서 나온 생각이다.

애야 동자야. 어서 나가 보아라. 벌써 돌아 오셔야 할 때도 되었지마는 님의 소식조차 없으니 어떻겠단 말이냐. 삼태성이 떠오르면 출타한 님에게서 소식이 온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으니 오늘이나 무슨 소식이 있을까 반신 반의하면서도 동자를 독촉한다. 분부를 받아 앞동산에 나갔다가 돌아온 동자는 삼태성은 아니 뜨고 조모성만 떠 옵니다 대답하였다. 자이 말을 듣자니 설레는 가슴이 그만 덜컥 떨어져 좀 채로 가라앉지 않는다. 조모성이 떠오르면 이별하는 징조인 별이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에 행여나 하고 바랐든 삼태성마저 뜨지 않고 이별을 가리키는 조모성이 떴으니 소식은 커녕 님과는 영영 이별을 더욱 새롭게 할 따름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님이 그리 무심하고 무정하단 말인가. 가신 곳이나 알면 왕래하는 어른에게 소식이나 알아 볼 수 있으련만 넋잃

은 사람처럼 밤마다 떠오르는 별만 쳐다보곤 한없이 님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독숙공방에 전전불매(輾轉不寐) 님에 대한 원모(怨慕)의 정이 샘솟듯 막을 길이 없구나.

서방이엔

서방이엔 난 믿어서도
신두얻어 신은배 엇다
지집이엔 난 믿어서도
옷도 얻어 입은배 엇다

옮김

서방이라고 난 믿었어도
신도 얻어 신은 바 없다
기집이라고 난 믿었어도
옷도 얻어 입은 바 없다

쓸쓸하기 말할 수 없는 부부생활의 노래다.

빈한한 살림일수록 따뜻한 애정과 깊은 의리로서 오붓한 부부의 생활을 할 것이 아닌가. 빈한한 위에 애정이 없고 신의조차 없는 부부 사이에 그 무슨 맛으로 사는 것일까. 살림이 빈곤하다 하여 어찌 마음 속마저 마를 것이더냐. 아무리 메마른 세정(世情)이기로서니 부부 사이에 윤기(潤氣)가 없으면 어찌 애정이니 의리니 찾아볼 수 있겠으며 신의가 없고서 부부의 윤(倫)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변천이 심한 세상에서 심한 갈등과 편협 또는 냉낙(冷落)의 혼미한 세정인지라 할손 가정 부부생활마저 냉혹했어야 될 말인가. 부부의 삶이란 무엇을 두고 말 할 것인가!

서방이라고 나는 믿어 살아도 신발 한 켤레 얻어 신은 바 없고 기집이라고 믿고 살기는 하나 옷 한 벌 얻어 입은 바 없다. 한 끼니 찬밥이라도 서로 마주 앉아서 담소나 하면서 먹어본 일이 있더냐. 같이 서로 앉아서 집안 살림살이의 의논이나 해보며 무슨 정담이라도 한적이 있더냐. 길고 긴 겨울밤에 아랫목 윗목 침구를 따로 펴놓고 오는 말 가는 말이 무엇이 있으랴. 가을에 대굴 대굴 날러 굴리는 가랑잎과 같이 겨울

바닷가에 자갈돌처럼 제각기 때굴때굴 굴르면서 하등의 온정미가 없듯이 이처럼 무정한가. 그 얼마나 차고 쌀쌀한 살림이랴.

어야홍

어야홍 어야홍
갈라지라 엎어나지라
엎어지건 털어나지라
요동산은 생이로구나
요동산을 뜨려나보자
독개아들로 불이낳게
뜨릴수록 털어나지라
흔 번 뜨령 백방울썩
두 번 뜨령 천방울썩
오늘 해천 뜨럼시난
오늘 해도 지염구나
어야홍 어야도 홍

옮김

어야홍 어야홍
갈라지거라 엎어지거라
엎어지거든 떨어나지라
요동산은 생생 하구나
요동산을 뚜드려 보자
도리깨열로 불이 낳게
뚜드릴수록 떨어지어라
한 번 뚜드려 百알갱이식
두 번 뚜드려 千알갱이식
終日토록 뚜드리니
오늘 해도 지는구나
어야홍 어야도 홍

- 어야홍 : 힘을 돋구는 일종의 감탄사.
- 독개아들 : 도리깨열, 도리깨채에 달린 회추리.

베어드린 조 보리 따위는 밭에서나 혹은 집으로 운반되어 탈곡작업을 한다. 조보리는 깨끗이 쓸어 놓은 마당에 적당히 펴 놓으면서 좌우로 몇 사람씩 벌려 서서 도리깨로 번갈아 가며 뚜들겨 타작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한 사람이 선소리로 부른다(한 구절마다 부르면 일동은 후렴으로 「이야홍」 일제히 받는다).

골고루 뚜드리겠지마는 자연 높은 데 낮은 데가 생기게 되면 그 높은 데를 「동산」이라고 하고 알갱이가 떨어지지 않은 생생한 이삭을 「생」이라 하여 그에 주력(注力)을 가하게 된다. 한 쪽에서는 떨어진 알갱이를 모여서 껍데기와 짚을 분리하고 어레미로 교잡물을 가린다. 일출모입(日出暮入)할 때까지 궁일력(窮日力)이랄까. 온종일 폭양(暴陽)에 서서 작업을 함으로 전신은 땀에 젖어 보리까끄라기가 목덜미로 허리 사이로 들어 따끔따끔 찌르게 되면 양통(痒痛)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노래를 쉴 새 없이 번갈아가며 불러 조금도 군 시간 여유를 두지 않고 일을 진행시킨다. 이와같이 춘경(春耕)으로 추수 때 까지의 농부의 노고를 헤아린다면 어찌 일립(一粒)의 서속(黍粟)일망정 귀하다 아니하랴. 입입개신고(粒粒皆辛苦)라는 말도 재삼 음미할 바 아닌가.

어멍 ᄒᆞ멍

어멍 ᄒᆞ멍 ᄯᅳ르는 애기
그 날 살고 또 뒷날 사난
ᄂᆞ시 아니 돌아 오더라

옮김

엄마 하면서 따르는 아기
그 날 지나고 또 이튿날 지났어도
도시 아니 돌아오더라

- ᄂᆞ시 : 도시(都是), 도무지.

턱받이에 묻은 젖 냄새도 고소하게 날 때가 지나면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엄마하여 곧잘 따르게 되는 어린애는 참 귀엽기 비할데 없다. 그러다가도 불의의 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끼치게도 한다. 그럴 때면 부모는 그 괴로움을 대신하고 싶은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모성애. 불행히 부모의 정성스런 간호와 애태운 보람도 없고 백약의 효험도 없이 그만 죽고마는 경우가 있다면 제 명이 짜르다 칠손 그 부모의 상심이야말로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손에 쥐엇든 단 하나밖에 없는 옥(玉)을 물에 빠트렸을 때 그 사람 대경실색(大驚失色)하리라. 그러나 그 옥은 한 개의 보매 곧 재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는 단시일에 체념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한 내 자식이야. 어데다 또 얻을 수 있으랴. 자식의 싸늘한 뺨을 부벼가며 하늘도 무심하지 어찌 우리 아기를 죽게 한단 말이냐. 채시(差使)도 눈이 어둡지 내게 무삼 죄로 날 잡아가지 못하고 우리 애기 어쩌자고 잡아 간단 말이냐. 꿈이지 생시는 아니야 소리치며 울다가 기막혀버린다. 이래서 죽는 날도 새고 또 이튿날도 새었지마는 그 귀여운 아기는 도무지 돌아올 줄 모르더라.

양친부미

양친부미 신 사름들아
산 제 소심 ᄒᆞ소서 ᄒᆞ네
죽어근에 삼년상 꾸명
삼헌관에 양집ᄉᆞ 세왕
술 삼잔에 첨작을 ᄒᆞᆫ들
어느 잔이 굳어니 ᄒᆞᆫ다

옮김

兩親父母 있는 사람들아
살아 계신 때 孝心 하시라 하네
죽고나서 三年喪을 꾸미고
三獻官에 兩執事 세워 놓고
술 三盞에 添酌을 한들
어느 盞에 술이나 줄어 들더냐

- 부미 : 부모(父母).
- 소심 : 효심(孝心).

풍목지비(風木之悲)인 교훈의 노래다.

양친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아, 부모가 생존하여 계신 때에 힘써 효성을 다할 것이다. 죽은 뒤에야 제 아무리 상복을 삼승(三繩) 사승으로 꾸며 입고 초상(初喪) 소상(小祥) 대상(大祥) 삼년상을 정성껏 차려서 후한 제물을 지어 올리고 삼헌관에 양집사를 세워서 분향(焚香) 강신(降神)의 예를 행하고 초헌(初獻)이니 아헌(亞獻)이니 정중하게 헌작(獻酌)을 한다. 게다가 권주(勸酒)하는 시늉으로 첨작(添酌)까지 한다. 그러나 어디 죽은 부모의 영혼이라도 나타나서 술이라도 잡수시기커녕 어느 잔에 술이나 줄어 들더냐. 어디 차려 올린 제물의 응감(應感)이나 하더냐. 이와같이 죽어야 섬기지 말고 아예 죽은 뒤에 섬길 것이 아니라 생존해 계실 때에 효심을 다할 것이 아니냐. 한시(韓詩) 외전(外傳)에 夫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矣라 하였으니 남의 자식된 사람으로 어찌 애를 아니 태울 것이며 어찌 통탄하지 아니할손가. 어버이 살아신제 시름을 뵈지말며 낙기심(樂其心)하고 양기체(養其體)하며 만세(萬歲)를 지낸 후에 마침내 향화부절(香火不絶)이 긔 옳은가 하노라. 이 고시조의 연상(聯想)이 됨으로 적어둔다.

이어이어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산은 첩첩 천봉인데
물은 출렁 한강수라
요 절고개 저 절고개
뭉클 뭉클 들어온다
무엇먹고 술쳤느냐
구름 먹고 술쳤느냐
ᄇᆞ름먹고 술쳤느냐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옮김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山은 疊疊 千峯이요
물은 출렁 한江水라
요 나불이 저나 불이
뭉글 뭉글 들어 온다
무엇 먹고 살쪘느냐
구름 먹고 살쪘느냐
바람 먹고 살쪘느냐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 절고개 : 큰 물결, 나불.

해녀들은 다소 물결이 출렁거려도 강풍이 아니면 으레히 배를 띄어 먼 바다로 저어가서 작업을 하게 된다. 뱃전에 물결이 철석철석 닫는 때마다 이물과 고물에 앉은 사람들은 널뛰는 사람과 같이 한 쪽이 오르면 한 쪽이 내린다. 한 둘 해녀는 노(櫓)를 잡고 허리를 펴서 멀리 바라보면서 유유히 저어가노라면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 온다. 말 그대로 산용수상(山容水相)이 일목요연하다. 저 높은 한라산은 위위(巍巍)하고 아무런 소리 없이 무겁게 좌정해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물결은 일어나 탐스럽고 육중하게 누력누력 들어와서는 배에 부디쳐 하얗게 쪼개진다. 멀고 넓은 大洋의 나불이구나. 대관절 너는 무엇을 먹었기에 그리 살쪘느냐. 바다 저쪽에서 뭉게뭉게 떠오르는 구름을 먹고서 그리 살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 건너 넓은 바다에서 힘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먹고서 그리 살쪘느냐. 나는 밥을 먹고 사는 데도 이처럼 살이 없는데 아예 너 살쪘다고 함부로 뱃전에 닿아서 너무 출렁대지 말고 성내지 말아라. 하기야 바람을 마시고 구름과 안개로 밥을 지어먹고 사는 신선의 풍만한 몸집과도 같이 너도 필경은 바람과 구름을 먹어서 살찌는 게로구나. 이어사나 이어도 사나

인풍추파(因風起波)라는 말이 있음과 같이 바람이 없으면 물결이 일어날 리가 없고 풍기수용(風起水涌)이란 말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오돌또기

오돌또기 저기춘향 나안데
둘도 붉고 늬가 머리로 갈꺼나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여도 당실 원즈 머리로
둘도 붉고 늬가 머리로 갈꺼나

옮김

오돌도기 這妓 春香 낳았데
달도 밝고 네가 첫째로 갈 것이냐
童妓大 當室 童妓大 當室
너도 當室 圓者 머리로 얹어서
달도 밝고 네가 첫째로 갈 것이냐

- 오돌또기 : 할미꽃(老姑草), 옛날 본도에서 할미꽃을 오돌또기라 했다.

춘향(春香) : 성(成)춘향이든 임(林)춘향이든 간에 틀림없이 춘향이란 인물이 등장했다. 임춘향은 기생이 아니었으니 여기 성춘향인가 보다. 성춘향은 숙종 때 전라도 남원 노기(老妓) 월매(月梅)의 딸이면서 이몽룡(李夢龍)의 애인(愛人)이고 임춘향은 유구국인(琉球國人)이면서 제주인 김복수(金福壽)의 애인(愛人)이었었다. 외국에도 소개된 한국의 춘향전의 주인공 성춘향은 남도(南道)에서 제일로 굴지(屈指)하는 미모의 여자로서 기예(技藝)에 능할 뿐아니라 시문(詩文)에도 탁월하고 서화에도 특기를 가졌었고 가정의 범사(凡事)나 일상 언사(言辭) 행동의 몸가짐이 자못 훌륭하며 굳굳한 지조와 절개로서 전형적인 한국부인으로서의 손색이 없어 전국 방방 곡곡 널리 알려져 있는 여성이다. 절해고도 이 섬에서도 춘향의 사람됨을 지극히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부녀들간에 춘향이 같이 예쁘구나 춘향이 같은 딸이구나 춘향이 같이 수절(守節)을 지키는구나 등등의 말은 두말 없이 춘향을 추모하여 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 노래에 있어서는 이 춘향이를 오돌또기에 비하여 부른 노래인 것이며 그 오돌또기는 다른 꽃과 달라 나면서부

터 그 자태가 연약하게 보이나 그 내적 지조에 있어서는 매우 강하고 수줍은 듯 하면서도 점잖고 외유내강하여 타고난 습성 생태가 춘향과도 같다는 것이다. 뭇 꽃은 함부로 머리를 쳐들어 세상엣 나비와 벌들을 청하여 숨바삐 기다리는 것 같으나 오돌또기는 머리를 꼭 숙여 님을 향한 일편단심 흩어진 생각이 없는 점 춘향이 같고 뭇 꽃은 오히려 환한 색채와 향기로서 더욱 풍염(風艶)함을 보이고 나비와 벌들의 유혹을 끌게 하되 오돌또기는 점잖은 색채와 그윽한 향기로 찾아야 할 봉접(蜂蝶)을 맞으면 비교적 단시일에 이우러지니 그 절개가 굳굳함이 춘향이 같다는 것이다.

저기 춘향 : 這妓春香 저妓生春香

둘도 붉고 : 달도 밝고

삼월이 되면 불한불서(不寒不暑)하여 비교적 한가한 때이며 달밝은 밤엔 높기에 매우 좋은 때다. 지난 삼동(三冬)에 울울(鬱鬱)하여 기를 펴지 못한 처녀들은 이제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해변으로 뒷 동산으로 신록의 냄새가 풍기고 명월이 중천(中天)한 밑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기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것이다.

늬가 머리로 갈거나 : 네가 맨 먼저 갈거냐.

둥기대당실 : 童妓大當室.

동기가 커서 실(室)에 당(當)하였다. 실은 곧 실인아내 내방(內房)의 주인공 부인 부위부(夫謂婦) 어린 기생이 커서 이제 결혼하여 부인이 되기에 마땅하여졌고나.

여도당실 : 여(汝)도 당실. 너도 부인이되기에 마땅하구나.

원ᄌᆞ머리로 : 圓者머리, 둥근 머리를 얹어서.

처녀들이 모여 놀 때면 못하는 소리가 없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머리를 얹나? 하는 말이 큰 화제가 된다. 네가 맨 먼저 얹겠구나 너도 그렇구 얘도 그렇지 뭐!

지금엔 총각인지 처녀인지 부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이 볶으고 지지고 오일파마니 콜드파마니 하는 전발(電髮) 시대이지만 옛날엔 으레 총각이거나 처녀이거나 머리를 땋아 등에 내려 흘렸었다. 그래서 결혼하면 반드시 그 형태를 머리의 변형으로 표징하여 장유명분(長幼名分)을 가리게 된다. 처녀로부터 어른 곧 부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대 혁신이며 머리의 변형장식으로 부인이 되었다는 것을 세인에게 아르킴과 특히 여성들의 새까맣고 숱많고 탐스런 머리는

부덕을 상징하는 듯 여자의 전재산이며 전생명이며 지중지대(至重至大)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결혼하려면 남자는 상투로 맺아 올리고 처녀는 내렸던 머리를 풀어 다리(끝돌위)를 넣어서 두 쪽으로 나누워 땋아 두상(頭上)에 둥그렇게 맺아 올린다. 이것이 곧 원자머리인 것이다.

몸은 족곡

이어 이어 이어동 ᄒᆞ라
몸은 족곡 소리 큰 새야
고진 가난 위김새러라

옮김

이어 이어 이어도여
몸은 작어도 소리 큰 새여
高地엔 가서는 위김새더라

- 高地 : 높은 山麓.
- 위김새 : 고지새.

작은 고초(苦草) 맵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작다해도 제 구실만 할 줄 알면 그만이 아닌가. 몸이 작다고 웃음을 받는 새지만 뭇새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록에 가고 보니 산명수요(山鳴樹搖)할만큼 고성(高聲)을 내어 청아하게 제읍(啼泣)하니 재재거리는 많은 뭇새들은 물을 뿌린 듯 고요히 정청(靜聽)할 따름이고 재재거리려는 엄도 트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몸집이 작아서 무장(武將)은 되지 못할망정 지장(智將)을 될 수 있을 법도 한 일이다. 어떤 곳에 거대하고 힘이 세고 박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행로(行路)에 서 있노라니 다부지게 생겼으나 매우 왜소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므로 거기 있던 거인이 저것은 사람에는 흡사하지만 자두치(尺二寸)에 모자라겠군. 사람의 사촌(四寸)은 될 것 같다고 놀려 시비가 되었다. 마침내 둘이서 판결을 가리기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 싸움은 툭탁 초각(秒刻)에 끝이 나서 과연 왜소한 사람이 한 간밖에 굴러 떨어져 나갔다. 거대한 사람이 「애 꼬마야 맛이 어떠냐」 하니 나가 자빠진 왜소한 사람은 입에서 무엇을 우물거리다가 「얘 네 코가 잇나 봐라 네가 정말 사람에 좀 모자란게 있구나」라고 대답했다.

서산대사(西山大師)는 참 체소(體小)한 분이었다. 기(其) 제자 칠척 거구인 사명당(泗溟堂)은 으례히 뒤에 따라 다닌다. 어느 때인가 하루는 앞에 서서 가는 대사를 한눈에 훑어보며 마음 속에서 생각하기를 「원! 이런 한 줌도 못 되는 어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따라 다니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혼자서 잠간 뉘우쳐 보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앞서 가던 대사가 몸을 휙 돌이켜 싫거든 그만 두려무나 누가 자네보고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이나 한 일이라도 있더냐! 아얘 그런 생각말고 어서 돌아가게. 추상같은 호령을 했다. 사명당은 천만의외(千萬意外) 공연한 꾸지람에 놀라서 제자의 잘못 생각이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부질없는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다고 복지감불거언(伏地敢不擧顔) 한사코 사죄하였다. 그 후로부터 유일한 고족(高足)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

물이 엇건

물이 엇건 산짓물 먹곡
낭이 엇건 돔박낭 짓고
나 어시 지내어 보라
놈의 애긴 흔빛이여만
놈의 애긴 천엽에 똥가
돼우잡앙 진호령 말라
ᄂᆞ려아장 들을 넌 엇다

옮김

물이 없거든 山地물 먹고
나무 없거든 柊栢나무라도 때어라
나 없이 지내어 보아라
남의 자식도 한빛이란다
남의 자식은 千葉의 똥이더냐
휘둘러잡고 긴호령 말아라
내려 앉아서 들을 넌 없다

덤받이를 데리고 개가해 온 여자가 남편의 잔인함에 못마땅하여 부른 노래다. 물 없기는 손수 산지물을 길어다 먹고 나무가 떨어지거든 동백(柊栢)나무라도 막 베어서 때어라(도화(桃花), 종백, 앵화(櫻花)나무 간은 개화하는 나무는 화목(火木)에 쓰지 않는 습속이 있음). 그러면서 나 없이 좀 살아 보라아 홀아비 꼴 좀 보게. 네 주제에 얼른 덤벼들 연이나 있을라구.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사람의 자식이거든 매 일양(一樣)인 것이 아니냐. 의붓 자식아라고 네 눈에는 천엽(千葉)에 끼어 있는 똥같이 보이느냐. 너무 휘어 둘러잡고 보는 대로 함부로 악담을 하며 상욕을 퍼부우며 손에 잡히는 대로 함부로 치니 내 눈에서 더운 피눈물이 쏟아져 나와 어디 보고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팔자를 그르쳐 한많은 낸데 옥오지애(屋烏之愛)란 말은 여기 합당치 않으리라마는 나를 데불고 사는 바에야 비록 덤받이 자식인들 인간으로서 어찌 그리 혹독하고 잔인하여 인정도 없는 무지막지하단 말가. 어린 것을 그리 마구 몰아치다가 남을 것이 무엇이냐. 너무 무참하지 아니하냐. 사이비 인간인 무도한 짓이 아니냐. 어미로서 목불인견이니 그대와 갈릴지언정 굽어들어 내내 그런 긴 호령을 들으면서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다. 내 험한 팔자기로 너같은 서방을 얻어 이런 꼴을 당한다마는 어찌 분한 노릇이 아니겠느냐. 어린 것을 구박함도 분수가 있지 차마 그대로 앉아 감수할 년이 어데 있을 것이냐. 나 없이 살아보아라.

죽엉근에

죽엉근에 이벨이사
놈이대동 ᄒᆞ련마는
살앙근에 영이벨은
생초목에 불이로구나
생초목에 이는 불은
세우라도 끄련마는
내 가심에 이는 불은
대우라도 못끄리라

옮김

죽어서 이별이야
남과같이 하련마는
살고서 永離別은
生草木에 불이 붙네
生草木에 이는 불은
細雨로도 끄련마는
이 내 가슴에 이는 불은
大雨라도 못끄리라

사람은 나면서 죽음이라는 숙명적인 알궂은 슬픔이라는 아픔이 가로 놓여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사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남도 똑같이 당하는 일이 아니랴마는 살아서 영이별은 어디 눈 뜨고 당할 수 있는 일인가. 내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았어도 님과 만나지 못하게 됨을 생각하면 그만 불같은 화가 나서 생초목이라도 태울만한 뜨거운 불이 내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구나. 그러나 생초목도 태울만한 불이라면 가랑비 만한 작은 비로서도 능히 꺼질 것이지마는 내 가슴에 타오르는 불은 퍼붓는 억수같은 대우(大雨)로서도 끄질 못할 것이다. 불은 으레 물로 끈다더라마는 내 가슴속에서 타는 불은 폭우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리라.

어떠한 젊은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며 날마다 수심과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남편에게서 소식이 왔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딴 여자와 동거한다는 것이었다. 생이별이구나. 그만 비통한 나머지 속에서 일어나는 불로 간장을 태우다 못하여 그만 병에 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명의(名醫)란 명의와 양약(良藥)이란 양약은 다 썼으나 무슨 병인줄도 모르고 게다가 아무런 효력도 없다. 시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야

약이란 약은 다 써 봤어도 조금도 효력이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자부(子婦)는 종용(從容)히 대답하였다. 「김생원이 약이외다」 김생원이란 딴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내 님 남편인 것이다.

집에 반초

집이 반초 싱그도 말라
넙적 닢이 비지는 소리
엇인 부미 발얼음 소리
귀에 쟁쟁 열위염서라

옮김

집에 芭蕉를 심지도 말아라
넙적한 잎에 비 지는 소리
없는 부모 발 어르는 소리
귀에서 쟁쟁 매암돌더라

- 부미 : 부모(父母).
- 쟁쟁 : 錚錚.

양친을 모두 여의고 애수(哀愁)에 깊이 젖은 남매, 날마다 가신 부모생각만 맴돌아 부모의 발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청명이니 단오니 추석이니 정초니 이러한 절기가 바뀌드는 때마다 혹은 계절이 갈릴 때마다 더욱 부모 생각이 간절하였다. 남매는 집안이 고요해지거나 하면 망운지정(望雲之情)으로 견딜 수 없다. 뒷뜰에서 무슨 기적(氣跡) 소리만 나도 문득 어머니의 어른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귀를 기우리고 앞뜰에서 인기적(人氣跡)만 나도 아버지의 발자국 소린 것 같이 귀를 기우리곤 한다. 동생은 앞뜰에 잎이 넓은 파초를 심어 두었다. 어느 날 밤중만하여 남매는 부모의 발자국 소리에 문득 잠이 깨어 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았다. 부모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파초의 넓은 잎에 비 지는 소리가 아니었던가. 파산야우(芭山夜雨)란 말도 있으려니와 특히 밤중만하여 이 넓은 파초잎에 비 지는 소리를 들으면 이별한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고 외로운 사람에겐 어딘가 감상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 놀래

나 놀래에 산 넘엉 가라
나 놀래에 물 넘엉 가라
물 넘은딘 아방이 살고
산 넘은딘 어멍이 산다
물도 산도 넘지나 마랑
요집 올래나 지넘엉 가라

옮김

나 노래여 山이나 넘어 가너라
나 노래여 물이나 넘어 가너라
물넘은 곳엔 아버님이 살고
山넘은 곳엔 어머님이 산다
물도 산도 넘지 말고서
요앞집 大門턱이나 넘어가려므나

- 올래 : 大門턱.

아무 의지할 곳 없는 이팔처녀의 신세를 자탄(自嘆)하는 노래다. 철없는 어렸을 때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더니 차차 나이가 들면서부터 남몰래 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 자기의 정회(情懷)를 홀로 느끼는 것이다. 동배(同輩)의 동네 처녀들은 뚜렷이 부모가 구존(俱存)하여 아무런 수심(愁心)을 갖거나 비회(悲懷)를 짜아낼 이유조차 없을 것이다. 이 처녀의 경우는 유달리 비애와 고독 원한을 풀 수 없는 가련하기 말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인 것이다. 이웃집 아무 애는 언제 어떠한 집에서 시집을 간다느니 옆집 아무 애는 벌써부터 중매(仲媒)가 왔다느니 소문이 자자하면 할수록 혼자서 남몰래 한심과 더불어 이 구슬픈 노래는 남이 들을까 두려워 입속에서 중얼거린다. 밤이면 희미한 등잔밑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로 침낭이 마를 새가 없다. 서울로 아버지를 찾아갈 수도 없고 산넘어 어머니에게로 갈 수 없는 처지 어느 누구에게 내 설움과 슬픔을 이렇다고 호소할 권당조차 없구나.

서울서 정배왔던 양반 어른 정배왔으면 왔지 그 어간 스스로 근신이나 하다가 유형의 기한이 풀리거든 깨끗이 떠날 일이지 불미하게도 어느 하가(何暇)에 이곳 여자를 맞아 장래 이

구슬픈 노래의 주인공 불우의 여아를 낳아 놓고야 말았던 것일까. 유형(流刑)의 기간이 풀리자 솔거(率去)하지 못할 양반의 경우 환경(還京)한 지 십수년 되는 우금(于今) 일거(一去)에 소식이 없다. 어머니는 무심한 서울 양반 믿지 못할세라 다시 아니 오실 님을 춘풍추우 한결같이 기다리다 못하여 산넘어 어떠한 집에 재가하여 갔었으니 홀로 남아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몸이 된 나는 벌써 이팔처녀가 되지 않았는가. 애태우며 눈물과 더불어 이 노래를 부르게 되니 뉘 아랑곳 할 사람 하나 없구나. 서울에 계신 아버님이시여 이곳 남겨둔 이 여식의 비애의 노래를 들으시나이까. 산넘어 계신 어머님이여 홀로 둔 이 여식의 애끓는 노래를 들으시나이까 아버지 계신 곳 물 넘어 갈 수도 없고 어머니 계신 곳 산넘어 갈 수도 없으니 차라리 요 앞집 도령님 있는 집 대문턱이나 넘어 들면 그 도령님은 나의 속을 알으시겠지마는 또 그럴수도 없는 처지가 아닌가. 물 넘고 산 넘어 갈 수도 없는 몸이니 슬픈 내 노래나 물 건너 가고 산넘어 가서 여식의 끓는 이 수소성(愁訴聲)을 우리 부모님께 아르켜다오. 그렇지도 못하겠거든 요 앞집 도령님에게나 넘어가다오.

석상

석상에 잉거난 낭글
일러단에 왕당에 싱건
저의 몸이 이성당 ᄒᆞ난
싱근 나를 제몰람서라

옮김

石上에 저절로 난 나무를
일러 옮겨다가 큰 집에 심어서
제몸이 成長하고 나니
심어준 나를 제가 모르는구나

- 왕당 : 王堂, 王은 크다는 뜻.

메마른 석산(石山)에 저절로 나서 외로히 홀로 서 있는 나무를 가엽게 보고 파 내다가 땅 깊고 기름진 옥토(沃土)에 옮겨 심어서 마르지 않게 조석(朝夕)으로 정성껏 물을 주면서 혹은 거름을 주기도 하며 잘 가꾸어 북돋아 키워주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 고독, 단신의 불쌍한 천애(天涯), 고아(孤兒)인 어린 것을 데려다가 내 자식이나 다름없이 더운 때나 추운 때 가리지 않고 의복도 철에 따라 깨끗이 해 입히며 음식마저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디 가서라도 구해다가 먹이며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결같이 잘 거두어 주며 양육해 주고 공부까지 시켜 키워주었다. 이제는 늠름하고 믿음직한 당당한 한 사내가 된 것임에 마음속으로 대단(大端) 기뻐했었다.

그랬더니 웬걸 이제는 바로 제가 저대로나 자라서 사람이 된 듯이 저를 애쓰며 키워준 나를 모르고 도리어 나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구나. 원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어디 있겠는가. 선공무덕(善供無德)이 되고만 것이로구나. 배은망덕(背恩忘德)도 분수가 있지 참 양호유환(養虎遺患)이란 말이 있더라마는 정말 그렇구나. 내게서 신세와 은혜를 받

고서 선으로서 갚아야 할 것이 응당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보은을 받으려는 생각은 애당초부터 없었지만 아니 글쎄 은반위수(恩反爲讐)가 되었어야 인면수심(人面獸心)인 천하무도(天下無道)한 악덕배의 종속이로구나.

낭도 팔재

낭도 팔재 좋아랜 낭근
관덕청의 대들포 매왕
일천 선비 절 맡암서라
낭도 팔재 구저랜 낭근
질ᄀᆞᆺ 집이 듸딜팡 놩
가고 오는 관방광 관속
발질에 놀암서라

옮김

나무도 팔자가 좋다는 나무는
觀德亭의 대들보 매어 놓아
一千선비의 절을 받고 있더라
나무도 팔자가 궂은 나무는
길가 집에 디딤판으로 놓고서
가고 오는 관방과 관속들의
발길에 놀고 있더라

운명론자 중에는 흔히 사람의 운명은 생년월일의 사주에 달려 있다고 팔자설주의자는 말한다. 팔자는 비단 사람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나무에도 팔자소관이 있어 우대도 받고 천대도 받는다는 것이다.

좋은 팔자를 타고난 나무는 관덕정의 대들보로 유용하게 되니 일천이나 넘는 선비(官員)들의 절(禮)을 받다시피 고귀한 곳에 위치하여 그 존귀한 몸이 된다. 그러나 같은 나무일지라도 무슨 놈의 팔자가 험궂은 나무기에 길가 집의 대문전 발판(踏板)으로 깔아 놓고 오가는 관원의 발길에 짓밟히고 있는 것일까. 출입하는 뭇 사람의 발에 유린되어야 할 팔자의 나무, 험한 팔자를 가진 창부를 두고 나무에 비유하여 부른 노래다.

있노라고 자세

있노라고 자세를 말라
엇다하고 칭원을 말라
백만장ᄌᆞ 외 똘로 나도
죽으난에 허ᄉᆞ로구나

옮김

있노라고 藉勢를 말라
없다하고 칭원도 말어라
백만장자의 외딸로 낳아도
죽고 나면 虛事로구나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 부자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위세에 바쁘고 가난한 사람은 빈한에 위축되어 행세를 못하고 칭원(稱寃)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힌다.

부자집의 자녀들은 부력에 자세하지 말며 빈한한 집 자녀들은 가난하다고 칭원할 것이 못된다. 백만장자의 무남독녀로 태어나서 일시의 영화를 자랑하더라마는 죽고 나니 그 돈과 영화가 다 허사가 아니더냐. 빈한한 사람의 자식이라고 칭원할 것도 아니다. 누더기를 입고 조식(粗食)을 달게 먹었어도 아무런 질병이 없이 탈이나지 않고 되려 건강하여 목숨만 더 길더라. 설혹 불행하게 죽더라도 죽은 후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을 것이니 뭘 칭원도 원망도 없을 것이 아닌가. 부자의 집 딸이라 자세하던 사람이나 없다고 치원하던 사람이나 죽고 나면 똑 같은 한 줌의 흙의 무덤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에서 소위 오복은 동양의 오랜 풍속이라 그 중에서도 수(壽)와 부(富)를 제1, 2위에 놓았다. 한정된 생애의 인간으로서 오래 살고 싶다는 심정이 무엇보다 강할 것이니 이 욕망은 인간은 죽는 것임을 알기에 가장 큰 보편성의 것이나 부라는 것은 사실 언젠가 죽고 나면 허무한 것이 아니냐고

체념해 버리는 그 때의 도(島) 서민의 생활에서 울어나온 솔직한 감정이 아닌가.

전싱 궂게

전싱 궂게 날 낳은 어멍
미신 날에 날 낳아 신고
해도 둘도 어신 날에
우리 어멍 날 낳았구나
놈 난 날에 날 낳아시멘
놈이 울멘 나 무사 울리

옮김

전생 궂게 날 낳은 어머니
무슨 날에 날 낳으시던가
해도 달도 없는 날에
우리 어머니 날 낳았구나
남 낳은 날에 나도 낳았으면
남이 울면 내가 왜 울랴

• 전싱 : 前生, 出生전의 세상.

팔자가 흉함을 읊은 노래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 이왕 낳으시려거든 남과 같은 복받은 날 길일에 낳으실 일이지 무슨 놈의 팔자가 험한 날에 낳으시던고. 아마도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낳으시던가. 남과 같이 남 낳은 날에 낳았으면 남이 불우하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로 불우할 것이고 남이 복을 받았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복을 지녔을 것이 아닌가. 아마도 남이 낳은 날이 아니고 내가 낳은 날은 필경 해도 없고 달도 없는 흉한 날 세상에 일무월무(日無月無)한 심상치 않은 험한 팔자를 띄운 날에 우리 어머니 날 낳았기에 내 운명도 좋지 못한 것이로구나.

본도의 민요가 애조(哀調)를 띈 사주팔자타령이 많다. 그러기에 팔자주의자가 흔하고 마음으로 팔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민요란 서민의 노래요 서민의 생활임에 늘 풍족하지 못한 살림이었기 그 생활 감정 자연 유로(流露)한 것이 한탄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민요 역시 그런 종류의 노래로서 그런 불우는 오로지 팔자소관이라고 체념해 버리기 쉬운 것이다. 팔자에 인하여 과거와 현재 장래의 길흉에서 인간의 흉복이 좌우된다는 신앙심에서의 미신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 산 앞에

저 산 앞에 노가리 상낭
아무것두 상덕은 엇언
비랑눈이 상덕이러라

옮김

저 산 앞에 노가주 향나무
아무 것도 上德은 없어서
비와 눈이 큰 덕이더라

- 상덕 : 어른이 주는 恩德

불우와 고독함을 느껴 부른 노래다. 저 한라산에 홀로 서 있는 노가리 상낭(노가주 향나무) 상나무는 상나무에 틀림이 없는데 아무런 상은 없고 기껏 상을 받는다는 것이 쏟아지는 비와 눈을 맞는 것이 큰 상덕(上德)이더냐. 참 불쌍도 하지. 눈과 서리를 맞고도 그 누구 하나 덮고 가려 줄려는 사람이 없는 게로구나.

어쩌면 이 내 몸도 저 산에 서 있는 노가리 상나무와도 같이 아무도 비호(庇護)해 줄 사람이 없지 않으냐. 내 신세나 저 산에 노가리 상나무나 똑같은 고독단신의 신세로구나.

시가의 구박에 이겨냄도 힘들거늘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추상같은 억제(抑制)가 잦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외로운가. 그 심정은 비와 눈에 견디어내는 노가리 상나무에 견주어 부른 노래인 것이다. 노가리 상나무는 그 질이 단단하고 향기로운 굳굳한 나무로 그 지조를 설움 받는 며느리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다.

한라산 절경의 노가리 상나무는 목질이 굳굳하여 풍우한설에 바래질 대로 바래져 백골이 노출된 것처럼 하얗게 나타나서 등산객들에게는 그 위관(偉觀)을 보여준다.

※「향나무」의「향」은 방언으로는 구개음화가 되어서 상나무로 발음이 되는데 이「상」은 上 또는 賞과 중의(重義)시켜 놓은 비유법인 것이다.

물이 어선

물이 어선 흔 물을 먹곡
질이 어선 흔 질을 걸은들
씨앗이사 흔 집에 살랴

옮김

물이 없어서 한 물을 먹고
길이 없어서 한 길을 걸어다니나
시앗이야 한 집에서 살 수 있으랴

원수라 하여도 시앗보다 더한 원수가 없음을 노래한 것이다. 먹는 물은 산에서 기원하여 지중으로 숨어 흘러 비로소 해안선 가까운 곳에서 용출한다. 한라산은 본도 중앙 남쪽 가까이 동서로 뻗어 있어서 제주시 일부 한림읍 서귀읍 일대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으나 그외의 지방에는 대소 3천여 소나 되는 하천 대부분이 건천(乾川)이다. 그러므로 본도에 산재하고 있는 부락은 수개(愁皆) 음료수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 해안에 집결하고 있다.

부락에 따라 한 개 소밖에 없는 샘물이기에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물을 길어다 먹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며, 비록 삼생(三生)원수라 할지라도 한 곳에 물을 먹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시앗이 생겼다. 시앗은 내게는 원수와도 같다. 그 시앗하고는 될 수만 있다면 서로가 만난 일이 없고 멀리 하려고 의도한다. 어쩌다가 물가에서나 길에서 멀리 그림자만 비치게 될 때면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며 두근거리며 오금이 떨고 온몸에 소름이 끼고 이를 갈아 전율을 일으키고 살기마저 등등해진다. 이러한 원수의 시앗이니만큼 따로 먹을 물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한 물을 먹고 딴 길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한 길

을 걸을망정 그 원수인 시앗이 생기면 언젠가 서로 싸우고야 만다는 것이다. 뚜드리고 물로 머리채를 열 손가락에 휘어 잡고 한바탕 싸워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다.

지장 닷되

지장 닷되 조 닷되 갈안
조는 익언 새ᄃᆞ려 가도
님은 가고 아니 오더라

옮김

기장 닷 되 조 닷 되 갈아서
조는 익어 새를 쫓겨도
님은 가시고 아니 오시네

- 지장 : 지장.
- 조 : 粟.

씨를 뿌려 어느새 나고 자라서 이제는 익어 거기에 참새 떼들이 앉을 때가 되어도 즉, 이처럼 철이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내 님은 아니 온다는 연인원지격정회(戀人遠之隔情懷)를 노래한 것이다.

가을 철이 들어 추수기에는 돌아 오신다기에 마음을 놓고서 혼자 가꾸어 둔 기장과 조는 벌써 누렇게 익어서 이른 새벽부터 새떼들이 조밭에 날아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님은 아직도 아무런 기별조차 없으니 딱하지 않은가. 비록 넉넉지는 못한 간궁한 살림이라 겨우 한 두 마지기 돌(달)냉이(면적이 협소한 밭)에 지장과 조를 절반씩 나누어 씨를 뿌렸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제 때 제 때에 김매고 거름을 하며 북돋아 잘 가꾸어 놓았더니 이제는 누렇게 익었구나.

님이 돌아 오시면 님과 같이 그 지난 날의 정담(情談)이라도 하면서 오붓하게 님이 좋아하시는 오매기떡(수수경단)이랑 팥 묻힌 흐린 좁쌀(차조)떡이랑 만들어 놓고 재미(滋味)있게 먹으려고 했으나 아뿔싸 긴긴 여름 동안 애쓴 보람도 없게 되었구나.

사실 후끈거리는 무더운 김이 사정없이 온 몸에 스며들며 폭염 밑 조밭 속은 마치 한증막 안과 같이 땀과 흙으로 몸을

미역감다시피 된다. 이러한 고역도 님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당한 일이나 이제 오셔야 할 우리 님은 아니 오시고 참새떼들만 덤벼드니 기다리는 마음은 지쳐서 서운하기 짝이 없다. 힘없이 하루 종일 새를 쫓고 황혼이 깃든 석양이 지날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어도 쓸쓸하고 적막한 마음이 허수하여 한없이 안타까워하는 정회야말로 님 그립지 않으랴.

산앞 각시

산앞 각시 산뒤엣 씨앗
씨앗이네 트드레 가난
갈은 밭디 메매꽃 곹이
히번 듯이 나 아자서라
내 눈에도 저만 ᄒᆞᆫ 년이
님의 눈에 아니 들리야

옮김

산앞에 가시가 산뒤의 시앗을
시앗이네 하여 뜯으러 갔더니
갈아 놓은 밭에 메꽃처럼
히번 듯이 나 앉아 있더라
내 눈에도 저만한 년이면
님의 눈에야 아니 들 리 있으랴

- 각시 : 閣氏(보통 처를 각시라 상용함).

님은 1년이 지나도 좀체로 촌에 가서 볼 일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한 달이면 몇 차례씩이나 사랑(舍廊)에나 출입하듯 빈번하더니 이제는 집에서 자는 날이 며칠이 못 된다.

풍문에 듣자니 님은 산 뒤 어느 고을에 첩을 두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님은 그 후부터는 거기에만 혹하여 환장(換腸)이나 한 사람처럼 나를 구박하더니 서로 대하면 말하기는 커녕 돌아보지도 않는다. 곰곰히 생각할수록 치밀어 오르는 분함을 누를 수 없어 절치포완(切齒抱腕)으로 그만 몸서리마저 일어나 진정할 수 없다. 이를 악물고 백리 산길을 단숨에 뛰어넘고 시앗집으로 막 쫓아갔다.

그래서 그 년을 그만 머리채를 휘어 잡고 물어 뜯어 죽이기라도 하고 싶어서 막상 뛰어가 보니 갈아 놓은 밭에 방금 막 피어 오른 메꽃처럼 곱게 단장하고 예쁘게 차려서 히번 듯이나 앉아 있지 않은가. 그만 찢어 죽이고 싶도록 미운 원수 같은 생각으로 막 쫓아 온 내 눈에도 저만큼 예쁘게 잘 생긴 년이면 님의 눈에야 어찌 아니 들 리가 있을라구. 참 님이 탐내지 않을 수 없게 잘도 생겼구나. 뚜들려는 내 분한 생각은커녕 한 마디 말 할 엄두 뜨지 못 하고 내 손조차 저 년 몸에

감히 댈 수 없고 내 스스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원 세상에 어쩌면 저런 예쁜 년도 있담.

저 산천

저 산천은 해넌마다
픠릇 픠릇 젊아지고
이내 몸은 해넌마다
소곡 소곡 늙어진다
죽는 일은 아니 설완
늙는 일이 설웁더라

옮김

저 山川은 해해마다
파릇 파릇 젊어지고
이내 몸은 해해마다
소복 소복 늙어진다
죽는 일은 아니섧고
늙는 일이 슬프더라

- 해년 : 年年

산천초목은 해해마다 봄이 돌아오면 신록이 트고 청산지청산(青山只青山)이란 말과 같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파릇파릇 젊어지는데 어이하여 이 내 몸은 해해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소복 소복 늙어지는 건가. 서산에 지는 해 뉘라서 막으며 동해로 흐른 물이 다시 오기 어렵다더니 어제 청춘 오늘 백발 다시 소년 어려워라. 이천년 장수를 자랑하던 동방삭도 간 지 이미 오래고 덕이 어질다던 요(堯) 순(舜)도 갔었고 불노장수를 염원하고 불사약을 갈구하던 진시황도 그 때에 가고 영웅호걸 절세가인들도 모두 다 가서 한 줌 진토(塵土)의 황총(黃塚)이 되었거늘 명색이 없는 이 내 몸 어찌 죽는 일이 서러울쏘냐. 나면 죽기는 인생의 숙명이니 내 죽는 일이 어찌 설워 할 것이냐마는 늙는 일이 다시 없이 뼈저리게 섧구나. 늙는 일이란 참 먼 데 없고나. 눈과 귀가 멀어지고 이가 빠지고 입술이 오므라지고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백발이 성성해지면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몸을 마음 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단장(短杖)에 의지하게 된다. 왜 자주 병이 생겨 괴로움을 당하니 이 어찌 서럽지 않으랴. 어쩌다가 망령이라도 생기면 젊은이의 웃음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 되고 보니 참 늙는 일이 어

찌 아니 슬프리. 죽음이 있기에 삶이 귀한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이 소복소복 늙어가서야 어찌 인생에 영락이 있었을 것 같더냐. 홍안(紅顔)소년 어디다 두고 백발노구(白髮老軀) 어인 일고!

새 노는딘

새 노는딘 짓이나 둔다
쥐 노는딘 맷이나 둔다
군ᄌᆞ 아홉 나놀아 간딘
미싱 걸랑 ᄀᆞ뭇이더냐

옮김

새가 깃드린 곳에 깃을 남기고
쥐가 깃드린 곳에 검불을 둔다
君子 아홉이나 살다 간 곳엔
무엇이 남은 痕蹟이더냐

- 짓 : 깃(羽).
- 맷 : 검불(검부러기), 쥐똥, 먼지, 마른 풀 따위.
- 군ᄌᆞ : 군자(君子), 男兒.

한 노파가 자식 9형제를 두었다가 모다 요사(夭死)하고 그 사이에 손자조차 하나도 없어서 매우 슬퍼하고 부른 노래다.

새가 깃드리는 곳에 깃(羽)을 남기고 쥐가 깃드리던 곳에는 검부러기를 남긴다더라. 이런 보잘 것 업는 미물의 심승일망정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구나 남아(군자)로 나서 그래도 무엇하나 남겨 두어서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눈에 띄일만한 흔적이라고 무엇이드냐.

내 자식 아홉이나 세상에서 살다가 아무 것 한 보람도 없이 모두 한창 젊은 때에 죽다니 무슨 큰 동티가 아닌가. 그저 늙은 것이 일찍 죽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구나. 눈 없는 채시(差使)야 날 잡아갈 일이지 젊은 것들을 무슨 죄로 모조리 잡아갈 일이 무엇이더냐. 참 하늘도 무심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어안이 벙벙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구나. 표사유피(豹死留皮)하고 인사유명(人死留名)한다는 말도 있더라마는 아홉이나 되는 자식 가운데서 혈육이나마 하나 남기고 갈 일이거나 그렇지 못하거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이나 하고 이름이나 남겨두고 갈 일이지 참 기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는구나. 이 늙은 것의 팔자가 험한 것이로구나. 그저 일찍 죽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이로구나.

스믈세에 세 애기

스믈 세에 세 애기 난
업고 안고 걸루고 가도
열에 흔촌 날 괼 이 엇다
미정 괘정 밤 줄 인 셔도
미정 괘정 옷 줄 인 엇다

옮김

스믈 세 살에 세 아기를 나서
업고 안고 걸리고 갔어도
열에 한 분도 날 求愛하는 이 없다
미웁거나 곱거나 밥 주는 이는 있어도
미웁거나 곱거나 옷 주는 이는 없다

결혼은 일생에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의 하나이면서도 조혼(早婚)이니 만혼(晩婚)이니 말할 나위도 없이 으레히 처녀 십세만 되면 차차 혼담이 오가면 정혼하는 것이 관례이니 1, 2년이 지나면 결혼예식을 거행하게 된다. 그럴 때면 스무살이 되기 전에 으젓한 부인이되고 스물 서넛이면 벌써 2, 3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이 아닌가.

간구한 살림에 벌써 자식들은 셋이나 되고 어쩔 수 없어 참다 못해 좀 도움이라도 받을까 하여 일가집이라고 해서 어린것들을 업고 안고 걸리고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친척을 찾아 갔었다. 이럴 때에 으레히 일가친척은 목석이 아닌 바에야 친의(親誼)로 보거나 의리로 보아서도 사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마음 먹었던 기대와는 사뭇 어그러졌다. 여러 친척에서 반겨서 나를 맞고 구애해 주는 사람은 한 친척도 없고 되레 푸대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밉게 보거나 곱게 보거나간에 밥이나 먹고 가라고 찬밥을 내어 주는 사람은 있더라마는 이 남루한 누더기와 이 찬바람이 부는 엄동설한(嚴冬雪寒)에 홋옷을 걸친 어린 것들을 보면서도 헌 옷 한 벌 꺼내주는 친척은 그 많은 친척에서 한 사람도 없더라. 친척이

있다 하여 좋은 게 무엇이며 일가를 많이 두었기로 도움이 뭔가. 빈곤한 친척이야 무얼 친척의 예에나 들 수 있을라구. 이것 참 원통한 일이 아닌가.

오라방

오라방아 신삼아 도라
누이야 옷 ᄒᆞ여 도라
전등갑절 우대를 ᄒᆞ마

옮김

오빠야 신을 삼아 다오
누이야 옷을 해 다오
전보다 갑절 우대하죠

남매와도 같이 서로 흉허물 없이 친숙해지면 서로 오빠니 누이니 하고 부르는 것은 그럴듯도 하다. 그러나 요즘 보면 S오빠니 S누이니 하고 일부 젊은이들이 불러 유행되고 있으나 그 성분을 해부해 보기 전에는 어떤 내막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차어피(於此於彼) 남과 남 사이에 남매간이라고 일컫는 것은 얼른 회득(會得)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러나 지금에도 의리 형제를 맺는 사람들이 많고(특히 남녀간에 남매 의리를 맺는 일도 있고) 옛날에는 더욱 많았다. 이 노래 역시 그러한 점에 유사한 노랜가 보다. 신은 남자가 삼는 것이고 옷은 여자가 꿰매는 것이 각기 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본분을 성의껏 다할 수 있다면 전보다도 몇 곱절이나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 아닌가.

훌륭하고 점잖은 덕망이 높은 사람도 의복이 깨끗치 못하거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면 어딘가 초라하게 보일 것이며 어디 품위있게 보일 것이냐. 무지막지한 무뢰한 일지라도 말숙하게 잘 차리고 있으면 어딘가 점잖은 신사로 보이기도 할 법이라. 이래서 옷이 없고야 남자로서 어디 행사(行使)나 해 질 것이냐. 옷이 날개란다. 또 여자로서 깨끗한 신발을 신지 못하면 어딘가 여자의 덕이 없는 것 같고 맨발로 다닐 수 없으며

여자로서 상냥치 못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빠야 내 신을 삼아 준다면 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 아니냐.

아전어룬

아전 어룬 상덕도 말고
호반 어룬 위엄도 말다
아장 먹는 상덕도 말다
함벅 눈이 뒤덕근 날에
낭정 오는 님이 부릅다
저 고지에 낭지레 가난
짐패 쫄란 못 지염서라
나도 가멘 낭지엉 온다
나도 가멘 물지엉 온다
느 가는 곳에 날 ᄃᆞ랑 가라

옮김

衙前 어른 上德도 싫고
虎班 어른 威勢도 싫고
놀고 먹는 上德도 싫다네
함박 눈이 뒤덮힌 날에
땔 나무 지고 오는 님이 부럽구나
저 高地에 나무 지러 가서는
짐바가 짧아 못 지고 있더라
나도 가면 나무를 지고 오겠고요
나도 가면 물도 지고 오겠고요
님 가는 곳에 날 다리고 가 다오

- 상덕 : 上德, 어른이 주는 은덕.
- 고지 : 땔 나무가 있는 먼 깊은 山麓.
- 짐패 : 짐지는 배, 바.

부부애의 노래다. 아전(衙前)과 호반(虎班)같은 이의 그 부귀와 영화, 권력과 세도 그 누가 싫다 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조금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내 아랑곳 할 바도 아니다. 또 내가 아무런 하는 일 없이 편안히 놀면서 호강하려는 덕분도 바라지 않는다. 함박눈이 왼 하늘을 뒤덮고 찬 바람은 사정없이 부는 엄동설한에도 우리 님은 날 생각하고 멀고 먼 거친 산고지에 가서 그 고생을 무릅쓰며 땔 나무를 지게에 가득히 지고 오는 우리 님이 비할 데 없을 만큼 마음속 속속들이 미모(美慕)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내가 가만히 방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마중을 나가 보니 짐바(荷繩)가 모자랄 만큼 지게 가득히 지고 오더라. 님이 이처럼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보면 나 역시 물도 나무도 지고 올 수 있을만큼 고역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고 보면 님이 가는 곳이라면 심산유곡(深山幽谷)인들 어떠냐. 황무벽지인들 싫다 할쏘냐. 그래서 조제모염(朝薺暮鹽)인들 달(甘) 것이 아니겠느냐. 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를 다리고 가다오. 구원(久遠)한 참 사랑의 극한 부부애 빈한한 살림에 풍영(豊盈)한 애정과 진실한 의리가 깃드러 있지 아니한가.

저바당의 무의낭

저바당의 무의낭 정주에
벳이 난덜 이실이 개이랴

옮김

저 바닷가에 홀로 선 亭子나무에
햇빛이 나기로서니 이슬이 개랴

- 무의낭 : 의지할 곳 없는 나무.

무의(無依) 무탁(無托)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 부녀의 심정을 읊은 노래다.

바닷가에는 물결이 쉴새 없이 출렁출렁 밀려드는 곳이니 해안에 홀로 서 있는 정자나무에는 물기가 없어질 리 없다. 햇빛이 나서 쬐인들 쉴새 없이 끼어 얹는 물결이야 어찌 마를 새가 있을까 보냐.

이슬이 개지 않는 바닷가의 나무와도 같이 이 가슴 속에도 설움이 없어지는 새가 없고나. 이 세상에 사랑도 님도 없어 이내 몸 의탁할 곳도 없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것이 마치 이슬 속에 서 있는 저 무나무와 같은 신세로구나. 그러니 저 나무와 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비애의 환경속에서 어찌 화락(和樂)이란 찾을 수 있으며 행복이란 있을 수 있으랴. 참 아무리 무의 무탁한 사람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고 행복한 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마는 그러나 내 신세는 저 나무마냥 희망도 생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비애의 독숙공방(獨宿空房) 중년 과부의 우수(憂愁). 뉘라서 서러운 그 사정인들 알 것인가.

씨누이야

씨누이야 씨거둥 말라
느도 가멘 시집에 간다
나도 가멘 어멍광 아방
백 년이 남으로 매 맞이리야
느네 집이 천 석이 시난
천 석을 보안 나 아니 오고
느네 집이 만 석이 시난
만 석을 보안 나 아니 오고라
느 오래비 전치굿 피연
느짓 올랠 어디엥 오리

옮김

시누이야 시집 거드름을 말아라
너도 가면 시집에 갈 것이 아니냐
나도 가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단다
百年을 지낸대두 매 맞겠느냐
너의 집에 千石이 있기로
千石을 보고서 내 아니 왔고
너의 집에 萬石이 있다기로
만석을 보아서 내 아니 왔다
네 오래비의 惡緣의 꽃이 피어 왔지
네 집의 대문을 어디라고 오겠느냐

- 전치꽃 : 악연의 꽃.
- 씨거둥 : 시거드름, 媤家의 藉勢.
- 짓(깃) : 捿息하는 곳.
- 올래 : 門間.

시택(媤宅)엔 시동생들이 많더라마는 그 중에서도 요 불가사리 같은 강폭한 시누이가 있어서 한 시각도 마음 편안할 때가 없다. 이 시누이는 남편에게서 소박(疏薄)을 받고 할 수 없이 작년부터 친정에 와서 있는 형편인 것이다.

시누이야 너도 여자이거든 그래도 좀 여자답게 태도를 가져라. 너같이 매몰하고 시거드름이 심한 여자가 세상에 다시 어디 있겠느냐. 참 폭악하기 짝이 없는 여자로구나. 무슨 까닭에 내게 성가시게 괴롭히며 못살게들 들볶느냐. 내게 무슨 잘못이나 있어서 그러느냐. 너도 여자이거든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봐라. 원 세상에 부모님에게서도 맞아보지 못한 매를 다 맞는구나. 이런 칭원(稱寃)할 노릇이 어디 있담. 나도 친정에는 부모님이 있어서 집에 돌아간들 백년이 지난 대도 매맞을 상 싶드냐. 아예 그리 짐승이나 다름없이 폭행을 하지 말아라. 설령 너의 집이 천석을 바라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만석지기라 해서 내가 그 만석을 바라고 여기 온 줄로 아느냐. 너의 집이 부자집이라 해서 그것을 탐내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너의 집에 온 줄 아느냐. 너의 오라버니와 무슨 놈의 악연의 꽃이 피게 된 까닭에 왔지. 네가 사는 이 집 대문턱이나 내가

어찌 알 까닭이나 있겠느냐. 네 집을 어디라고 알고서 내 스스로 올 일이나 있겠느냐. 너무 그리 지나치게 굴지 말아라.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려려 려려…
어려가 월하량
요조의 잎으락은 청대잎
으름이랑 쐬으름
어려 어려가 돌돌돌…
요 ᄆᆞ시야 저 ᄆᆞ시야
어려가 돌돌돌…

옮김

어려 어려 어려 려 려 려…
어려가 월하량
요 조의 잎사귀는 靑竹葉
열매랑 쇠 열매
어려 어려가 돌 돌 돌…
요 마소야 저 마소야
어려가 돌 돌 돌아가 돌아가

- 어려 : 마소를 모는 소리(馭驢)의 取音. 馭는 「御」에 通하고 말을 어거한다는 뜻(牛馬나 나귀를 부린다).
- 월하량(越下量) : 알로 넘어 갈 것을 해아린다는 뜻(一說 月下凉). 밭 일부분씩 밟아가서(3회 정도) 미답부분의 아래쪽으로 넘어 갈 것을 예고하는 구령 마지막에 돌돌…하는 유다른 장단가 고저의 音調의 구령으로 방향을 바꿔서 차츰 내려간다.
- 으름 : 열매, 이삭. • ᄆᆞ시 : 마소(牛馬).

조(粟)밭 볼리기(밟기) 답용가(踏用歌)다.

본도 토질이 화산 회토임으로 매우 척박하고 무기(無氣)하여 비가 오면 땅이 불어나고 마르면 콘크리트 마냥 굳어져 기통(氣通)이 저해될 뿐 아니라 땅에 구열(龜裂)이 생기면서 지면의 흙의 분말은 바람부는 대로 날라가게 된다. 더구나 바람이 많은 본도이므로 매우 작은 좁씨 같은 종자들은 날릴 우려가 있고 또 발아한 후일지라도 착근(着根)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의 모세관 인력의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파종하면서 함께 반드시 우마로 하여금 지면을 단단하게 진압(鎭壓)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훈련이 잘 된 군마(軍馬)와도 같이 칠팔십 필의 군마(群馬)는 선두에 선 지휘자의 조래와 지휘봉으로 능히 전진 좌우로 임의로 부대를 조종하며 답출(踏出)시에는 인마 함께 노고를 덜기 위하여 혹은 행동함에 한 호령이면서 「어려가」「越下量」「돌돌돌돌…」은 인마 함께 같은 행동을 취하는 음악적인 구령인 것이다.

맥수(麥收)가 끝난 7월 초순의 넓은 들에는 멀리서 가까운데서 흘러 나오는 조밟기(粟踏田)가성(歌聲)이 유창하게 들리게

된다. 호흡의 조절이 능숙하고 농부의 자연스럽고 독특한 멜로디에는 아무리 바쁜 과객이라 할지라도 녹음(綠蔭)을 찾아들어 한참 동안 그 노래 듣기에 경각을 잊고 귀를 기우리게 하니 유독 남국 제주도의 유풍의 하나인 장관이 아닌가 한다.

길주 멩천

길주 멩천 세포 장시야
날이 새건 질행을 나라
돍이 울건 나지를 말라
밤중만에 우녀는 돍이
춤돍 아닌 인돍이러라

옮김

吉州 明川 細布 장사야
날이 새거든 길행을 떠나오
닭이 운다고 나지 마오
밤중만 하여 우는 닭은
참닭이 아닌 人닭이라오

대륙과 떨어져 있는 절해고도 이 섬은 옛날부터 해외의 상고(商賈)들의 출입이 잦아 자연 무역이 성황(盛況)하여짐에 근해뿐만 아니라 멀리 평안, 함경도 방면의 상고들도 내왕이 빈번했다. 길주(吉州), 명천(明川) 등지서 세포(細布)를 지고 들어온 상고가 있었다. 하룻밤을 쉬고 닭이 울면 곧 일어나 시로 들어갈 작정으로 북도(北道)지방에서 왔다는 어떤 객주집에 들었다. 주인에게 내일의 자세한 여정을 말하고 닭이 울면 곧 발정(發程)할 것이라고 제반(諸般) 당부해 두고 배멀미에 피곤도 하였으므로 깊이 잠이 들었다. 기 집 주인 내외는 상인의 행계(行季)가 대중함을 보고 불같이 일어나는 물욕에 눈이 어두워 전후를 헤아리지 못하고 둘이서 조용히 의논하였다. 상인은 닭만 울면 떠난다 하니 한참 들거든 아내는 닭텅애(닭집) 가까이서 닭 울음 흉내를 하면 남편은 길가에 잠복했다가 때를 잘못 알고 나선 그 상인을 겁박(怯迫)하여 물건을 빼앗자는 것이 아닌가. 이 집의 어린 하녀 잠결에 이 말을 엿듣자니 순진무구한 양심의 소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외분이 의논 후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빠져 나와 나그네의 방문 앞에서 소녀는 조용히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상인은 뜻밖인

일을 비로소 약하약하(若何若何)한 사실인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계오구도(鷄鳴狗盜)란 고사(故事)가 바로 여기 있구나. 비할 데 없는 이 고마운 소녀에 나그네의 감격은 눈물을 지어가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치사(致辭)하였다. 상인은 무도(無道)한 주인에 대하여 누를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순진한 소녀의 의담(義膽)에 감복 흉중(胸中)에 난맥(亂脈)을 친다. 진흙에서 솟아 났어도 오히려 깨끗한 목단(牧丹)의 아름다운 자태야말로 이 소녀를 두고 뉘에게 말할 것인가.

어긴여랑

에- 에-
이건여랑 상ᄉᆞ대여
뒷멍애랑 나아가라
앞멍애랑 들어오라
넓은 목에 번개치듯
좁은 목에 배락치듯
건들건들 매어가라
어긴여랑 ᄉᆞ대로다
전통같은 풀다시로
쇠시랑ᄀᆞᆮ은 큰 손으로
매콥같은 ᄀᆞᆯ갱이로
소리처멍 매와 들멍
혼소리에 덜석 거령
어서 펄작 드러 매라
어기여랑 ᄉᆞ대로다

옮김

에- 에-
어기여대라 上四大다

뒷이랑은 나아 가라
앞이랑은 들어오라
넓은 목에 번개 치듯
좁은 목에 벼락 치듯
건들 건들 매어 가라
어기여대라 四大가 아니냐
전통 같은 팔뚝으로
쇠스랑 같은 큰 손으로
매발톱같은 호미로
소리치면서 모여 들면서
한 소리에 들석거리며
어서 펄적 들고 매라
어기여대라 四大로다

- 상ᄉᆞ대 : 상사대(上四大). 上은 第一, 으뜸, 큰. 四大 : 四大六身(팔, 다리, 몸뚱이, 머리).
- 上四大 : 第一 강건한 몸집, 一說 上巳臺. 魚遊河.
  (例) 그 사람 四大가 커서 기운이 세서.
- 전통(箭筒).

7, 8월 내리 쬐이는 폭양 밑에서 여초작업이란 신산(辛酸)하다기보다 말 그대로 고통이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격한 움직임이 업으므로 한가한 일 같으나 그 실은 매우 힘든 일이다. 토질이 육지와 달라 건조해지면 땅이 「콘크리트」 마냥 딴딴하게 된다. 그러나 작물 이상으로 잡초는 무성하여 개중에는 재완지(바랭이)니 마디풀이니 새풀이니 줄기마다 세근(細根)이 세게 땅에 들이박혀 뽑는 사람보다 뽑히는 잡초 뿌리가 힘이 더 세다. 적으면 두 세 사람 많으면 2,30명 남녀가 횡대로 나란히 앉아 이 노래를 부르며 온 종일 제초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손이니 팔뚝이니 허리니 무릎 오금이 고통을 느낀다. 차양(遮陽)용 소형 삿갓을 머리에 쓰나 흘러 내리는 땀으로 작업복(감옷)이 흙투성이가 된다. 이 노래는 역군들이 스스로 고역을 잊어 시간 허비를 말고 흥미를 북돋아 작업에 염오(厭惡)와 권태를 일으키지 않게 전광석화처럼 시원스럽게 바삐 작업을 해가자는데서 불려진 노래다. 제아무리 뿌리깊게 박혀있는 무성한 재완지일망정 내 강건한 사대육신으로 번개와 벼락치듯 시원스럽게 애제(艾除)해 버리자는 것이다. 넓은 밭에서는 한쪽 이랑에 앉아 밭 끝 이랑 앞을 바라보면 가믈거리는 아지

랑이가 십리밖에 보이니 시작하기 전부터 그만 염증이 생길만 하다. 그러므로 이내 전통같은 팔뚝으로 쇠시랑 같은 내 손으로 매톱 같은 예리한 골갱이(호미)로 오금이 살게 덜먹덜먹 거리며 쉴새없이 어서 펄떡 힘차게 해 지기 전에 신속히 일을 진취(進取)하자. 강한 내 사대를 가지고 요만한 일쯤이야 못당할 것이 뭐냐. 어서 빨리 매어 해나가자.

뭣을 입엉

뭣을 입엉 손 대우가리
씨어멍 연반물 치매
게나 입엉 손대우 가라

옮김

무엇을 입고 손님 맞으러 가나
시어머니 연반물 치마
그것이나 입고서 손님 맞으러 가지

- 게나 : 그게나, 그것이나.
- 연반물 : 연한 검은 색이 띤 남색(예전에는 많이 쓰여졌던 물감).

흙에 파묻혀 일생을 보내는 바에야 나들이 옷이 필요함을 그리 느끼지 않고 또한 나들이마저 할 일이 없지 않은가.

동이 트면 전둥 전둥 아침 밥이나 끓여 먹는 시늉하면 들로 나가거나 산으로 가거나 밭에 가거나 또는 짐을 지고 시장으로 가게 되므로 깨끗한 옷이나 치마 같은 것을 바꿔 입을 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한 옷 따위는 애당초 마련할 필요조차 없지 않으냐. 그저 갈적삼과 갈중의(柿汁染中衣) 한 벌이면 족하고 노동에는 가장 적의한 복장이 아닌가.

이러한 집에 불의에 찾아 온 손님이 있었다. 당황한 것은 두말 없이 이 며느리다. 치마를 입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손님 앞에 나설 수 없다. 사실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는 것이고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고 몸을 가려서야 인사를 차리는 것이다. 평소에는 필요가 없었으나 이러한 때에는 매우 곤란하게 된다. 어떻게 하나! 무엇을 입고서 손님을 영접하나. 얼른 내키는 생각이 시어머니 치마 그것이나 빌어 입고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시어머니의 치마는 연반물로 물들인 치마였고 이 집안에서 단 한 벌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 집의 눈가리는 소중한 보배 같은 시어머니 치마가 아닌가.

저래 가는 심방

저래 가는 심방광 정시
이내 ᄉᆞ주 ᄀᆞᆯ리어 도라
원천강의 팔재여 ᄒᆞ건
우녀지는 마라근 가게
어멍 시민 어멍원 ᄒᆞ리야
아방 시민 아방원 ᄒᆞ리야
원천강의 나ᄉᆞ주 원ᄒᆞ구
원천강의 나팔재 원ᄒᆞ구
전승 팔재 궂임에 울주
좋아 시민 내 무사 울리
저승 더레 가는이 시민
아방님께 펜지나 ᄒᆞ영
펜지 보멍 날 ᄃᆞ랑 가게

옮김

저기 가는 무당과 地官
나의 四柱를 가리어 다오
원채 내의 八字라 하면
울지나 말고서 가게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를 怨하랴
아버지 계시면 아버지를 怨하랴
원채 나의 四柱를 원망하고
원채 나의 八字를 원망하고
전생八字가 궂기에 우는거지
좋았으면 내가 왜 울랴
저승으로 가는 이 있으면
아버지께 편지나 하여서
편지 보시고 날 다려 가게

- 원천강(袁天綱) : 당대의 유명한 점술가(원제, 본디, 根本)
- 四柱 : 八字, 한 평생의 運數.

사주팔자에 의하여 내 불행한 운수의 근거를 단정하려는 것이다. 사주팔자를 두고 행과 불행의 시시비비를 운위(云謂)함은 사람에 한하여 전유(專有)한 것이지마는 더욱 우리나라의 부녀에 팔자주의자가 많다. 이 섬주민들의 신앙적 사상이 농후하였고 미신에 혹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송당(松堂), 당산당(唐山堂), 토산당(兎山堂) 등등을 위시하여 5백여당이 있었다. 이러므로 남녀무당(심방) 즉무당이 극성을 이루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혹은 며칠을 계속하여 굿을 한다. 무격(巫覡)은 이 집 저 집 각처로 소청을 받아 전전하면서 기도의 타고성(打鼓聲)은 끈칠 사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島民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빼지 못할 필수요인중의 으뜸이었다. 약간(若干)한 몸살이나 안질(眼疾)만 생겨도 무슨 동티가 아닌가. 으레 지관을 찾아가거나 무격(단골)을 불러다가 주병(酒餠)과 메(祭밥)을 지어 놓고 모시(某時)를 기하여 화촉(火燭)을 밝혀 분향합장 배례하고 손을 비비어 공신강신(拱神降神)으로 시작하게 되면 날이 새도록 주문(呪文)을 외치고 소지(燒紙)를 올린다. 20세기 후기인 우주시대라는 오늘날에도 육지방면에서 지관(地官) 풍수사(風水師)가 입도했다면 다투어 가며 끌고 나가서 안정(安靖)한

선영(先塋)의 무덤을 파헤치고 백골(白骨)을 꺼내어 열일쇄골(烈日曬骨)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명당지를 찾아 산야를 헤맨다. 자손 안 되면 조상원망 한다더니 고히 잠든 분묘를 파헤치는 일이 허다하여 높다는 명사(名師)가 입도할 때마다 한 유골을 수 차례나 이장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니 타인의 가족묘지에 까지 야간투장(夜間偸葬)하여 의법 처단을 받는 현대문화인도 없지 않다. 태세신(太歲神)의 상징인 청룡(靑龍)의 지기(地氣)니 금기운(金氣運)을 맡은 태백신(太白神), 백호(白虎)의 지맥(地脈)이니 주작(朱雀)은 어떻고 현무(玄武)는 어떠하며 고목(枯木)에 봉춘(逢春)하여 개화결실지상(開花結實之像)이니 몇 代孫에 과거급제하여 영귀(榮貴)하겠고 토마가편지세(兎馬加鞭之勢)니 장차 몇 대손(代孫)에 재화의식(財貨衣食)이 풍족하여 부귀하겠고 교룡득수지세(蛟龍得水之勢)이니 당대에 국회의원이 나겠고 옥토망월지상(玉土望月之像)으로 금광이 만실(滿室)함에 장차 무엇 무엇이 될 귀인을 산출해 주겠다는 심각한 계약지지(契約之地)를 찾아 동분서주 애 쓴다.

어차피 이 노래는 내 일생을 운수의 판정선언을 받아 일생을 통한 나의 사주팔자를 평정(評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

튼 나의 불행은 무슨 탓인지 도무지 그 요인을 알 수 없다. 무당이나 지관으로 하여금 내가 사주팔자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싶다. 원채 팔자가 사나워 이 꼴인가, 사주가 틀려서 이 모양인가. 나의 팔자가 원천강(遠天綱)의 술법에 의한 틀린 운수라면 아예 삭발위승(削髮爲僧) 입산하여 아주 세상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야 내 무삼 원망할 거인가. 원채 험한 사주팔자겠기에 나는 울고 보내라는 팔자인가보다.

이 세상에 나쁜 팔자의 운을 타고나서 내 고충(苦衷)에서 번민만 더 심할 것이니 차라리 아버지 계신 저승에 가는 이가 있으면 나의 서러운 사유(事由)를 편지에 적어 아버지께 전하면 내 편지를 받아 보시고 아버지는 나를 데려가 주실 것이 아닌가.

씨앗전아

씨앗전아 강살음 말라
질에 보건 벗으로 알라

옮김

시앗아 강새암 말아라
길에서 보거든 벗으로 알려므나

- 강살음 : 강새암(씨앗끼리 시기하는 마음).

시앗아 아무리 시앗이라고한들 나를 그리 우악스럽고 사나웁게 굴지 말아라. 시앗이라면 그 무슨 삼생(三生)원수와도 같이 알아야만 할 것이고 꼭 짐승과도 같이 시기(猜忌)를 해야만 할 것이더냐. 어쩌다가 시앗이 되었기로서니 그리 강폭하게 굴지 말아라. 또 그리 강새암을 할 것도 없지 않느냐. 넌들 한 천년이나 살 것이며 난들 한 백년이나 살 것 같으냐. 너도 일이 님과 갈리는 날에는 네나 나나 그 무슨 지경(地境)이 될 것 같으냐. 여성이니 만큼 내일날도 길에서도 만날 때면 서로 말이나 건너 오래 사귄 친한 벗으로나 알고 대할 것이 아니냐.

짚고 넓은 물속

짚고 넓은 물속은 알아도
안고 도는 소년속 몰은다

옮김

깊고 넓은 물속은 알아도
안겨드는 少年 속 모르겠다

바다가 제 아무리 넓다기로 내 자의(恣意)로 헤엄치고 동지서지(東之西之) 막힐 것이 없고 또 그 물속이 제아무리 깊다기로 얼마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상지하지(上之下之) 내 임의(任意)로 여러 가지 실물(實物)을 다 모아 올릴 수 있을만큼 깊은 바다속일지라도 내가 능히 마음 대로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도리혀 내 품속에 안기는 한 길도 못되는 少年(내님)의 마음속만은 도무지 알 길이 어렵고 내 마음 대로 길 들이기가 매우 어렵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맘속 모른다는 말이 여거서 나온 말일게다.

이 섬의 옛 풍습에 칠십년 전에만 보더라도 남자 9세쯤만 되면 결혼을 시켰는데 신부는 12, 3세쯤 되고 보면 신랑보다 으레 3,4세 연장자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손윗 신부는 손아래 소년인 내 님을 정성껏 섬겨 내 품에서 남편이 자라나다시피 하지마는 이 소년 남편의 장래 마음속을 헤아릴 수가 없다. 모처럼 내 손에서 키웠지만 세정을 알만하게 되면 으레히 나이 젊은 여자를 맞이함이 상례이고 보면 우리 님 속을 헤아려 볼 수 없지 않은가. 조혼(早婚)으로 말미암아 그만 시앗이 생기고 혹은 연소(年少)한 신부를 맞아 재혼을 하게 되면 가정불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지도 않은 것이다.

부르거든

부르거든 놀래영 말라
부르거든 풍류영 말라
나어이엔 시름이러라

옮김

부른다고 다 노래라 말고
부른다고 다 風月이더냐
내게는 다 시름이더라

그저 함부로 부른다고 해서 다 노래라고 할 것이냐. 또 부른다고 해서 다 풍월이라고 말아라. 아예 부르기 좋다고 노래니 풍월이니 함부로 부르지 말아다오. 내게는 그게 다 큰 시름만 더 되더라. 노래를 불러 위안이라도 되려 했드니 위안은 커녕 도리어 내 마음속만 더 건드리게 되는구나. 화신(花信)을 싣고 따스한 봄바람이 귀뿔에 불어 올 때면 매화가지에는 재빨리 찾아드는 꾀꼬리의 알뜰한 사랑의 노래 소리도 도화(桃花) 꽃의 화심(花心)을 다투어 드는 떼 봉접(蜂蝶)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소상(瀟湘)에서 추풍(秋風)을 타고 밝은 달을 벗 삼아 날아 해매는 고안(孤雁)의 짝 부르는 안타까운 저 소리만 들어도 내게는 모두 시름이 될 뿐이더라. 네가 함부로 부른다고 내게 위안이 될 것 같으냐? 아예 노래니 풍월이니 부르지 말아다오. 내 간장속만 더 태우는구나.

강남가도

강남가도 삼년에 온다
서울가도 삼년에 온다
황천질은 조반날 질이라도
흔번 가난 올 줄 몰라라 흔다

옮김

江南 가도 삼년이면 온다
서울 가도 삼년이면 온다
黃泉길은 하루 아침 길이면서도
한 번 가서는 올 줄 모르더라

- 조반날…잠간 사이, 하루 아침 사이(須臾).

나 혼자서 오랫 동안 애를 태우다가 또 이제는 님과 사별(死別)마저 하고 청상과부가 되어서 원통함을 부른 노래다.

님은 장사 함네 하고 배를 띄워 바다 건너 강남이니 혹은 서울이니 하여 떠돌아 다녀서 몇 해 동안 그 사이에 나는 홀로 속을 태우면서 이 날에나 저 날에나 하면서 날짜를 헤아리고 있노라면 그래도 삼년이면 님은 틀림없이 돌아오더라. 그러나 생각하면 그 몇몇 해 동안 내 독숙공방(獨宿空房)에 홀로 아까운 청춘을 상심(傷心)과 수심(愁心)으로 허송(虛送)하여 어지간히 속을 태웠지마는 그래도 참고 있으랴면 으레히 돌아오긴 하더라. 그럴 때면 겹쳤던 괴로운 마음이 자취없이 사라지고 어딘가 마음이 가벼워지며 날 것 같더라마는 무슨 놈의 님의 사주(四柱)인가, 내 팔자인가, 험하였기로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황천길로 가고 말았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원통하고 분한 노릇이다. 땅을 치며 울부짖어도 시원치 않구나. 수만리(數萬里) 물밖에 그 먼데 갔어도 날 생각하고 어느 때고 꼭꼭 돌아왔었지마는 이번 간 길만은 하루 아침 수유(須臾)의 어간(於間)인데도 우리 님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고 말았구나. 이런 비통하고 애통한 이런 노릇이 세상에 다

시 어디 있담. 사람이면 죽는 일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지
마는 나와 같이 불쌍한 년의 청상(淸狀)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야 뒤야

어야 뒤야 어야뒤야
서울시세 오르고 ᄂᆞ려
요디 시세 흔 시절이여
맣이 먹젠 산전에 가난
마이정당 시정당 줄에
발이 걸련 유우럼서라
산에 가난 살장귀 소리
물에 가난 숨비절 소리

옮김

어야뒤야 어야뒤야
서울 時勢는 오르고 내리나
여깃 時勢 한 時節이라오
맣이 먹고자 山田에 가서는
마의 덩굴 댕댕이덩굴에
발이 걸려서 이울고 있다오
산에 가서는 무당 장고소리
바다에 가서는 숨비절 소리

- 쇠정당 : 댕댕이덩굴.
- 숨비 : 해녀의 횟파람 소리.

사람에겐 제 각기 타고난 재질이 있고 업이 스스로 마련되어 있는상 싶다.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익히 배워 자기의 취미와 흥미를 가짐으로써 그 지식과 기능이 연마되면 택하여 업으로 삼고 일평생을 두고 귀한 생명을 유지하자는 방도일 것이다. 개중에는 분에 지나고 재치(才致)없는 사람이 기계나 수공업자가 되려거나 또 아무런 취미와 환경의 혜택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기능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업을 가진 댓자 성공할 수 없고 무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민요는 천초(天草)의 명산지(名産地)인 우도(牛島)에서 불리우는 노래다. 그러므로 천초는 옛날부터 서울 등지에 많이 수출했던 것이다. 서울서는 값이 묘담(昴膽)하여 좋은 시세를 보인다. 하나 생산지인 여기 시세는 조금도 상승함이 없어 그저 한 시세임으로 아무리 일을 한대두 수지(收支)가 고르지 못하여 생활에 불안만 느끼게 된 한 해녀가 이젠 잠수업을 그만 두고 농사나 지어서 배불리 먹으면서 잘 살아보자고 산전에 갔다 가자마자 익숙지 못한 산길이라 마(薯)덩굴 쇠정당(땡땡이)덩굴에 발이 걸려 넘어져 상처(傷處)를 내어 그만 기동(起動)치 못하게 되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넓고 깊은 바다에선 아무런 거리낄 것

없이 그야말로 내 자의(恣意) 대로 내 자유로 헤엄을 치면서 작업을 했으나 산에 와서는 제 마음 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동티가 생겼나보다 하여 무당을 불러다가 산전(山田)에서 장구를 치며 기도하는 굿소리가 요란하게 되었다. 저 멀리 바다에선 작업하는 해녀들의 휫바람소리가 여전히 들리어 온다.

방애지영

방애 지영 역들젠 ᄒᆞ난
치맷 자락 전주리 난다
ᄀᆞ래 ᄀᆞᆯ앙 역들젠 ᄒᆞ난
적삼 배알 전주리 난다
방아 짓듯 물지듯 ᄒᆞ멘
세간 못할 지세멍 엇다

옮김

방아 찧어서 품팔이하려니
치마 자락이 다 누더기 나고
맷돌 갈아서 품팔이하려니
적삼 배알이 다 해어진다
방아를 찧듯 물을 지듯 하면
살림 못할 지어미가 없으리라

- 배알 : 소매의 下面(겨드랑이로부터 끝동 사이에 붙이는 군헌겊(회장과는 닳다).
- 지세멍 : 貞淑한 현모양처, 지어미.

여자의 품팔이로서 으레 방아찧기, 맷돌갈이, 김매기, 빨래, 바느질 따위가 있다. 이러한 품팔이를 할려도 의복이 없고야 맘 대로 나가서 일할 수 없을 것이고 연중 한두 벌 가지고서 다 헤어지도록 입다가 헤어지면 다시 기워 입다가는 또 헤어지어 누더기가 난다. 그러므로 의복을 매우 아껴서 알뜰하게 입는 것이다.

방아를 찧어 품팔이를 하려면 그 귀한 단 한 벌밖에 없는 치마가 다 헤어지며 맷돌갈이로 품팔이를 할려도 적삼 소매 밑바닥이 헤어져서 갈아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다. 일을 해서 옷이 다 헤어질 만큼 날마다 품팔이하게 되면 몸도 지쳐 고되고 그 신고(辛苦)함이 이만저만 아니나 그것보다 오히려 옷 걱정이 더 심한 노릇이다. 이와같이 고생을 무릅쓰고 부지런한 여자라면 비록 어려운 빈한(貧寒)한 가정일지라도 살림을 못할 현모가 없을 것이 아닌가. 품팔이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옷 걱정 하지 않고 먹고 살만한 여자라면 누구든지 오붓한 살림을 못할 양처(良妻)가 어디 있을라구.

※ 저고리 소매밑엔 군 연녹색 헝겊을 기어 붙인다. 이것은 팔굽이 자주 닿는데 소매가 매양(每樣) 헐기 쉬운 곳이니 여기에 「배알」을 달아 붙여서 때가 묻거나 다 헤어지면 새로 갈아 단다. 「배알」을 달지 않고는 소매가 빨리 헐게 되어 입을 수 없게 됨으로 소매에 헝겊을 겹붙이게 된다. 맷돌 가는 데에 자연 소매가 헐기 쉬운 까닭이다. 옷을 아껴 입는다는 경제적인 면이 여실히 볼 수 있다.

양반 양반

양반 양반 어떤게 양반
청사 도폭에 흑색띠 띄난
양반인 줄 알암서라
바른 질 오른 질 ᄒᆞ염서사
그게 진정 춤 양반이여

옮김

兩班 兩班 어떤 게 兩班
靑紗 道袍에 黑색띠 띠면
양반인 줄 아는가 봐
바른 길 옳은 길 행하여야
그것이 진정 참 양반이라네

양반에 대한 반발심에서 부른 노래다.

양반이라고 해서 청사도포에 몸을 두르고 흑색대만 띠면 정말 양반인줄 아나보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일 옳은 행사(行使)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참 양반이 아닌가. 지체 도도한 양반이라고 청사도포에 몸을 가리우고 그 마음 속에는 야수와도 같은 사욕(邪慾)을 가지지 않은 정도(正道)를 제대로 밟는 양반이 몇이나 있던고. 양반이란 껍대기 미명(美名)에 불의(不義)의 야욕(野慾)과 양반임네 자처하는 양반의 그 심리를 헤아려 보라. 무구(無垢)하고 순박(純朴)한 우매(愚昧)한 백성을 양으로 음으로 그 얼마나 괴롭혔던가. 죄없는 백성에 공갈, 협박 혹은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주리(周牢)를 틀고 양민의 착취 따위로 하여금 민간(民間)의 불안감은 일시인들 놓일 새가 없었고 특히 묘령(妙齡)의 여자들의 공포감이란 말할 나위도 없었고 백성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극도로 위축시켜 버리지 않았던가? 사회발전과 그 향상에 얼마나 지장을 가져 왔던 것일까. 양반의 권세를 부리는 통에는 양민의 등골의 냉한(冷汗)에 소소리 찬 바람이 오들오들 끼친다. 이 노랜들 어찌 자유로 개구(開口) 고창(高唱)이나 해졌으랴.

ᄇᆞ리거든(버리거든)

ᄇᆞ리거든 잎 핀 때 ᄇᆞ리라
ᄇᆞ리거든 꽃핀 때 ᄇᆞ리라
잎 저불고 꽃 가분 뒤엔
님이 만덜 나 어디 가리

옮김

버리려거든 잎 피었을 때 버려라
버리려거든 꽃 피었을 때 버려라
잎이 지고 꽃 이운 뒤에는
님이 마잔들 나 어디 가랴

- 가분다 : 이운다(萎落).

부부간에 있어서는 애정으로 상화(相和)함이 가장 필요하다 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백년해로(百年偕老)의 가약(佳約)을 굳게 맺아 놓고도 어쩌다가 그 사이에 금이 가고 그 금이 깊어 가면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슬픔을 초래하게 된다. 그것도 젊었을 때 아직 자녀가 없을 때 헤어지면 재혼하기도 용이한 일이거니와 자식이나 많이 매달리고 보면 그 헤어지는 비극은 더욱 심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가정의 남편은 조강지처로 아내는 일부(一夫) 종신(終身)함에 있어서만이 부부 사이에 가지는 신비한 애정과 부부 윤리로 낙원의 온유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늙어진 오늘에 와서 남편이 싫다 하여 박차고 버린다면 이제 늙어야 어딜 가지기나 할 것 같으냐. 버리려 했거든 이왕에 잎 핀 때에 버리던지 꽃 핀 때에 버릴 것이 아니었더냐. 꽃도 피었을 때가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때이니 만큼 누구나 다 반겨하는 때가 아니냐. 그 아름다운 꽃도 이울면 그만 보잘 것 없음과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가 한창인 것이 아니더냐. 기왕에 버리려거든 일찍이 그 젊었었을 때라면 나도 달리 생각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더냐. 무슨 놈의 원수가 되어 오늘에 와서야

나를 버린다면 내야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 아니냐. 너도 좀 생각해 봐라. 젊었을 때에 그만 두었으면 나대로 새로운 살림의 길을 열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서로 좋아서 살다가도 싫어지면 얼마든지 2차, 3차적인 재취니 삼취니 할 것이고 남편이 싫다 하여 하루 아침에 재가의 가마를 얼마든지 바꾸어 타게 된다면 그 현실 부부의 생활은 가정에 대한 애착심, 안정감이 있을 리 없고 단락(團樂)한 가정을 이루기 보다 어느 때 추풍낙엽이 산산히 흩어지게 될 것이라면 가정이라는 기능을 이룰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바당절

바당절이 울어도 근심
ᄀᆞᆺ디절이 울어도 근심
나 오라방 물우에 놓안
빙이 어심 근심이러라

옮김

먼 바다절이 울어도 근심
물갓 절이 울어도 근심
내 오빠 물우에 띄워 보내놓고
병이나 없을가 근심이더라

• ᄀᆞᆺ : 갓, 가(邊).

섬나라라 대륙 육지에 이르자면 배를 타게 되는데 바람이 잔 때 순풍에 돛을 달아야 아무런 지장이 없이 항해할 수 있다. 항해 도중에 뜻하지 않은 바람이나 일고 물결이 세거나 안개가 끼거나 불시에 좋지 못할 날씨가 된다면 보낸 사람이나 황파해중(荒波海中)에 떠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심노(心勞)야말로 말할 수 없다. 폭풍이 일게 되면 무변대해중(無邊大海中)에서 그만 난파된 선박이 수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大海 물 위에 띄어보낸 여동생 오빠의 안부(安否)에 걱정되지 않을 것인가. 부모는 일찍 구몰(俱沒)하고 남매 단 둘이서 살다가 오빠는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로 떠났던 것이다.

망망한 대해에 일엽편주 둘도 없는 우리 오빠 떠나간 지도 벌써 오랜 시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 날이나 저 날에나 기별이라도 올까 조리는 가슴을 움켜 안고 기다리며 물결치는 바닷가에 총총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 보았으나 오늘도 아무런 소식을 얻어 듣지 못 한다. 먼 바다의 물결이 으르렁거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마음의 아픔과 가까운 바닷가에 물결이 동엉(산지 동쪽 해안에 있던 穴岩) 바위에 바람과 함께 부딪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운 생각만 난다. 우리 오빠

아무 탈이나 없을까 근심하면 할수록 두렵기만 하고 설레는 심회(心懷) 좀채로 풀 수가 없고나.

뭣인 일

뭣인 일랑 잘흔디 ᄒᆞ영
놈의 녑이 날 보내더라
보내커든 창신에 보선
어지럽다 거울신 말라

옮김

무엇을 잘 해봤다 하여
남의 집에 날 보내더라
보낼려거든 갖신에 버선
지저분한 짚신은 말어라

- 창신 : 갖신, 가죽신(革鞋).
- 거울신 : 짚신(草鞋).

당혼(當婚) 된 규수가 있으면 으레히 매개되어 적당한 혼처라면 양쪽 부모의 승낙 아래 정혼이 된다. 이 노래는 결혼하게 된 색시가 부른 노래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내가 무엇을 잘 배웠으며 무엇을 잘 했으며 또 집안에서는 무엇을 잘 해놓고 얼마나 잘 차려 놓았으며 여러 가지 혼수도 변변치 못하면서 남의 집에 나를 보낼 셈인가. 아무럴 값에 가야 할 시집이니 기왕 날 보내려거든 아무 것도 못 차렸으니 만큼 당일 남에게서 수치나 면하게 창신에 버선이나 신고서 보내 주세요. 지저분한 짚신은 과연(果然) 그만 두어요. 혼수마저 변변치 못한데 신부가 짚신을 신고 간다면 첫날부터 시가에서의 인상이 어떨 것인지 빤한 일이 아닐까? 창신(갖신)이란 고가(高價)일 것이므로 가난한 집에서는 그리 쉽게 얻어 신을 수 없는 것이고 평소에는 으레히 짚신을 상용(常用)하게 된다.

사실 예나 이제나 신부택에서는 필요 이상의 혼수를 마련하고 시집을 보낸다. 침구(寢具)가 몇 채니 욕(褥)방석이 몇 죽(打)이니 궤(櫃)가 몇 조(組) 단사(簞笥)니 다(茶)장이니 청동화로니 식기일체 유기(鍮器), 빛접 일식(一式), 세면기(靑銅製大也),

침선(針線)도구, 화문상자(花紋箱子) 일 식, 하동의복 수십 벌 등등을 우마 기견(幾駄)에 나누어 싣고 당일 결혼행렬 뒤에 따라가고 특히 신부가 탄 가마 안에는 익강(溺江, 靑銅製)마저 넣고 간다. 시가에 가면 신부방에 나열해 놓고 또 신부방에 둘러친 병풍에는 차리고 간 의복 따위를 전당포마냥 즐비하게 걸어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갓을 쓰난

갓을 쓰난 양반이더냐
물을 타난 양반이더냐
청사 도폭 구륵샤티에
황갓 쓴게 양반이더냐

옮김

갓을 쓰면 兩班이드냐
말을 타면 兩班이드냐
靑紗 道袍 까만실 띠에
큰 갓 써야 兩班이더라

- 구륵샤티 : 明袍絲, 黑帶.
- 황갓 : 큰갓.

의관(衣冠)을 차린다는 것은 예의(禮儀)라면 지위에 따라서 응분의 복장을 차려야 한다. 소위 양반이란 반드시 소정(所定)인 의관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도 섭의(攝衣)함에 있어서 입궐(入闕)할 때와 평소에 착용하는 것이 다르나 외출할 때에는 갓(笠子)을 쓰고 주의(周衣)를 입은 위에 다시 도포를 겹쳐입고 행전(行纏)을 치는 것이다. 양반 아닌 일반민은 양반이 착용하는 갓보다 둘레가 작은 것을 당용(當用)하고 주의만을 입는 것이 보통 남장(男裝)인 것이다. 서로 인사를 교환하거나 어떠한 행사에 있어서도 갓을 벗는 일이 없이 그대로 허리를 굽혀서 예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멀리 외출을 하게 되면 말(馬)을 타고 왕래하게 되면 잘 울리는 말방울을 달고 넓고 커다란 물래착(말다래 길이 70㎝, 넓이 1m나 되는 타원형인 겹쳐 만든 가죽)을 탄 안장(鞍)에 올라 앉아 방울을 울리며 시골 외방(外坊)에 드나들이 한다. 이럴 때면 멀리서도 울리는 그 방울소리에 외래객이 출입함을 곧 알 수 있고 대중의 시선을 모으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갓을 쓰고 말을 타서 양반태를 내면서 어느 농촌에 들어섰다. 때마침 밭에서 김을 메고 있던 부녀들이 이를 보고 이런 노래로 야유하는 것이다. 제딴은 갓을 쓰고 말을

타서 제법 양반 흉내를 내면 양반인 줄 아는가 보다. 보아하니 저 사람은 진정한 양반이 아니로구나.

양반은 으레히 큰 갓을 써야겠고 청사 도포를 입고 검은 명주실 띠를 띠었어야 정말 양반이겠는데!

양반이 아니면 큰 갓과 도포를 입지 못하기 까닭이다.

살챗보리

살챗보리 거죽채 먹음으로
씨앗이사 흔집에 살리야
시앗언인 고을이 시리야
방상이나 외데민 ᄒᆞ라
방상이사 어드레 외리
물질이나 외데민 ᄒᆞ라
물질이사 어드레 외리
이내 눈이나 외데민 ᄒᆞ라
내눈이사 어드레 외리

옮김

겉보리를 거죽채 먹기로서
시앗이야 어찌 한집에 살리
시앗 없는 고을이 있을라구
親戚이나 믿고 살리라
親戚이야 어디 背叛하랴
潛水질이나 믿고 살리라
潛水질이야 어디 배반하랴
이내 눈이나 믿고 살리라
내 눈이야 어디 배반할 것이냐

- 외데민 : 시뢰(恃賴).
- 외리 : 배반하랴.

보리는 껍질을 벗겨 쌀로 딱아 내어야 비로소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먹지 못할 겉보리를 차라리 껍질채로 억지로 먹을 수도 있으리라마는 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시앗과는 어찌 한집에서 같이 살 수 있으랴. 그렇다고 해서 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하지마는 시앗 없는 마을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이런 꼴 저런 꼴 차마 볼 수 없으니 친척에나 위뢰(委賴)하여 살아나볼까. 친척이야 어디 함부로 배반하여 좇아버릴라구. 그렇지도 못하겠거든 잠수질이나 믿고 살리라. 잠수질이야 어찌 나를 버릴 것이더냐. 그래서 내 눈(潛水鏡)이나 믿고 살자. 내 눈이야 나를 배반할 것이냐. 너마저 나를 소홀히 물리쳐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저 내 눈이 내 사랑이고 내 님이니 내 눈을 믿고 한 평생을 보내리라.

아들 낳고

아들 낳고 뚤 난 어멍
쏨지 닮앙 모난 말 말라
쫄은 적삼 진 치매 입엉
한질 구름 씰린 배엇다
모난 돌에 정 맞암서라

옮김

아들 낳고 딸 낳은 어머니
쌈지 닮아서 모난 말 말아라
짧은 적삼에 긴 치마 입고서
행길 먼지를 쓴 바 없다
모서리난 돌에 정 맞고 있더라

• 정 : 쇠망치.

아들이나 딸을 가진 사람이면 남을 시비(是非)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저해져서 시비를 못한다는 것이니 내 자식에게도 허물이 없지 않을 것이면 어찌 남의 자식을 함부로 시비를 하랴. 남의 시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도 아들이며 딸이 있었다. 그는 이웃에 이사온 젊은 부인의 험을 수다스럽게 곧잘 털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 젊은 부인은 참다 못해 이런 노래로 응수한다. 그 귀한 아들이며 딸을 낳은 어머니라면 좀더 어머니답게 점잖아라. 동네로 체신없이 싸다니면서 제 주제에 제만 잘난듯이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의 험담을 일삼아 하니 어찌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래서야 현숙부인(賢淑夫人)이라고 하겠느냐. 하기 좋다고 모난 말 함부로 조잘거리지 말아라. 네 얼굴이 본디 쌈지 닮아서 모난 말만 하고 다니는 게로구나. 내 짧은 적삼 입고 긴 치마를 입고서 행길에 나서지 너에게 먼지를 끼어 얹이면서 쓴바 없지 않으냐. 남이야 짧은 적삼이든 긴 치마를 입었든간에 네게 무슨 관계가 있으며 무슨 흉이더냐. 아예 그렇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길바닥에 있는 모서리난 돌 그 모서리를 없애고자 정으로 마구 패 없애고 있더라. 두고

보아라. 네 모서리 난 입에도 정 맞을 날이 올 것이니 말이다. 딸 가진 어머니 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딸도 이제 시집을 보내봐라.

험벅눈

험벅눈은 펏들 펏들
쓱랑눈은 쓱락 쓱락
설 굿은 덩 덩
담 고냥은 비룽 비룽
개낭 닢은 벌룽 벌룽
이내 몸은 그랑 그랑

옮김

함박눈은 펄펄
싸락눈은 싸락싸락
설 굿은 덩덩
담 구멍은 벌룽벌룽
누리장 잎은 나풀나풀
이내 몸은 주렁주렁

동절(冬節)이 되면 부자집에선 따뜻한 온돌에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지나다가 도리어 기도(氣屠)함을 느끼곤 한다. 그럴 때면 분각(分閣)을 열어 재치고 육화(六華)가 분분(紛紛)하는 설경을 내다보며 마음껏 즐긴다. 갈비를 굽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도 한다.

그러나 빈궁(貧窮)한 집에선 겨울이 되면 기한(飢寒)에 쫓기어 원수 같은 이 설한풍에 한없이 우수(憂愁)에 잠겨버리게 된다. 뼈를 오므라드릴만큼 한 찬 바람이 그치지 않고 함박눈이 펄펄 뒤덮더니 별안간 모진 바람에 싸락눈은 내 사정도 아랑곳 없이 창틈으로 뿌려든다. 세안에 떡방아 찧는 소리가 집집마다 요란하더니 이제 정초(正初)가 되었나 보다. 처처(處處), 가가(家家), 호호(戶戶)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 새해 수복(壽福)을 축원(祝願)하는 굿소리가 덩덩덩덩 들리는 구나. 펄펄 날리는 함박눈 춤에 덩덩 장단을 맞추며 하루 종일 굿은 쉴새 없구나.

이 내 몸은 새해 축복은 커녕 당장에 의식에 곤란 막극(莫極)이니 바늘 끝과 같은 찬 바람이 새여드는 냉돌(冷突)에서 홀로 쪼그리고 앉아 가슴속 깊히 수심(愁心)이라는 고통이 소

용돌이 치는데 둘러싸 있는 앞마당 얕은 돌 담장은 벌룽벌룽하게 뚫어진 담구멍마저 허수하고 그 담뒤로 늦게 떨어지다가 남은 바삭 말라붙은 누리장 나무잎이 찬 바람에 너풀거려 어딘가 그 쓸쓸한 찬기운을 더욱 북돋는구나. 이러한 적막한 주위와 처량하고 한냉한 환경의 분위기 속에 잠겨 있는 이 내 몸에 걸친 옷마저 다 헤어져 주렁주렁 떨어진 누더기 옷이로구나. 어찌 빈한한 홀아비의 신세 한탄이 일어나지 아니하랴. 인생이라는 이름을 지녔기에 슬픔과 괴로움 시름과 아픔을 느껴야만 할 것인가. 빈한한 서민 생활의 일단(一端)을 해학적(諧謔的)으로 풍자한 노래로서, 가난한 생활을 주위 자연현상에서 발단하여 표현해 놓고 가난한 생활고를 해학적으로 부른 동요(童謠)인 것이다.

밤중만에

밤중만에 돋아난 벨은
놈 어이엔 샛벨이여만
나 어이엔 이벨이러라
엿적 이멜낸 소년들아
날과 백년은 원수로구나

옮김

밤중만에 돋아 나온 별은
남에게는 샛별로 뵈도
나에게는 이별이러라
옛날 이별 낸 소년들아
나와 백년동안 원수로구나

- 이벨 : 이별(離別). 별(星)과 별(別). 同音重義.

나이 젊은 여자에게 님을 빼앗겨버린 중년 부인이 생이별에 애태우며 원망하는 노래다.

왜 그리 긴 밤이던고. 밤을 새자니 흩어진 마음에 전전불매(輾轉不寐) 잠이 들 리가 없다. 속상한 마음 가라앉일 수 없고 누를 길 없어 일어나 앉았다 누었다 하며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 청할수록 잠은 들지 않고 심사(心思)만 더욱 어지러워진다. 문을 박차고 앞 뜰로 나와 보니 동쪽 하늘에는 님과 서로 이별할 때에 떴던 저 별이 다시 떠 있다. 남(이별한 님)에게는 저 별이 전과 다름 없는 샛별이겠지마는 내게는 저 별마저 이별의 시름인 별이 되었구나. 나는 뜬 눈에 그 긴 밤을 혼자서 새웠지마는 남 된 님은 그 젊은 것하고 둘이서 도란도란 즐겁고 정답게 한 베개에서 잘 잤으리라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더라마는 우리 님을 뺏어간 나이 어린 젊은 것아. 너와 나는 서로 백년 동안은 다시 없는 원수가 되고 말 것이다.

그 옛날에는 누가 이별을 내었던고? 그렇구나. 이별이란 젊은 소년들이 창조해놓았던 것이로구나. 젊은 것들이 아니면 어찌 내게 이별이 있을 것이더냐. 죽어서 이별이란 것도 원통하겠거늘 살아서 이별은 어찌 당할 수 있는 노릇인가. 그것도

이 이별만큼은 눈 뜨고 절통(切痛)한 일이 아니겠는가. 애가 끓을대로 끓고 그만 심질(心疾)이 생기다 못해 오장육부마저 세세(細細) 절단되고야 마는구나. 그 원수 젊은 것 때문에.

홀어멍의 아들

홀어멍의 아들이라도
아름 ᄀᆞ득 서책을 안앙
좀이 ᄀᆞ득 붓을 죄영
일천장의 베리랑 ᄀᆞ정
삼천장의 먹으랑 ᄀᆞᆯ앙
팔도 만국을 저우리영
나라 영을 맡으레 간다

옮김

홀어미의 아들이라도
아름 가득 書冊을 끼어안고
한줌에 가득찰 붓을 쥐어서
一千장이나 되는 벼루랑 가져서
삼천장이나 되는 먹을 갈아서
八道 萬國을 해아리면서
나라의 영을 맡으러 간다

- 영(令) : 나라에서 으뜸되는 벼슬.

편모슬하에 있는 자식에 대한 면학가(勉學歌)인 것이다.

과모(寡母)의 자식인들 어찌 큰 희망과 포부가 없을소냐. 장래 청사(靑史)에 빛나는 훌륭한 위인(偉人)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찍 아비를 여읜 둘도 없는 어린 자식에게 간절히 면학함을 설론(說論)한다. 학문을 하여 선비가 되는 것은 아비 있는 유림의 자식들만이 할 것이더냐. 비록 보잘 것 없는 홀어미 자식일망정 한 아름에 가득 찰만 한 많은 책 곧 연포지서적(連抱之書籍)으로 또 한줌에 가득찰 붓 곧 상대지필(橡大之筆)로서 일천장이나 되는 벼루가 다 닳도록 삼천장이나 되는 많은 먹(墨)을 다 갈아 없어질만큼 면학하되 경서(經書)를 비롯하여 시부(詩賦)니 표책(表策) 등등의 문예까지 모조리 습득한 후에는 당당하게 대과(大科)에 응시 급제하고 전시(殿試)까지 합격하면 문필이 우리나라 팔도강산에서 제일로 떨칠 뿐아니라 만방(萬邦)의 문웅(文雄)과도 견줄만 하면야 아무리 이 섬 홀어미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라 영이라도 능히 맡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구 관

구관이엥 해ᄏᆞ두 말라
신관이엥 일ᄏᆞ두 말라
산짓물을 사흘을 먹으난
원의 공ᄉᆞ 혼공ᄉᆞ러라

옮김

舊官이라고 해롭게 말하지 말고
新官이라고 기리지도 말아라
山地 샘물을 사흘을 먹고 나니
元의 公事 한 公事란다

(濟州市)

• 해 : 害虐. • 일ᄏᆞ : 讚揚. • 산짓물(山地泉) : 시내에 있는 샘물.

가는 元이라고 헛들지 말고
오는 元이라고 진니지 말라
산짓물을 사흘을 먹으난
元의 공ᄉᆞ 혼공ᄉᆞ러라

(西歸浦)

• 헛 : 毁. • 진니다 : 譽.

목민지관(牧民之官)은 선정(善政)함으로써 명관(名官)이라 하겠다. 민중의 치(治)·불치(不治)는 관원의 선(善)·불선(不善)에 달려 있을 것이고 또 정(正)·부정(不正)과 결(潔)·불결(不潔)에 있을 것이라면 현(賢)·불현(不賢)함에도 있을 일이다. 명관일수록 민폐(民弊)를 끼치지 않고 올바로 공사를 처리함에 있고 모름지기 애민(愛民), 애고(愛顧)하며 구폐(捄弊)함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도에 도임하는 관원들 중에는 왜 그리 전횡(專橫)이 많은지 부패된 오리(汚吏)로 말미암아 민에 대한 폐가 심하였음을 이 노래로써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도민들은 관원에 대한 기대와 호의커녕 증오하는 심사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사(政事)에 대한 신뢰와 기대라기보다 관원에 대한 불안감부터 생긴다는 것이 도민의 감정이며 현실이었던 것이다.

원님은 자주 경질(更迭)되어 도임(到任)과 체거(遞去) 또는 재임시에는 으레히 관권으로 주민을 괴롭혔을 뿐 공사는 공사대로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었으나 민중은 감히 일언반사(一言半辭)도 할 수 없었고 부녀들 사이에는 이런 노래로 원님에 대하여 풍자하는 것이었다.

전출되어 가는 구관이라고 해학(害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도임하여 들어오는 관원이라고 해서 예찬(譽讚)할 것도 못 된다. 아무럴 값에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으면 좀 나아질까 바랐더니 단 사흘도 채 못가서 단시일에 구관이나 조금도 다름 없는 똑 같은 공사이고 보니 민심이 기대에 어그러졌던 것이 아닌가?

가다오다

가다오다 만난 님은
정으로나 살건마는
여문여장 드린 님은
정 터러지멘 못살더라

옮김

가다오다 만난 님은
정으로나 살건마는
예문예장 드린 님은
정 떨어지면 못산다더라

- 여문여장 : 예문예장(禮文禮狀).

완고한 봉건적인 풍속에서 당사자끼리야 알던 말던 부모끼리 엄연한 절차를 밟고 정한 결혼이 장차 부부 사이에 정이 떨어지기 쉽고 엄격한 예절을 밟지 않고도 가다 오다 만난 사람끼리는 다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봉건적 사상의 완고한 결혼풍속을 풍자한 노래다.

결혼함에는 일정한 예법을 갖춘 혼서(婚書)라는 예문예장이 있어 신랑 신부집에서 상호간 보내고 받는 편지가 있다. 그래서 소위 엄격한 대례(大禮)라는 의식의 과정을 밟았어야 비로소 결혼식을 거행하여 부부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부모들끼리만 하는 혼사의 예절이고 양쪽 당사자는 알 바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연소한 신랑 신부는 그저 부모의 지시 대로 순종할 따름인 것이다. 대례를 갖추어 결혼한다 손치더라도 본인들끼리 의사야 있던 없던간에 명에 의하여 결혼하게 되니 그 무슨 의무와도 같이 이행할 따름이다.

아무튼 이러한 엄숙한 예식을 갖추지 않고도 또 여러 가지 구비해야 할 조건을 밟지 않고도 길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알게 되면 사랑을 속삭이고 서로 깊은 정으로써 결합된 부부간에는 친밀해지며 그 애정이 깊고 의리가 두

터워져서 길이 길이 잘 살게 되지마는 예문예장까지 드리고 정중한 예식마저 거행해서 혼인을 했다손치더라도 부부간에 일조(一朝)에 정이 떨어지게 되면 다만 파경(破鏡)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다. 으젓한 예식을 갖추었으니 만큼 으레 부부 백년해로는 틀림 없어야겠지마는 정이 붙지 않고서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사실상 나이 12~3세의 신랑은 차차 성장하여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거나 정의(情意)가 붙지 않을 때면 여자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면 두말 없이 자기와 좋아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가랭ᄒᆞ영(가랭하영)

가랭ᄒᆞ영 보내영 두언
울에 녹연 지드럼서라
지드리던 엇인님 오리
잠엉 ᄇᆞ릴 줌이나 자라

옮김

가라고 하여 보내 두고서
울음 속에 녹여 기다리더라
기다릴손 없는 님 오랴
자면서 버릴 잠이나 자라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만 님을 보내어 두고 돌아오지 않는 님을 밤늦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여식에게 잠 자면서 단념해 버리라는 노래다.

인간에 싸움이란 없앨 수 없을까.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가정의 부부싸움 등등의 갈등과 갈등, 거기에 상호간에 충실한 의사야 소통되지 않는 까닭일까.

부부간에 어쩌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여식과 사위 싸움 사이에 장모의 중재에도 효과는 없어서 그만 님은 홀연히 집을 떠나고 말았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내자식치고 처가살이 내 즐겨서 할 것이더냐! 두고 봐라 내 어찌 다시 네 집에 발을 넣을 줄 아느냐. 홀홀 떠나고 말았다. 님을 보내고 난 이 젊은 아내 독숙공방에서 지난날의 달콤한 가지가지의 회상에 젖어 울음 속에서 마음을 태워 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가라고 보내놓고서 울음 속에서 온 몸을 녹히다 시피 눈물로 정례를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 인기(人氣)척만 나도 행여나 하고 님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그 심회(心懷). 밤이면 밤마다 울음 속에서 밤을 새니 보다 안방에 있던 딱한 그의 어머니는 「얘야 네가

나가라고 보내 놓고 울며 불며 기다릴 까닭이 뭐냐. 기다린댔자 가서 없는 님이 올 까닭이나 있겠느냐. 그런 기다리는 생각은 잠자면서 버릴 것이 아니냐. 모든 근심은 잠을 자면 다 잊어버린다드라. 어서 잠이나 자려므나」

잠대

잠대 잠앙 밭 갈기는
농부 님에 노름이여
붓대 잡아 글씨기는
선부 님에 노름이여

옮김

쟁기를 잡아 밭갈기는
農夫님의 노름거리여
붓대를 잡아 글씨 쓰기는
선비님의 노름거리여

- 잠대 : 쟁기, 밭 연장.
- 선부님 : 선비님(儒生).

누구든지 각자의 일사(日事)가 다 마련되고 정해 있을 것이 아닌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일은 농부의 일상생활이라면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것은 선비의 일상생할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 같이 다 일정된 각자 생활이 있을 것이어늘 선비가 붓을 들고 글씨를 쓸 수는 있을 것이나 쟁기를 잡고 밭을 갈 수는 어려울 것이다. 그와 같이 학문을 배우지 않은 농부가 어찌 붓을 들고 글씨를 쓸 수 있으리요. 그렇기에 누구든지 제 나름으로 맡아서 할 구실이 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잠대든 붓대든 간에 대는 대이고 농부님이든 선부님이든 간에 부님은 부님이로구나. 같은 대를 잡고 같은 부님이고 보면 선부님이나 농부님이나 동등의 위치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떳떳한 농부님의 부인이고 보면 부님의 처이니만큼 선부님의 아내를 부러워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오직 농부님의 아내로서 나의 일에 충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감줄 먹은 시욱

감줄 먹은 시욱이더냐
유줄 먹은 시욱이더냐
요 방상의 정녁의 뚤년
씨앗도사 아니란 년이
나롤 보멘 시욱이러라

옮김

감자를 먹고 씨욱적거리느냐
유자를 먹고 씨욱적거리느냐
요 집안의 계집 종 딸년
시앗도사 아니란 년이
나만 보면 씨우적거리더라

- 시욱 : 씨우적(마음에 거슬러 不滿한 態度)
- 정녁 : 정녀(丁女), 下女.
- 도사 : 名詞, 아래에 붙여 强意를 표현하는 助詞.

내가 팔자가 험하기로서니 어쩌다가 이 집에 오게 되었다. 와서 보니 큰 어멍(本妻)이 있어 자녀들을 데리고 따로 산다는 것이었다. 내가 싫다는 것을 님의 감언이설로 나를 꼬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밭이니 논이니 가재(家財)가 넉넉하여 아무런 걱정이 없고 무얼 하나 남부럽지 않게 호화롭게 살 수 있다는 데서 그만 내가 무엇에 미쳐서 여기에 왔을까? 자식들마저 있고 죽었다는 본처는 눈이 시퍼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때때로 그 애들이 출입이 잦으니 공연히 마음을 설레고 어느 시각에 큰 어미가 뛰어들 것만 같구나. 항상 마음을 턱 놓고 님이 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당치 않은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나 그짓도 참을 수는 있겠다마는 뜻밖에도 이 집 계집 종년이 내게 대한 태도가 자못 좋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 명색이 아무럴 값에 이 집 주인의 아내인데 원 저년이 왜 저럴까 말야? 뭐 감저(甘藷)를 먹고서 가슴 속이 울답증(鬱沓症)이 나서 거슬러 오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디신(酸) 유자(柚子)를 먹고서 네 배속이 매우 불안을 느껴 구역증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 년이 무슨 까닭으로 내게 불근거려 불만을 품고 내게 씨우적거린단 말

인가. 흥 우애가 깊다는 이 집안의 계집종, 딸넌 저 년마저 내가 뭐 너의 시앗이나 된 것처럼 그렇구나. 네 년이 시앗이나 되지 아니한 년이면 제가 대간절 뭣인데 나만 보면 까닭도 없이 씨우적거리니 떳떳치 못한 불측(不測)한 년이 아닌가.

푸릿 푸릿

푸릿 푸릿 댓닢 솔닢
봄철인 나오란 보난
백설 펄펄 동절이러라

옮김

푸릇 푸릇 대잎 솔잎
봄철인가 나와서 보니
白雪이 紛紛 冬節이더라

- 댓닢 : 솔닢, 대잎, 솔잎(竹葉, 松葉).

이 섬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여 있느니 만큼 온화한 지방이다. 그러나 산세가 고준(高峻)하여 제주십경의 하나인 녹담만설(鹿潭晩雪)을 자랑하다시피 한라산의 의항(蟻項)계곡에는 6월까지 잔설이 하얗게 뵈이나 남군, 서귀포 등지에서는 삼동(三冬)에도 그리 솜옷이 필요 없을만큼 온화하고 아열대 식물이 울창하고 백화(百花)가 난만(爛漫)하여 사시장춘(四時長春)의 경개(景槪)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에 선(亘)하여 계절의 명분을 말함인듯 동절이라고 알이키듯 가다가 눈이 소복소복 내리긴 하나 불과 하루 이틀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 정초 때에 하얀 눈에 깔린 새파란 백채(白菜)와 쑥갓을 뜯어다가 방금 잡아 온 생선으로 매운탕이니 찌개니 해놓고 겨울철 쌈을 먹는 그 신선한 맛이란 아마도 우리 한국에선 본도 아니고는 맛볼 수 없을 것이니 남국 풍미의 한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송백입동청(松栢入冬靑)이란 말도 있으려니와 그렇다고 특히 본도의 기후가 육지 내지(內地)와 다르다는 노래라기 보다 이 노래는 송죽이 청청하여 봄철과도 같은 따뜻한 온상(溫床)마냥 그 속에서 풍상(風霜)을 모르고 자라다가 하루 아침에 출가(出嫁)하여 보니 의외에도 쌀쌀한 눈 내리는 엄동과도

같이 냉냉하고 박정(薄情)하여져라. 이러면야 부근인정(不近人情)이 아니겠느냐. 내 스스로 아니 느낄 수 없다. 세정(世情)을 시절에 비유하여 부른 노래다.

어디까지나 본도 처녀의 순진무구한 정서적인 표현이 아닌가!

※ 호남지방에서 불러온 아래 항요(巷謠)와 유사하다.

솔핑 대로 푸릇키로
봄철인가 나왔더니
白雪이 펄펄 헐날인가
저건너 저 靑松綠竹이
날 속였네

이 노래는 전(前)민요와 비슷하나 기실(其實)은 고종 31년(갑오)에 전봉준의 동학당 혁명운동이 시기가 상조(尙早)임을 뜻하고 거사가 오유(烏有)에 돌아갈 것을 예언하면서 민중의 낙망을 우의(寓意)한 것이라 한다.

성님 성님

성님 성님 ᄉᆞ춘성님
씨집 살이 어떱데가
아이고 얘야 말도 말라
씨아버니 도련반에
수제 걸기 어렵더라
암툵 ᄀᆞᆮ은 씨어멍에
족재비 닮은 시누이에
솔치 ᄀᆞᆮ은 서방에
호초 당초 하맵댄 해도
씨집살이 더 맵더라
살잰 ᄒᆞ난 고생이고
죽잰 ᄒᆞ난 청춘이여

옮김

형님 형님 四寸 형님
시집살이 어떠 하오
아이고 얘야 말도 말라
씨아버니 도련牀에

匙箸걸기 어렵더라
암닭 같은 시어머니에
족제비 닮은 시누이에
쏠치같은 서방에
胡椒唐椒 그리 맵다 해도
시집살기 더 맵더라
살자하니 고생이 되고
죽자하니 청춘이 아깝구나

- 도련반 : 둥근 밥상.
- 솔치 : 쏠치(魚類).

호초(胡椒) 와 당초(唐椒)가 어찌 맵다한들 시집살이 만큼 더 맵더냐. 그 가풍(家風)이나 관습이나 예의 속절(俗節)이 다르고 그 위에 고된 노역으로 말할 수 없이 매운 것이란다. 그뿐 아니라 며누리는 범사에 호흡을 맞추려니 남 몰래 그 괴로움이란 이만저만 아니다.

둥그런 밥상에 수저 걸기마저 엄위(嚴威)하신 시아버님의 마음에 거슬릴까 하여 숨을 죽이며 매우 조심하기 때문에 식사 때만 하더라도 조마조마한 마음 누를 수 없고 병아리를 단 암닭과 같이 암상궂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교(奸巧)하기 짝이 없는 족제비 같은 얄미운 시누이가 항상 눈을 흘기며, 내 비위에 건드리기만 하면 쏘겠다는 쏠치와도 같은 남편의 눈치 코치 살피자니 참 어렵구나. 또 취사(炊事), 세탁(洗濯), 가정 작으마한데 이르기까지 전식구의 시비가 많으니 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걸까. 본시 맵다는 호초와 당초는 울면서도 억지로 먹어 삼킬 수는 있다마는 시집살이가 그러한 호초와 당초와 비할 수 없이 더 맵고 보니 어지간히 고통이 아니 될 것인가. 부엌에서 툇마루에서 남 몰래 매운 눈물을 얼마나 짜야 했던가. 하루에 얼마 만큼 나를 울렸드냐. 그 매운 눈물로 치

마자락이 마를 때가 없을 만큼 쓰라린 것이 시집살이더라. 그렇다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내다 버리고 그저 선뜻 죽어버리자니 한창 젊은 청춘이 아깝지 아니하냐.

ᄃᆞ리송당(다리 송당)

ᄃᆞ리 송당 큰 애기덜은
피뱅이 찧기가 제적이여
함덕 근방 큰 애기 덜은
신깍 부비기 제적이여
조천 근방 큰 애기 덜은
망근 뜨기가 제적이여
신촌 근방 큰 애기 덜은
양태 뜨기가 제적이여
벨도 근방 큰 애기 덜은
탕근 뜨기가 제적이여
도두 근방 큰 애기 덜은
모즈 뜨기가 제적이여
고늬 애월 큰 애기 덜은
구물 뜨기가 제적이여
애정 근방 큰 애기 덜은
자리 치기가 제적이여
차귀 고산 큰애기 덜은
물허벅 장시로 다 나간다

청수 당ᄆᆞ루 큰 애기덜은
지름 장시로 다 나간다
김녕 굴박 큰 애기덜은
태악 장시로 다 나간다
어등 무주애 큰 애기덜은
푸낭 장시로 다 나간다
종달 근방 큰 애기덜은
소곰 장시로 다 나간다
정의 산앞 큰 애기덜은
질쌈 ᄒᆞ기로 다 나간다
페선 뙤미 큰 애기덜은
통박 씨 타기로 다 나간다
서귀 근방 큰 애기덜은
전복 태기로 나 나간다

옮김

다리 松堂 큰 색시들은
피방아 찧기가 能手로구나

咸德 近方 큰 색시들은
신 총 비비기가 能手로구나
朝天 近方 큰 색시들은
總巾 뜨기가 能手로구나
新村 近方 큰 색시들은
凉太 뜨기가 能手로구나
別刀 近方 큰 색시들은
宕巾 뜨기가 能手로구나
道頭 近方 큰 색시들은
帽子 뜨기가 能手로구나
高內 涯月 큰 색시들은
그물 뜨기가 能手로구나
大靜 近方 큰 색시들은
자리 치기가 能手로구나
遮歸 高山 큰 색시들은
물허벅 장사로 다 나간다
淸水 닥마루 큰 색시들은
기름 장사로 다 나간다

金寧 갈막 큰 색시들은
띄움박 장사로 다 나간다
어등 무주애 큰 색시들은
푸나무 장사로 다 나간다
終達 近方 큰 색시들은
소금 장사로 다 나간다
旌義 山앞 큰 색시들은
길쌈 하기로 다 나간다
表善 또미 큰 색시들은
柊栢씨 따기로 다 나간다
西歸 近方 큰 색시들은
全鰒 따기로 다 나간다

- 피 : 稗.
- 제적 : 일에 능난한 사람(能手)(能熟하다), 或은 제격(格)의 「격」의 口蓋音化.
- 신깍 : 신종(짚신, 미투리의 총).

부녀들의 부업을 알려주는 노래라 하겠다.

본도 전역에 걸쳐 부녀들의 근로함을 향토 지방의 소산물(所産物)을 추출(抽出)하고 그에 연결시켜 그 특징을 자랑하면서 큰 색시들이 마치 자랑 경연장으로 나가는 것 같이 가정에서의 근면, 출가, 노동함을 찬양하여 제삼자가 부른 노래인가 한다.

본도의 여성들은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자립성이 강하고 물론 생활에의 자원으로서 활동이겠지마는 조의(粗衣) 악식(惡食)을 스스로 달게 받으며 내일의 삶을 위하여 어디까지나 나의 일에 인종(忍從)함을 깨닫고 그것이 으레히 여자의 지존(至尊)한 생활인 것처럼 그저 여성에게 주어진 다시 없는 의무라는 체념 아래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농사와 수산업 등의 여가를 또는 고요한 밤 깊이까지 손에 익은 부업을 택하여 실천이 있을 따름이다.

가사와도 같이 어느 고장이든 그 고장 나름으로 특색이 있을 것이 아닌가. 조천면 ᄃᆞ리(다리) 교래리(橋來里)와 구좌면 송당리 지방 그 일대 부근은 땅이 매마른 화전 산간 부락으로서 자못 토질이 경박(輕薄)하여 농작물이라고는 피(稗) 감ᄌᆞ(감자)(지방에서 지실이라함) 산도(山稻), 조(粟) 따위가 주작이고 보

면 주민의 식생활로 스스로 이러한 것으로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지방 처녀들은 날마다 피방아 찧기에 매우 바쁘며 시간적으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여기에 소모되며 피의 조제(稠製)에는 어느 지방 부녀들보다 제일 능숙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 민중으로서는 고무신이 생활 필수품에서도 으뜸이 되는 것 아지마는 우리가 짚신(草履)을 사용하던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본도 조천면 함덕 짚새기라면 육지부의 미투리(麻鞋)마냥 유명했었고 신을 삼기는 거개(擧皆)가 노인들의 가정 일사라고 하나 신발에 달리는 신깍(신총)은 부녀들이 곧잘 비비여 낸다.

말 총을 가지고 모자 탕건(宕巾) 망건(網巾) 따위를 뜨기는 조천면의 조천리와 신촌리, 제주시의 삼양동 별도(別刀 : 화북동) 도두동 근방이 옛날부터 생산 근거지로 유명하여 거기 처녀들은 솜씨가 매우 좋아서 깨끗하고 정밀하게 잘 편직(編織)해 낸다. 예로부터 통영(統營) 갓(笠子)이 유명했던 것은 본도 전기(前記)의 지방에서 산출하는 모자(갓통) 양태(凉太 : 갓돌래)가 조천면 조천리에 모자 시장이 한때 대성황을 이룬 때가 있었다.

애월면 고내리와 애월리, 한림읍의 한림 등지에선 어장(漁場) 성기(盛期)에는 출어에 지장이 없도록 부녀들로 동원되어 바닷가에 펴놓은 그물을 보선(補繕)한다.

한경면 고산리 차귀 근방에는 점토의 질이 매우 좋으므로 고산2리에서는 토기 제조가 유명하여 물을 담아 길어 오는 물허벅(汲水甁) 외에 항아리, 자박지(자바기), 단지 따위 질그릇을 구어낸다. 그래서 부녀들이 이러한 허벅이나 항아리를 5~6개씩 겹쳐 묶어 등에 지고 시장으로 나간다.

한경면 산간부락인 청수리와 닥ᄆᆞ루(저지리)서는 참기름이 명산(名産)이니 만큼 여기 부녀들은 오지그릇 병에 참기름을 담아 작으마한 멱서리에 넣어 등에 지고 어디든지 행상길로 나선다.

대정, 안덕, 중문 등지의 부녀들이 짜내는 자리(草蓆)는 경기도 강화 문석(紋蓆)에 못지 않을 만큼 깨끗이 잘 짜 낸다.

구좌면의 김녕리나 갈막(동복리) 등지의 해녀들은 건강한 체격과 잠수기술이 매우 능하여 멀리 육지부에까지 출가 작업하게 되면 중요한 잠수도구의 하나인 태왁(띄움막)을 등에 지고 다니므로 태왁장사로 보는 것이니 마땅히 해녀업을 말함이

다. 부녀들은 부락에 따라 땔나무마저 산에 가서 마련하는데 가용(家用)에는 주로 자초(紫草)를 사용하나 삭다리(삭정이)나 장작 따위의 화목은 돈으로 바꾸어 생계에 보태게 되니 유달리 구좌면의 「어등개」(杏源里), 「무주애」(月汀里) 등지의 부녀들이 푸나무 장사가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도내 유일한 염전(鹽田)은 구좌면 종달리에 있느니 만큼 부녀마저 염상(鹽商)으로 아니 나갈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종달리 소금바치」라면 남염상을 말한다. 정의(旌義 : 성읍리) 산앞 등지에선 토명주(土明紬) 마포(麻布)라든가 수목 따위의 길쌈을 잘하여 그 배틀(織造機) 소리가 집집마다 요란하게 들리고 보면 보(褓)찜 장사로도 으레히 부녀가 나가는 것이다.

표선면의 표선리와 남원면의 뙤미(위미리)는 옛날부터 동백나무가 울창하여 동백기름이 유명했으므로 그 동백씨 따기에 부녀들은 매우 바쁘게 된다.

서귀읍 서귀포 및 법환리 보목리 등지에선 삼동엄한(三冬嚴寒)에도 해중(海中)에 들어 생복(生鰒)을 따는 일이 그네들의 생업인 것이다.

이렇듯 본도의 부녀들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중노동을 하지

아니치 못함에 가사를 비롯하여 농사짓기, 해산물 채취, 가정 공업 시장에서의 매매 혹은 행상 보부상(褓負商)으로도 혹은 부녀가 초부(樵夫)노릇마저 해야 하며 연중 눈부시게 활동을 하게 됨으로 사시절 어느 사인들 조금도 한가한 틈이 없는 것이 이 섬 부녀들의 자급자족 경제와 근로를 주로 한 일상 생계인 것이며 본도 삼다(三多) 중의 하나인 여다란 말도 활동하는 여성들이 눈에 많이 띄이므로 그 출처 거근(據根)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산 뒤에

저 산 뒤에 꼬박 꼬박 ᄒᆞ는게 뭣고?
미뻬재잉여
미뻬쟁인 휜다
희멘 할애비여
할애빈 등 굽나
등 굽으멘 쇠질멧 가지여
쇠질멧 가진 늬 고망 나낟
늬고망 나맨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멘 가마귀여
가마귄 눕든다
눕드멘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멘 철쟁이여
철쟁인 잽진다
잽지멘 깅이여
깅인 붉나
붉으멘 대추여

대췬 든다
둘멘 엿이여
엿은 붙은다
붙으멘 느첩 나첩

- 미삐쟁이 : 억새 꽃(茅花).
- 할애비 : 할아버지.
- 쇠질매 가지 : 쇠길마.
- 늬고망 : 네구멍(四穴).
- 시리 : 시루.
- 늡든다 : 날뛴다.
- 심방 : 무당.
- 철쟁이 : 鐵쟁이(대장장이).
- 잽진다 : 집는다.
- 깅이 : 게(蟹).
- 든다 : 달다(甘).
- 네妾 : 내妾.

앞에 말과 관련이 될 다음 말은 앞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찾아 말을 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이란 풍자와 해학으로써 재미(滋味)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동요 역시 모여 앉은 어린이들 자신들이 문답식인 요(謠)로 기지(機智)를 견주어가며 그 분위기를 흥미있게 북돋는데 말미의 내 첩 네 첩이란 말에서 어른들에게 다분히 풍자한 동요가 아닌가.

강릉에도 유사한 민요가 있다.

메누리

메누리
고누리
씨집에
간
비오란
내넘언
못오란
게누어
자

옮김

며느리
고느리
시집에
가서
비 와서
냇물이 넘쳐
못 오니

거기 누어
자다

- 고누리 : 며누리의 말에 뒤이은 뜻 없는 말. (예) 「아버지 대바지」 「비바리 냉바리」.
- 자 : 자(尺)와 자(寢)와의 동음중의.

여아(女兒)는 어머니 혹은 언니의 바느질 하는 어두컴컴한 등잔 밑에서 대수롭지 않은 침선(針線) 따위를 배운다. 그러다가 시간이나 걸리게 되면 기나긴 겨울밤이라도 여아들은 자주 하품을 하게 되면 죄없는 졸음이 찾아 들고 앉은채로 꾸벅거리기도 한다. 그럴 때면 그 졸음을 깨기 위하여 잣(尺)대를 집어서 이런 노래를 한다. 침척(針尺)을 세로 들고 하단으로부터 좌우손을 번갈아가며 며느리 고느리 시집에 간 비오란……부르다가 「자」하는 끝말로 마즈막에 쥔 손이 여부족(餘不足)이 되지 않게 꼭 일척(一尺)에 들어맞아야 한다. 그럴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든다. 맞지 않을 때이면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동안 졸음이 깨어 하던 일을 다 마치고 취침하게 된다.

으레히 며느리는 시가에서 자는 것이 정상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노래에서는 필시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 간에 며느리는 친정에 와 있었음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잠간 다니고 올 작정으로 시댁에 간 사이에 그만 폭우가 내려 냇물이 쏟아져 넘쳐 흐르게 되었으므로 내(川)를 건너 올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서 잔다는 노래다.

지금엔 다리를 곳곳마다 가설함으로써 왕래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나 옛날에는 큰 비만 오게 되면 삽시간에 물이 모여 들어 큰 물이 넘치고 급류가 되어 왕래가 두절되나 하루 이틀이면 다시 건천이 된다.

흔 ᄆᆞ실에(한 마을에)

흔 ᄆᆞ실에 세 첩 흔 놈아
세 솥 밑에 불 솜아 보라
네란 나멍 불 아니 인다
뭣인 남글 불 아니 이런
비염포기 놀낭기 더라

옮김

한 마을에 세 妾한 놈아
세 솥 밑에 불 때어 보아라
연기만 나면서 불 아니 인다
무슨 나문데 불 일지 않던
보얀목의 날 나무더라

- 버염포기 : 보얀목(白木).
- 놀낭 : 날나무(마르지 않은 생나무).

한 마을에 셋씩이나 첩을 둔 남편에 대한 원부(怨婦)의 노래다.

너 무엇이 부족해서 한 마을 안에서 첩을 셋씩이나 두고 뭐 호강을 하려는 것이더냐. 흥 호강은 커녕 그저 밥 굶기에 안성맞춤이 되겠으니 말이다. 들어봐라. 내 암상궂게 하는 말이 아니다마는 한 부엌에서만 하드라도 여러 솥에 일시에 게다가 마르지 않은 생생한 날 나무로 불을 때어 보아라. 무척 힘이 들고서도 매운 연기만 나면서 어느 한 솥에나 불이 일 것 같으냐 말이다. 오로지 한 솥에서만 불을 때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자주 손보고 잘 조치했어야 겨우 불꽃이 일어나서 쌀이든 익어 밥이라도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여기 저기 건감(건사)이 많으면 한가지나 잘 이루어질 리가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 간에 일심불란(一心不亂)한 일에만 마음을 서서 건사해야 일이 잘 되지 않겠느냐 말이다. 다기망양(多岐亡羊)이란 말이 있다시피 여러 갈래 길에선 한 마리 양인들 거두기 어려울 것이 이리 쫓고 저리 쫓다가 보면 한 마리인들 거두기 어렵지 않겠느냐 말이다. 너 무슨 팔을 여섯이나 달린 애염명왕(愛染明王)이나 되었더냐. 복가 사랑을 누구에게나 나누어 준다는 자복신

(資福神)이나 되었더냐. 일부일처(一夫一妻) 일심동체(一心同體)로 오붓하게 한 가정만을 건사할 일이지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 놓고서 무슨 놈의 살림이 될 것 같으냐. 너 그러다가 한 살림도 이루지 못할 것을 각오해라.

자랑 자랑

I
자랑 자랑 웡의 자랑
이조 자랑도 흔 철이여
호조 자랑도 흔 철이여
예조 자랑도 흔 철이여
벵조 자랑도 흔 철이여
셍조 자랑도 흔 철이여
궁조 자랑도 흔 철이여
자랑 자랑 웡의 자랑

옮김

佐郎 佐郎 員의 자랑
吏曹 자랑도 한 때여
戶曹 자랑도 한 때여
禮曹 자랑도 한 때여
兵曹 자랑도 한 때여
刑曹 자랑도 한 때여
工曹 자랑도 한 때여
佐郎 佐郎 員의 자랑

Ⅱ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저레 가는 감동 개야
우리 애기 재와 도라
느네 애기 재와 주마
우리 애기 안 재아주멘
질긴 질긴 총배으로
묶어근에 짚은 짚은
천지소에 디리 쳐딱
내 쳤딱 해 보키여
우리 애기 재아 도라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옮김

자라 자라 웡이 자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저기 가는 검둥 개야
우리 애기 재워 다오

너의 애기 재워 주지
우리 애기 안 재워 주면
질긴 질긴 총바로
묶어서 깊고 깊은
천지소에 드리쳤다
내쳤다 해 보겠다
우리 애기 재워 달라
자라 자라 웡이 자라

Ⅲ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우리 애긴 착흔 애기
금을 준들 너를 주랴
은을 준들 너를 주랴
여의주를 나를 준덜
우리 애긴 너를 주랴
나라에선 충성둥이
부미에겐 소즁둥이
일가 방상 화목둥이
동내에선 인심둥이
유기 재물 지운 둥이
남전 북답 지운 둥이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옮김

자라 자라 웡이 자라
우리 애긴 착한 애기
金을 준들 너를 주랴

銀을 준들 너를 주랴
如意珠를 내게 준들
우리 애기 네게 주랴
나라에선 忠誠 童이
父母에게 孝子 童이
一家 親戚 和睦 童이
洞里에선 人心 童이
鎰器 財物 지닌 童이
南田 北沓 지닌 童이
자라 자라 웡이 자라

Ⅳ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우리 애긴 잘도 잔다
금ᄌᆞ둥이 은ᄌᆞ둥이
옥ᄌᆞ둥이 진주둥이
천지 건곤 일월둥이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우리 애긴 고장 밭에
눅정근에 꽃님으로
곱게 곱게 덮어 주곡
놈의 애긴 쇠똥 밭에
눅정근애 쇠똥으로
궂게 궂게 덮어 준다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우리 애긴 잘도 잔다

옮김

자라 자라 웡이 자라
우리 애긴 잘도 잔다

金子童이 銀子童이
玉子童이 眞珠童이
天地 乾坤 日月童이
자라 자라 웡이 자라
우리 애긴 꽃밭에
눕히고서 꽃잎으로
곱게 곱게 덮어 주고
남의 애긴 쇠똥 밭에
눕히고서 쇠똥으로
궂게 궂게 덮어 준다
자라 자라 웡이 자라
우리 애긴 잘도 잔다

Ⅴ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우리 애긴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자는 소리
은금 보배 지운 소리
놈의 애기 자는 소리
환상 빛채 제운 소리
자는 것도 즘 소리여
우는 것도 움 소리여
자랑 자랑 웡이 자랑
우리 애긴 잘도 잔다

옮김

자라 자라 웡이 자라
우리 애긴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자는 소리는
銀金寶貝 겨운 소리여
자는 것도 잠 소리여
우는 것도 우는 소리여

자라 자라 웡이 자라
우리 애긴 잘도 잔다

「자랑 자랑」

(Ⅰ) 자라 자라 어서 자라(寢)는 것, 제주방언중 「ㅇ」 응음(凝音) 곧 鼻音을 내어서 부드럽게 발음하는 말이 많다. (예) 강으내(가서), 왕(와서), 먹엉(먹고서), 어성(없어서), 넘엉(넘어서)… 수없이 많다.

(Ⅱ) 「자랑」은 좌랑(佐郞)의 와음(訛音)이라는 것, 「좌」를 자(訛音), 이 좌랑에는 육조좌랑(六曹佐郞)이 있어서 당시의 좌랑의 그 세도(勢道) 자랑이란 말할 수 없이 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은 그에 대하여 해학과 원심(怨心)에서 너무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는 말이 있지 않으냐. 너무 자랑들 말아라. 이조(吏曹)자랑도 한 철이면 호조(戶曹)자랑도 한 때고 형조(刑曹)자랑도 한 때가 아니냐. 그 자랑이 한 백년이나 갈 것이더냐.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마구 뽐내고 자랑들 하나 십년이 못가는 것이다. 권불삼년(權不三年) 세무십년(勢無十年)이란 말이 있지 않으냐.

이와같이 육조좌랑에 풍자하여 부른 자장가의 자랑은 좌랑의 아음이라는 것.

(Ⅲ) 자랑은 자장의 와음이란 점

자장은 자자에서 온 말이라는 것.

웡의 자랑 웡의 각설(各設).

(Ⅰ) 웡은 원(員)의 와음이라는 설

지방에선 지방 대로 원(수령)들의 세력의 자랑이 육조좌랑에 못지 않을 만큼 하였다.

역시 민중은 관원들에게 원의 자랑을 말라 풍저(諷詛)하고 부른 것이라 한다.

(Ⅱ) 온이 자랑 온(穩)이라는 설.

우리 아기 모든 근심 다 버리고 걱정없이 평안하게 잘 자라는 내용으로.

(Ⅲ) 옹이자랑 옹(顒)이라는 설

온유한 얼굴로 자라는 말이며 우리 아기도 자라나면 관원이 된다는 소망에서.

(Ⅳ) 영에자랑 영(嬴)이라는 설

아기구덕은(搖籃) 곧 영(嬴)이기로.

(Ⅴ) 왕이자랑 왕이라는 설

임금이 거둥하시니 젖먹이들은 종용(慫容)히 잠 자고 있으라는데서.

(Ⅵ) 원이자랑 원이라는 설

무서운 원군(元軍)의 침공이 두려우니 아무 소리 없이 잘 자고 자라는 뜻에서.

- 총 배 : 마총(馬總)으로 만든 바
- 천지소 : 깊은 웅덩이(沼)
- 여의주(如意珠) : 야광주(夜光珠), 飛龍得珠 造化如意의 如意珠.

본도에 유아용 죽제(竹製) 소형(小型)의 침대가 있으니 일종의 농형요람(籠型搖籃)인 것이다.

길이 1m 내외 넓이와 높이 40㎝ 가량인 바구니, 높이 1/3쯤 되는 중간 내부에 망을 칡 덩굴로 얽어매고 그 위에 소허(少許)의 맥고(麥藁)를 펴서 강보(襁褓)를 깔고 산후(産後) 3~4일이면 눕혀서 좌우로 흔들며 재운다. 여자의 침선(針線)시에는 한쪽 발로 흔들며 이 자장가를 부르며 운침할 수 있는 편리하고도 위생적이며 이상적인 요람인 것이다.

濟州島 民謠의 槪說

기록이 없는 옛 지대의 민중의 가장 오랜 정신문화 생활을 더듬고 새삼 그 기록을 마련함이 민속학의 하나의 소임일다.

濟州島 民謠의 槪說

I

제주도 그는 지난 날 섬나라 탐라였다. 절해 운도(雲濤) 속에 잠긴 고도(孤島)이면서 거기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고 민요가 있고 풍정(風情)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민요란 어느 지방에서든지 그 민중 사이에 공동 향유(享有)하여 언제나 불려온 것임을 두말 할 것 없거니와 본래 그 민중의 문화의 척도야 얕거나 높거나 종교와 철학이 있거나 없거나 산간유곡(山間幽谷)이든 한촌벽항(寒村僻巷)이든 사람이 모여사는 이상 그 지역에 속요(俗謠)가 없을 리 없을 것이고 민족이란 이름이 있는한 반드시 그들의 언어가 있어 그 민족언어로서 생활을 한다면 두말 없이 거기 이상이 없지 않거늘 그 이상의 표현에 색채이야 고사하고라도 노래가 결여(缺如)치 못할 것임에 곧 민요로서 그 기저(基底)를 삼을 것이니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그러하다.

제주도는 아득한 옛날에 섬나라로 열린 이래 오랜 역정(歷

程)을 통하여서 도민의 반여(半餘)인 여성들이 향기 그윽한 유자나무 그늘에 쌓인 애달픈 심정 그리고 날이 닳도록 불어오는 만리 장풍에 부딪치는 거센 푸른 물결과 일생을 두고 싸우는 해녀의 슬픈 「멜로디」 마냥 휫바람과 더불어 몸부림치는 인생의 괴로움 그 처량한 호소성(呼訴性)과도 같이 드높이 들려 온다.

인도에 신화, 애급(埃及)에 비화(秘話)가 있는가 하면 중국엔 그의 기담(奇談)이 있고 「아라비아」엔 야화(夜話)가 있다. 애란(愛蘭)에 애란민요가 있으며 일본엔 일본대로 그의 민요가 있어서 그네들 민족 생리에 알맞는 선율(旋律)로서 불리우고 있다면 우리 대륙 한국에는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황파(荒波)에 두루 쌓인 이 섬 제주도엔 제주 「오돌또기」가 있다. 정녕 「아리랑」이 한국의 낭만이라면 「오돌또기」는 틀림없는 제주도의 낭만일 것이다.

제주도의 민요는 본도 서민여성들에 의하여 시대에서 시대에 걸쳐 불려 왔으며 그 시대의 여성들의 순수하고도 숨길 수 없는 심회(心懷)를 창요(唱謠)로서 토로했음에 어디까지나 그들의 무사무구(無邪無垢)한 심정의 애소(哀訴)의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본래의 민요 그 바탕을 그대로 후세에서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여성간에 지극히 애통함을 되풀이하여왔다. 육지부 타지방에서 불리우는 민요는 비교적 민중의 윤택한 생활에 있어서의 부산(副産)으로 유희행락에의 한 약염(藥鹽)에 지나지 않으나 본도 민요만은 그와 상반하여 노동으로 생계를 삼던

부녀의 고역에 시달리는 기갈(飢渴)의 심정을 스스로 의유(醫癒)하고 윤기있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날 그날 한 합(合)의 서속(黍粟)일망정 호구(糊口)하기엔 마당히 방아질, 맷돌갈이(농사), 물질(潛水) 따위의 일상 범사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이 모든 일사(日事)는 민요와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하기보다도 민요속에서 생(生)하고 민요와 더불어 활(活)하고 민요와 함께 마친다 하여도 거기에 조금도 지나친 말은 아닐만큼 그 신비성이 내포한 이 민요는 본도 여성에 있어서는 불가이(不可離)의 강한 힘으로 맺어 있음으로써 삶의 경륜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실로 전생에서도 불렀고 이생에서도 부른다. 또 이 민요를 부르기 위하여 이 섬에서 태(胎)를 받고 출생한 상싶다. 태평성대에 격괴가(擊壞歌)를 고창(高唱)하던 그 옛날도 오늘날과 같은 민생고(民生苦)의 도탄(塗炭)에서 해매고 실혼(失魂) 백안(白眼)으로 우왕 좌왕하는 시대도 가곤 또 오곤하는 역사를 되풀이하는 와중에서도 본도 서민부녀들은 꾸준히 이 민요와 더불어 삶의 고락을 같이 하여 왔던 것이다. 이 민요에 의하여 도민의 옛 민풍(民風) 유속(流俗)의 일단을 더듬어 볼 수 있겠고 서민들이 상층 양반계급에의 지극한 동경과 혹은 그에 대한 내적 반발심, 부부의 애끓는 이별과 심원(心怨), 무남무녀(無男無女)의 청상과부의 장장추야(長長秋夜), 감상적인 독숙공방의 심뢰(心惱), 무의무탁(無依無托)의 고독한 환경에서 노래한 신세타령, 사회의 그릇된 관습과 환경으로 인한 축첩(蓄妾)에 대한 정치(情痴), 원한, 원모(怨慕)

따위의 서정, 시가생활의 그 고애(苦哀), 행(幸)가 불행을 불가동(不可動)인 사주팔자로 돌리고 전생(前生)과 차생(此生)과의 인과적인 그 무슨 필연적 숙명적 원차(怨嗟), 혹은 춘경하운(春耕夏耘)의 노역을 비롯하여 추수조제(秋收調製)에 이르기까지의 부녀의 노작(勞作)이었고, 또는 일부의 부녀 일생을 두고 황파절후(荒波絶吼)하는 창파(蒼波)와 싸우는 해녀의 잠수 등의 해녀요 혹은 사친요(思親謠), 동녀요(童女謠), 잡류요(雜類謠) 등등 천여 수백수를 헤아린다. 하나 소허(少許)의 남요(男謠)를 제하고는 대개 부녀 전유(專有)의 요(謠)인 것이다.

II

이 섬 부녀들은 사실 노래를 매우 즐겼었고 그 보다 잠긴 사상을 노래로 하여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때부터 불렀는지 시초없는 시초에서 불러왔고 누가 불렀는지 불리운 사람 없이 불려진 이 민요는 오늘날 애창하지 않는 부녀가 없을 만큼 계절이 감돌아 연앵(燕鶯)이 일난(日暖), 풍화(風和), 화신(花信)을 싣고 언덕 건너 실버들 사이로 날라 들 때에도 한풍야월(寒風夜月)에 짝잃은 고안(孤雁)이 독비(獨飛)하여 구슬피 하는 울음소리에도 고독한 주위(周圍)와 원심(怨心)이 많은 불우한 환경속에 안타까운 심회를 자연스럽게 맺아 놓아 매양 이렇듯 부르기를 좋아 했었다. 부르는 노래에 그 심현(心絃)의 진폭(振幅)을 남김없이 강한 힘으로 울리었으며 아무렇게나 중

얼거려 부른 이 민요 거개(擧皆)가 마치 격식이나 둔 것처럼 정형적으로 4·5의 율조로 기교(技巧)하게 구술되었다. 개중에는 이 격식 기조(基調)를 떠난 기허(幾許)의 수(首)가 낱말 파격의 음수(音數)로 되어 있는 것은 가창상의 형편(形便)의 특이함에 따라서 예(例)하면 노동의 종류의 특이함에 따라서 호흡에 알맞게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본도 민요는 순전 구전(口傳) 구승요(口承謠)이니만큼 흐르는 세화(歲華)에 민요 자체가 스스로 조잔(凋殘)해졌을 것은 물론이겠고 세찬 풍상과 모진 일륜(日輪)에 바래질 대로 바래져 탈색된 것도 없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근육(筋肉)이 이탈된 부분도 있고 특히 머리나 꼬리가 탈락되어 몸둥아리만 남은 것 혹은 사지(四肢)만 잔유(殘有)한 것이 없지 않을 것임으로 오승(誤承) 와창(訛唱)으로 인하여 필시야(必是也) 자연 와음(訛音) 화전됨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다. 게다가 어떠한 학적(學的) 인증할만한 뚜렷한 고증 문헌이 없으니만큼 본도 민요에 대한 가사의 일사(一詞) 일구(一句)의 원의(原意)같은 것은 크게 논의될 문제가 못될 것이 아닌가 한다. 명제(命題)야 있건 없건 체계야 서건 말건 두미(頭尾)야 있든 없든 격식이야 차리든 말든 난삽(難澁)의 어휘거나 유화(柔和)한 어조이거나 말거내 내용에 문장의 요소의 주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전래한 그대로의 형용(形容)을 존중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고 또 민요 사실 그대로 음미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투리 없는 사투리로 진정(眞正)하고도 참된 심정의 근저(根底)에서 우러나

온 그 요(謠)인 까닭에 「리듬」과 「멜로디」에 있어서는 그리 풍유(豊裕)한 맛은 많지 못하나 추호도 가장(假裝)이 없으며 솔직하여 수식이 없다. 이는 원래 도민들의 천성이 자연적 미의 소지(素地)를 좋아하기 까닭이라 하겠다. 마음이 순진하여 무사함이 그렇고 언어가 부드럽고 교언(巧言)이 없어 무구함으로 허위가 없이 진실하고 삶에 가식이 없어 차림에 부화경박(浮華輕薄)한 외식을 좋아하지 않고 사치를 싫어하면서 검소함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다정다감 친절하고 남을 속일 줄 모르고 도적이 없었으니 대문을 잠글 필요조차 느끼지 않으므로 주택에 문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정살문에 정나무(석가래 같은 가는 나무 棒) 두어 개피만 얹어 걸어두면 그만이다. 사람이 없다는 표식이며 우마의 금선이 될 뿐이다. 이 섬의 부녀들은 천성이나 태도나 동작이나 지어(至於) 용모까지도 단정하고 말 그대로 지닐 순정(醇正)하며 그 모든 일상생활에 소호(少毫)의 허식이 없다. 연지 찍고 백분(白粉) 치장할 줄 모르며 분면(粉面)의 구역이 나는 냄새 보다는 갈옷(柿衣)에서 풍기는 가벼운 흙 냄새를 좋아한다. 땀이 묻으면 세면 목욕만이 유일한 차림이라면 이 어찌 순후소박한 도민이 아니랴. 이러한 유풍과 관습 이러한 전통과 자연환경에서 자라난 그네들의 도민 여성으로 하여금 불러진 민요조차 그 생활감정을 꾸밈없이 표현되었거늘 이 섬 부녀들이 정서적인 면의 기준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민요일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까지도 생활양식이라든가 혹은 남자의 근로에 대한

염오성(厭惡性)에 반하여 부녀의 강한 근면성과 인내성 그 노력에 편의한 의복차(衣服次)라든가 뚜렷이 옛 그대로의 모습의 형태요, 또는 우주시대인 오늘날에 와서도 도민 일부의 원시적 미신을 숭배하여 버리지 못하는 등등을 따져 보더라도 본도 민요는 대륙과의 절해고도라는 위치의 지리적 조건도 내재되어 있으려니와 대륙의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지 않은 지방적 향토 순색(純色)을 자랑할만한 민요인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향리별로 민요 머리마다 출처근거를 찾을 수는 매우 어렵고 칠백리 환해일원의 방곡(坊曲)에 산포(散布)되지 않은 곳이 없을만큼 동서로 가로 놓인 한라산을 사이에 두고 산남 산북을 가릴 것 없이 부르지 않는 민요가 없을만큼 전반적으로 침류(浸流)되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하나 하나의 민요출처를 뽑아내기에는 매우 힘든 것이다.

Ⅲ

본도 민요를 음미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관적 태도의 감성에서 작용될 것이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혹은 내적 감응의 순간에 있어서 여성의 진실한 심금(心琴)의 음향에 공명(共鳴)하여야 할 것도 각자의 자유이겠지마는 전민요를 통하여 감상(鑑賞)할 때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은 감상적인 애상적 소시곡(小時曲)인 그 무언가 숙명적인 비애의 의곡(衣曲)과도

혹은 그 신고(辛苦)한 맞을 느낄 것이나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망망한 창파 고도(孤島)이니 만큼 대륙 내지와의 거리관계, 부녀의 자급자족의 경제면, 극(極)한 남존여비의 강한 사상, 혹은 그릇된 사회제도, 특히 예원시(隸元時)의 남다출역불환(男多出役不還)에의 원한 등등에서 오는 부수적 조건에 기인한 내적 소산인 까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지난날의 부녀의 생활양상, 사고방식, 사회생리, 운명론적 인생관 그리고 부녀 전생애의 우주관!

감성과 이성으로 하여금 위로 치민하는 목민지관으로부터 보잘 것 없는 지천(至賤)한 일개의 비복(婢僕)에 이르기까지 도덕상 윤리로서 생명에 충동(衝動)을 받거나 아니 받거나 간에 그 느낌은 진의(眞意)에서의 자유일 것이 아닌가 한다.

參 考 文 獻

朝鮮民謠選
朝鮮日報
民俗과 文學
民俗學
耽羅誌
耽羅紀行文
朝鮮口傳民謠
韓國民俗考

후 기

제주문화총서 제4권으로 만농 홍정표 선생의 『제주도민요해설(濟州島民謠解說)』을 내놓는다.

이 책은 40여년 전인 1963년(省文社)에 발간되었던 책인데, 이제는 구하기가 어려워 이 방면에 연구자에게 필요한 책이요, 나아가 제주도민요를 알려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에서 발간한다.

원래 이 책은 세로쓰기로 편집이 되어 있어서 요새 책하고는 편집이 달라 읽기에 불편하기에 이번에는 가로쓰기로 편집을 하였다. 그러니 '일러두기' 내용과는 다르게 되었으며, 표현도 가급적 예전 그대로 살려 그때의 상황을 맛볼 수 있게 했다. 다만 확실하게 틀렸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정오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잡았으며, 한자는 손톱묶음인 ( )속에 넣었을 뿐 달라진 내용은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새삼 만농 선생의 정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그저 기쁠 뿐이다.

제주문화 편집부



晩農 洪 貞 杓(1907~1992)

광주사범학교졸, 한국대학 법정학부 중퇴
제주사범·제주농고·오현고·제주일고 교장 역임
제주도교육연구원장, 제주미술관장, 제주간호학교장
문화재전문위원 및 감정관, 녹조소성훈장, 제주도문화상

濟州島民謠解說

1963년 1월 10일 초판 인쇄
1963년 1월 15일 초판 발행
발행처 : 성 문 사
2001년 1월 15일 재판 인쇄
2001년 2월 10일 재판 발행

발행처 : 도서출판
발행인 : 홍 성 호
저 자 : 홍 정 표
인 쇄 : 경 신 인 쇄 사
(☎ 746-2044, FAX 748-1534)

* 한정판 500부 값 30,000원

ISBN 89-88949-10-2
ISBN 89-88949-00-5(세트)